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 일대 學術調查

高昌錫 · 李清圭 · 高光敏
梁鎮健 · 尹致富 · 姜彰彥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史的 考察과 地表調查 |
| II. 社會背景과 信仰圈 | V. 맺음말 |
| III. 流配人의 入島狀況과 敎學文化 | |

I. 머리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濟州 關門으로서 유배인의 자취와 왜구들과의 격전지 등으로서 슬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禾北浦口 일대에 대한 학술조사는 역사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드문 本島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한 文化財 復元은 本島民의 歷史 및 文化에 대한 의식을 드높이고, 나아가서는 제주도민의 精神과 自矜心을 후대에 繼承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해 제주시내 가장 오래된 寺刹 遺跡인 수정사 및 원

당사에 대한 地表調査에 이어지는 이번의 학술조사는 후대에 기리 기억될 만한 작업이며 이러한 사업이 금후 끊임없이 이어져 앞서 선대의 못한 일을 다 하고 後代로부터 평가받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화북포구의 학술조사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다.

첫째는 현재 화북포구의 社會 人文的 現況과 信仰構造를 조사함으로써 文獻資料와 遺跡 遺物資料에서 확인될 수 없는 옛 생활 전통의 잔존 모습을 추적하는 일이다.

둘째는 화북포구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통해 들어온 유배 인들과 그들의 제주도 내 教學活動을 살펴 보는 일이다.

셋째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의 현장으로서 화북포구의 유적 유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자칫 후대에 전혀 전할 수도 없을 구체적인 이 일대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 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는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調 查 團 長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長 梁淳埜 教授

調 查 員 : 濟州大學校 史學科 教授 高昌錫

濟州大學校 史學科 教授 李清圭

補助調查員 : 濟州大學校 講 師 梁鎮健

濟州大學校 講 師 尹致富

濟州大學校 博物館 姜彰彥

調 查 學 生 : 濟州大學校 金明徹, 高才元, 玄萬浩, 方文培, 金慶柱

이 밖에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제주대학교 강사인 高光敏(민속학)이 화북의 신앙권에 대한 조사 연구자료를 내놓았고, 또 영남대학교 대학원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康昌和 (고고학)가 화북성지 유적 현지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임자에 이어 姜永淳 現 耽羅文化研究所 助教가 본 조사의 행정과 보고서 편집 및 교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 밖에 조사에 있어 제주시 당국의 도움 뿐만 아니라, 화북동 주민의 격려와 관심이 큰 힘이 되었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이 조사는 1988년 5월 계약과 함께 현지조사로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 그 정리 작업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가짐으로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 학술세미나에는 화북주민 대표 50여명이 참석하여 화북문화재 복원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정리된 보고서의 내용은, Ⅱ에 화북동 마을 사회배경과 신앙 조사를 尹致富와 高光敏 등이 다루었고, Ⅲ에 유배인의 입도상황과 교학문화에 대해서는 高昌錫과 梁鎭健 등이 다루었으며, 유적의 역사적 기록의 검토 및 지표조사는 Ⅳ로 하여 高昌錫, 李清圭, 姜彰彦이 맡아 기술하였다.

끝으로 Ⅴ의 맺음말은 학술조사 단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끝에 의견을 모아 작성했음을 밝혀 둔다.

Ⅱ. 社會背景과 信仰圈

1. 禾北洞의 社會背景 概觀

尹 致 富

(1) 自然環境

禾北洞은 행정구역상 濟州道 濟州市에 속한다. 제주시 觀德亭에서는 동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시 三陽洞과 서쪽은 健入洞 및 一徒洞과 인접하여 남쪽은 奉蓋洞 및 寧坪洞과 경계하고 있다. 이 때 서쪽 경계선은 別刀川으로 구분된다.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6°33', 북위 32°31'으로서 화북동의 총면적은 8.27km²에 해당된다.

화북동의 서쪽 별도봉 기슭을 흐르는 별도천은 영평에서 발원하여 송담천과 흘러오다가 별도천에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든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많이 내려야 물이 흐르는 건천이다. 용수는 거의가 해안에서 용출되고 있어 상수도 가설 이전에는 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다.

지세는 서쪽의 사라봉과 별도봉이 경사를 갖는 해식대지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그 동쪽으로는 저지대로 이루어졌다. 토양은 적황색 토양 및 현무암으로 분포되어 있다. 지질은 배수가 양호한 편이며 토질은 석질 내지 석질양토

로 형성되었다. 기후는 中緯度의 온대와 低緯度의 열대기후의 중간인 기후를 갖는다. 화북동의 연평균기온은 14.7℃로서 서울지방보다는 3~4℃가 높고 우리나라 남해안보다는 2~3℃가 높으며 서귀포에 비하면 0.7℃가 낮은 편이다.

〈표1〉 화북동의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¹⁾

월 요소	1	2	3	4	5	6
기온 (℃)	4.8	5.2	8.0	12.3	16.2	20.4
강수량 (mm)	59.2	75.6	73.1	82.3	88.8	158.1

월 요소	7	8	9	10	11	12	전년
기온 (℃)	25.1	25.8	21.7	16.8	12.1	7.6	14.7
강수량 (mm)	209.8	226.6	249.5	87.5	69.2	60.2	1,439.9

(2) 歷史的 背景

화북동은 별도교를 경계선으로 오현학원 일대의 東濟院과 그 남쪽에 위치한 富錄, 巨老를 합쳐 이 지역은 화북2동이고, 三陽洞과 맞닿은 伐浪을 비롯한 화북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북본동이 바로 화북1동으로 불리워진다.

화북동이 언제 설치됐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력은 알 길이

1) 본 자료는 제주시 전체의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화북동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며, 제주시에서 펴낸 《濟州市 三十年史》(1985)에서 재인용하였음.

없지만 20여년 전에 별세한 이 고장의 한학자로 사학에 조예가 깊었던 李美雨씨와 10여년 전에 세상 떠난 서예가 金光秋씨의 구전되는 얘기로는 그 설촌연대를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화북동사무소의 업무보고현황에 나타난 연혁편이나 화북국민학교에서 조사해서 발간한 향토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북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거주한 본주거지는 거로와 부록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몇몇 씨족들이 처음 맑은 샘터를 중심으로 모듬살이를 하다가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거로와 동계원 쪽으로 마을세를 확장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이다. 그 후 약 4,5백년전에 속칭 새간목(또는 새가름목)에 취락하여 거주하다가 음료수 및 해산물 등을 얻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전에 李氏가 화북마을을 설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연부락의 형성은 부록, 거로, 새간목, 화북의 순으로 형성된 셈이 된다.

그간 지명도 別刀에서 拱北으로 불려지다가 禾北으로 바뀌었다. 別刀에 대한 지명의 유래로는 이곳이 육지를 드나드는 중요한 포구로 이별의 슬픈 사연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칼로 애간장을 끊는다는 것을 상징하여 나누일별(別)자와 칼도(刀)를 쓰게 됐다는 얘기와 화북 서쪽에 위치한 별도봉 북쪽 해안가 절벽이 칼날같이 날카로와 부락 발전에 해가 된다는 일설에 따라 別字 속의 칼 刀字 2개와 다시 刀 1개를 더 보태어 칼 刀 3개를 쓰면 능히 흉사를 막을 수 있다는 風水地理說에 따라 別刀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산 이은상의 <탐라기행>에서는 별도의 어원을 '불뒤'에서 찾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한자로 읊기면서 別刀로 적었다고 하고 있다. 우리말의 '불'이란 원래 聖域을 뜻하는 것으로 바로 제주의 성역은 三姓穴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현 화북의 위치가 성역의 뒤로서 '불뒤'가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別刀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또 앞서 金光秋씨에 의하면 禾北이란 뜻은 '불뒤'와 '拱北'에서 연유된 것으로서 '拱'字와 '北'字를 쓴 것은 제주도의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화북마을은 한일합방이 되어 산지항이 축조되기 전에는 전라도 영암과 강진 등을 잇는 제주도의 중요한 관문이었다. 이 포구를 통해서 쌀이며 소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금 등의 생활필수품이 들어 왔고 제주를 다스리는 목민관이나 유배자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조선조 말엽까지만 하더라도 옛 국민학교 자리에는 禾北鎭이 자리잡아 水軍 1백여명이 주둔했었고 한일합방 후에는 일본 활어수출업체인 하야가네 출장소가 설치되어 일본인이 16세대나 거주하던 때도 있었다.

특히 화북항의 개발에 힘쓴 인물로는 조선조 영조 때 金政목사를 들 수 있다. 그는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자신의 奉錄 30석을 들여서 濟州牧·旌義縣·大靜縣 등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화북포에 선착장을 축조하고 환송정을 만들어 공사점거소로 하였다. (담수계 발행 탐라지)

1914년에는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화북리라 해서 제주면에 편입되었으며, 1955년 8월 13일에는 제주시에 편입되는 동시에 화북 1, 2동으로 갈리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화북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주거 및 공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집중 육성 개발되고 있다.

(3) 人文概況

화북동은 10個統 40個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1,506호이고 인구는 6,527명이다.

표2: 화북동 가구 및 인구수

(단위: 호, 명)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비 농 가	계	남	여
1,506	663	786	6,527	3,281	3,246

(1988. 3. 현재. 화북동사무소 제공)

耽羅文化 8

가구별 성씨 분포는 金氏가 442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李氏 154가구, 高氏 89가구, 姜氏 80가구, 梁氏 76가구, 朴氏 5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가구별 성씨분포 ²⁾

(단위 : 가구)

계	康	姜	高	孔	金	郭	權	老	牟	馬	閔	文	朴	夫	白		
1,506	34	80	89	4	442	1	6	-	7	1	-	34	50	32	13		
牽	孫	徐	宋	申	慎	安	梁	吳	禹	元	俞	尹	李	張	全	田	鄭
-	6	5	19	12	12	16	76	25	2	1	5	21	154	43	1	4	31
趙	曹	左	蔡	崔	黃	韓	許	玄	洪	秦	離	任	秋	其 他			
6	3	1	5	13	15	30	20	43	37	-	3	9	-	95			

濟州에 入島하여 禾北에 定着한 姓氏는 다음과 같다.³⁾

金海金氏 入島祖 金寬 仁祖 25年(1647)

清風金氏 入島祖 金素 孝宗初期(657年頃)

密陽朴氏 入島祖 朴泰鎬 英祖 29年(1753)

礪山宋氏 知申公派 入島祖 宋楠 宣祖 25年(1592)

礪山宋氏 正嘉公派 入島祖 宋遇弘 肅宗 31年(1705)

居昌慎氏 入島祖 慎明麗 仁祖 6年(1628)

全州李氏 入島祖 李承文 中宗 14年(1519)

주민의 종교생활은 전형적인 민간신앙과 불교 및 기독교를 믿는 주민들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마을에 堂이 여럿(본향당, 자운당, 상동낭할망당, 억물

2) 본 자료는 화북국민학교(1987)에서 펴낸 향토지에서 재인용했음. 老·閔·牽·秦氏는 개인별 성씨임.

3) 濟州道, 《濟州先賢誌》1988. p. 470-498.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머릿당, 해신당) 있고, 사찰도 두 곳(원명사, 보덕사)이나 있으며, 교회는 한 곳(화북교회)이 있다. 노년층의 여인들이 堂에는 많이 다니며, 불교 신자는 원명사가 600명, 보덕사가 200여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에는 화북동 이외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신자는 140여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화북마을 주민들이다.

교육기관으로는 1926년에 설립된 화북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제주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 등 국민학교 2개소, 오현중학교·제주동중학교 등 중학교 2개소, 오현고등학교·제주교육대학 등 고등학교와 대학이 각 1개소, 그리고 탐라유아원·거로유아원 등 유아원 2개소가 있다. 이 중 화북국민학교를 제외한 제주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는 화북마을의 학생보다는 타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는 편이다.

〈표4〉 화북국민학교 학생 현황

(단위: 명)

학년 \ 성별	1	2	3	4	5	6	계
남	63	60	65	40	47	30	305
여	62	57	45	48	60	44	316
계	125	117	110	84	107	74	621

(1988. 11. 현재 화북국민학교 제공)

행정기관으로는 화북동사무소 이외에도 제주국토유지 건설사무소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는 제주시 농협분소가 있다. 이 밖에도 무의무탁자 보호 및 갱생지도 시설인 제주시립 희망원이 있다.

(4) 産業構造

화북동은 해안에 접하고 있어 앞바다에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으나 영세어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력선이 25척, 무동력선이 3척이며,

耽羅文化 8

해녀숫자도 점점 감소해가는 형편이다. 1983년도의 경우 어업인구가 239명이며, 해녀의 숫자는 32명으로 화북어촌계의 수산물 판매고는 24,066,000원이었다. 화북에서의 주된 산업은 농업으로 그 가운데서도 감귤과수원이 많은 편이다.

표5) 토지이용현황

(단위=km)

계	토 지 면 적				
	대 지	밭	과 수 원	임 야	기 타
8.27	0.37	3.24	1.33	2.1	1.23

(1988. 3. 현재 화북동사무소 제공)

표6) 농기계 보급율

(단위: 대)

경 운 기	동력분무기	예 초 기	기 타
88	37	2	7

* 본 자료는 화북국민학교(1987)에서 펴낸 향토지에서 재인용하였음.

제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과 관련된 두산정미소, 釜山食品, 漢拏食品工業社, 大洋酒造場, 濟州飼料工場 등이 있으며, 피혁제품 제조업체로는 신데렐라製靴, 석제품 제조업체로는 금평석재, 성원석재, 한리석재 등이 있다. 화학석탄 및 합성수지 제조업체로는 대양연탄공업, 제주연료공업, 대성가스공업사, 관동가스공업사 등이 있고, 비금속 광물 제조업체로는 제주레미콘 등 14개업체가 있다. 이 외에도 화북조선소가 있다. 이처럼 화북동은 화북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공업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

그밖에 1975년부터 고안근씨가 전업양계장을 설치하여 하바의 품종의 10,000 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 4) 14개업체는 다음과 같다. 극동콘크리트, 거창산업사, 동성기업사(2), 동일브릭, 동아기업, 성일사업사, 세창산업사, 영동산업사, 인성기업사, 제주연와공업사, 탐라개발, 토왕건설사, 제주레미콘 등

2. 禾北1洞의 信仰圈의 實相

高 光 敏

(1)

어느 집단이 同一堂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 집단을 하나의 동일신앙집단 또는 동일신앙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일신앙권이 하나의 行政上의 단위 마을 별로 그 구획이 서로 일치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행정단위인 한 마을 안에서도 堂神, 특히 여러 本鄉堂이 坐定해 있어 여러 신앙집단으로 나뉘어진다. (한림읍 명월·동명리의 경우, 필자의 글: “堂神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형태” (比較民俗學) 창간호 참조) 그리하여 행정구획상으로는 同一部落이지만 신앙권은 여럿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심지어 다섯개의 행정 부락이 하나의 同一堂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발견된다. (성산읍 수산1·2리, 고성리, 신양리, 성산리의 경우) 그러므로 제주도에서 행정상의 단위마을의 개념은 신앙권역을 다루는데 큰 함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하나의 同一堂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집단에 대해 하나의 信仰圈域이라 규정해 놓고, 禾北1洞의 신앙권 實相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하여 禾北1洞의 신앙권 실상을 통하여 그 집단의 생활문화 공간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 堂神들에 대한 직능별 또는 성격에 따른 분류는 이미 玄谷駿(“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창간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82)교수에 의하여 이뤄진 바 있지만, 본고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 本鄉神

同一 信仰圈 내의 토지와 주민의 諸般事象을 차지하며 수호해 주는 神을 “本鄉神”이라 하고 그 神을 모신 堂을 “本鄉堂”이라 한다.

본향신은 동일 신앙권 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부락민의 호적, 출산, 사망, 생업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神으로 통념되고 있다. 토지, 산수 등 자연의 주인이라 함은 그 구역 내의 토지의 임자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본향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土地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본향신을 두고 신앙권역의 토지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신앙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神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生業守護神

수렵, 어업, 농업, 축산 등 신앙민들의 생업을 수호, 管掌하는 神으로 이는 한 신앙권 내 신앙민들의 생업형태를 반영하는 것이겠다. 수렵을 관장하는 수렵신은 “산신”, “산신대왕”, “산신백관”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산신의 主職能은 산에 있는 동물의 수렵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산신 계통의 이름을 가진 堂神은 주로 山間 내지 中山間 마을들에 많다. 이것은 그 신앙민들이 그 옛날의 생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수렵이 거

의 사라지고 신의 성격도 수렵의 수호라는 측면이 전혀 없어져 버렸거나 혹은 약간의 잔형만 남기고 있을 뿐이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민간수호신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농신의 이름을 “세경” 또는 “천황제석”이라고 하는데, 간혹 신앙민들로부터 신앙되는 경우들이 간혹 보인다. 어업신은 해신이라는 이름 외에 “개당하르방”, “개할망”, “용여부인”, “용왕”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계통의 이름을 가진 당신은 일일이 그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이 모두 해안부락에서만 모셔지고 있다.

다. 育兒내지는 疾病守護神

주로 어린이들의 產育과 치병의 직능을 갖고 있는 신으로, 이 신에게 빌면 허물, 음 등의 피부병의 치료에 効驗이 있다는 것이 신앙민의 통념이다. 매월 7, 17, 27일 그리고 8, 18, 28일을 祭日로 삼는 堂이 일반적으로 흔하다. 그래서인지 “일췌당”(七日堂), 또는 “오드렛당”(八日堂)이라 하는가 하면, 또는 그 직능에 따라 “허물할망당”이라 하기도 한다. 대개 그 神格은 女神인게 일반이다.

(3)

제주시 중심에서부터 일주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키로쯤 가다보면 첫번째로 나타나는 자연취락이 행정구역상 제주시 화북동이다. 이 화북동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 위쪽에 위치한 세개의 자연취락(부록, 거로, 동재원)을 합쳐 행정구역상 화북동이라 하고, 일주도로 바로 밑에 위치한 자연취락을 화북1동이라 한다. 이 화북1동은 화북3동과는 다른 신앙권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화북1동의 신앙권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촌로들에 따른 마을 설촌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산쪽에 위

치한 “부록”이라고 하는 자연취락으로부터 밑으로 “거로-동제원” 그리고 오늘 의 화북1동으로 이주해 왔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김씨를 비롯한 허씨, 양씨, 현씨 등의 각성받이가 모듬살이 하고 있는 마을이다. 화북1동은 예로부터 한 일합방 이전까지만 해도 전남 강진포를 잇는 제주의 관문이었다. 그러나 곁으로 불 때는 취락의 모듬살이 형태로 보이거나 씨족이 동서 골고루 분포된 점으로 미뤄 볼 때는 하나의 커다란 자연취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잠정적으로는 하나의 커다란 자연취락이 둘로 나뉘었다. 그래서 길 하나를 중심으로 마을 동쪽을 동부락(통칭, 중부락이 있긴 하나 공동조직상 동부락에 포함된다) 서쪽을 서부락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 두 부락은 동일 본향신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생업수호신이나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은 따로 모시고 있어 특이한 신앙권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신앙권 내의 신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 형태를 살펴 보기에 앞서 먼저 제주 어촌마을의 생업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구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마을 해안에는 포구가 둘이나 있다. 마을 서쪽에 위치한 것은 “금돈지” 포구이고, 동쪽에 위치한 것은 “억물머리” 포구다. 이 두 포구에는 생업수호신적 성격의 당이 각기 하나씩 좌정해 있다. 전자의 것을 “해신당”, 후자의 것을 “억물머릿당”이라 한다.

해신당은 한상목 목사 때 건립, 매년 1월 6일에 제를 지냈었다 한다. 또 구전에 의하면 어느 목사, 관리들이 육지에서 오고 갈 때에는 이 당에 와서 참배했었다 한다. 지금은 이 포구가 하나의 어항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 당에 대한 신앙은 이 포구에 정박하는 어선들의 어부들이나 서부락에 거주하는 해녀들이 대부분이다. 정월이면 좋은 날을 택하여 儒式으로 제를 지내고 난 후에 해신인 용왕이나 바다에서 돌아간 영혼들에게 대접하는 의미로 白紙에다 여러가지 제물을 떠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격의 “요왕지”를 드린다. 동쪽 포구에 정박하는 어선들과 동부락에 거주하는 해녀들을 수호하는 억물머릿당은 포구 옆으로 나 있는 길가 바로 옆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모시고 있다. 이 당신은 배를 짓고 난 후에나 또는 태풍을 피하여 이 포구에 온 타지방의 배들까지도 이 포구를 빠져나갈 때에는 이 역물머릿당에 와서 제를 올려두고 떠나야 무사하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일렛당”(七日堂)도 동서부락이 따로 모신다.(오늘날 중부락이 행정편이상 나뉘지긴 하나 생활문화공간은 거의 동부락에 포함된다). 서부락에는 “상동낭할망일췘증주”라는 여신이, 동중부락에는 “자운당할망일췘증주”라고 하는 여신이 각기 따로 좌정해 있었다. 현재 이들 두 당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동낭할망당”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하나의 지명으로만 옛 당집이 있었던 골목이라고 해서 “당침골목”이라 불리우고 있고, 서부락에 좌정해 있었던 “자운당” 역시 흔적없이 사라졌을 거라고도 하고, 또는 어데 다른 곳으로 가서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뭏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어린이들 아피로 인해서 당을 꼭 찾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겠다.

그러나 이 두 부락의 제반사를 관장, 수호해주는 본향신을 모신 본향당은 이 마을 중심에서 볼 때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가릿당”이라 불리는 본향당은 당신의 내력담인 본풀이는 특별히 길계 정해지지는 않지만, 제단이 둘이나 있다. 이는 당신이 둘이라는 말이었다. 서쪽 제단은 남신인 “당하르방”을 위한 것이고, 동쪽엿 것은 본향신의 부신으로 관념되는 당할머니(동고깃할망)를 위한 것이다. 정월이면 어느 길일을 택하여 이 마을 동서부락 신앙민들은 물론이고, 이 마을 태생이면서도 타향에 가서 거주하는 신앙민들까지도 이 본향당에 찾아와서 신년인사격인 신과세제를 올리고 일년의 운수를 점치는 격의 簣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화북1동의 신앙권은 생활공간에 따라 동서부락이 따로 생업수호신적 성격의 해신당이나,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일렛당”(七日堂)만은 그 신앙권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 신앙민의 제반사를 관장하는 본향신은 같이 모시고 있다. 그리고 堂神들의 역할분화상 타신앙권들에 비하여 특이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본향신인 남신과 그 부신인 여신 사이에서 서로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그 직능이 분리되는 게 일반인데, 화북1동의 신앙권 내에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서로의 갈등과 대립으로 분리되지

않았는데 반하여 대신 양 부락에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여신이 좌정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내 여러 신앙권역내의 신앙형태는 여러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본풀이의 서사전개가 보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본풀이의 내용에서와 같이 남신과 여신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각기 그 역할이 갈리게 됨과 동시에 상주처인 堂도 따로 있는 신앙권역 : 동명리, 명월리, 고내리, 월정리 등.

2) 위 1)과 같은 것이면서 신앙권마저 따로 갈려 두개의 신앙권역을 이루고 있으면서 한 신이 여러가지 직능을 관장하고 있는 신앙권 : 동명리, 명월리 등.

3) 각기 그 직능을 달리하는 신들이 한 당 안에 같이 좌정해 있는 신앙권 : 삼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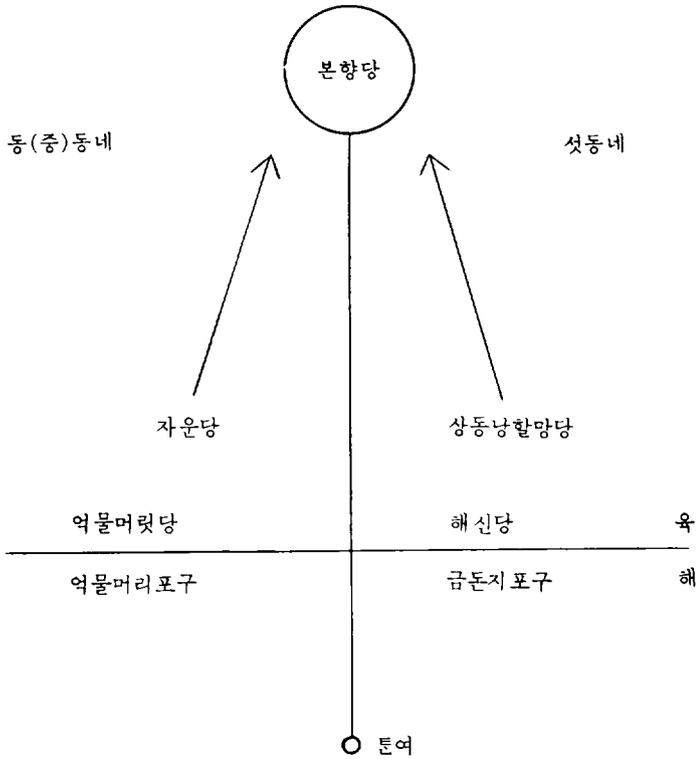
(4)

화북1동의 신앙권역에서는 한 본향신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모시기에 동일 신앙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 및 질병수호신과 생업수호신적 성격의 해신당은 분리되어 있다. 이는 화북1동의 생활문화 공간의 양분을 반영함이다.

화북1동은 바다의 발을 둘로 나눈다. “툰여”를 중심으로 하여 그 동쪽의 바다발이 동, 중부락 사람들 것이었고, 그 서쪽의 바다발이 서부락 사람들 것이었다. 바다의 발이 양분되듯 바다의 발으로 나가는 길목인 포구 또한 다르다. 동, 중부락 사람들이 바다의 발으로 나가는 길목이 역물머리 포구라면 서부락 사람들의 길목은 금돈지 포구다. 금돈지 포구는 그들이 바다발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관항으로 넘겼다가 다시 그들의 길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한 신앙권의 실상은 그 집단의 생활문화 공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본다.

화북1동의 한 신앙권의 실상과 생활문화 공간의 함수관계는 다음의 도표와 같이 요약된다.



〈화북1동 신앙권역 내의 양분과 통합체계도〉

Ⅲ. 流配人の 入島狀況과 敎學文化

1. 禾北浦口를 통한 流配人の 入島狀況

高 昌 錫

(1)

조선조의 형벌체제는 <大明律>에 의거해서 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刑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른바 五刑이라 하는 것이다. 원래 五형은 중국에서 古來로부터 시행되었던 형벌로 그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는 隋·唐 이전과 이후가 다르며 明律은 곧 수·당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그 중 유형은 사람이 중한 죄를 지었을 때에 차마 사형까지는 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장형이 併科되었다. 즉 장 100을 쳐서 2천리의 먼 곳에 귀양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천5백리와 장 100, 3천리와 장 100 등 세 등급이 있었고, 5백리 마다 죄 한 등이 가감되었다.

그런데 2천리에서 2천5백리, 3천리 등 거리를 기준으로 한 유형의 기본적인 세 등급의 규정은 당시 우리 나라 실정에는 불합리한 것이었다.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으나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제약이 있어 가령 “流3千里”의 형은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실지에 있어서는 범죄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의 등급에 따라 어느 곳에서 어디로 보낸다는 지방을 지정하여 이에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유형지는 주로 濱海(도서 포함)와 邊地의 내륙지방이었으나, 한편 始面이라 하여 京畿 등 근접한 곳인 경우도 있었다. 시면이란 서울 쪽에서 첫머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것은 服役의 기한이 아닌 지리상의 거리로써 형의 경중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유형이 지방에서보다는 중앙에서 왕명에 의해 주로 정치범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이므로, 그때 그때의 정치상황이나 죄인의 신분차 혹은 罪狀의 경중에 따라 유형지도 결정되었으며, 때로는 다른 곳으로 移配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더우기 조선조 중기 이후에 와서는 변방이나 내륙지방에의 유배는 아주 적었고, 대개 유인도나 무인도 등 絶海孤島에의 유배가 많았다. 그것은 당쟁 등으로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반대파를 절도에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발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유배 대상의 섬으로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않은 江華島나 白齡島 등 도처에 많은 섬이 있으나 왕족 등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이들 섬에 유배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연해에 위치한 절도에 유배되었다. 예를 들면 제주도를 비롯하여 黑山島, 珍島, 荏子島, 金甲島, 智島, 古今島, 莞島, 薪智島 등 전라도 연해의 여러 섬이 유배의 대상지로 많이 이용되었다.

원래 유형은 유배지에 방치하여 그 지방민과 혼거하는 일이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그 곳에 安置, 充軍, 爲奴偏配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치란 유배지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거주를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대개 왕족이나, 고관, 현직에 있었던 자에게 적용되었다. 또 罪質에 따라서는 특별히 恩典을 베푸는 처분으로 本鄉安置가 있고, 이와 반대로 보다 엄중한 조치로서 圍籬安置 혹은 加棘安置, 絶島安置가 있었다.

본향안치는 본인의 고향에서만 유배생활을 하도록 하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고, 위리 혹은 가극안치는 중죄인에게 적용되었는데,

저주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위리) 가시덤불을 쌓고(가극) 그 안에 죄인을 가두어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죄인은 전라도 지방에 탕자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대개 전라도 연해의 여러 섬으로 많이 보내졌다고 한다. 말하자면 중죄인에 대한 응징의 조치로써 취해진 것이다.

총군형은 죄를 지은 관원을 군역에 복역시키거나 죄를 지은 평민을 賤軍役に 편입시켰던 것을 말하며, 위노(편배)란 죄인 또는 그 가족을 노비로 만들어서 徒流案에 기입해 두는 것을 말한다.

(2)

제주도는 조선왕조 약 5백 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귀양살이 했던 곳이다. 李健이 《濟州風土記》 末尾에서 “제주도는 온 나라의 罪地요 流鼠은 나라의 重法이라”고 한 것은 당시 제주도의 사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왕족이나 重臣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왕명을 거역하거나 정사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사형이 아니면 원지유배를 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國事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수륙천리에 교통이 또한 불편하고 본토와는 격리된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유배지로는 최적지였다.

조선조 후기 實學者 李重煥이 《擇里志》에서 “제주읍 동쪽과 서쪽에 있는 旌義, 大靜 두 고을은 풍속이 대체로 제주와 같다. 목사와 두 고을 守令이 예로부터 본토에 왕래하였으나 풍파에 표류하거나 빠져죽은 일이 없고, 또 조정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많이 여기에 귀양왔으나 또한 풍파에 떠밀리거나 빠진 일이 없었다. 이 곳은 왕의 덕화가 멀리서 미쳐서 온갖 신들이 받들어 순응하였음인 줄을 알 수 있다”고 하여 타도에 비해 많은 수의 벼슬아치들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같이 濟州三邑으로 부임하던 수령이나 유배인들이 풍파에 표류하거나 빠져죽은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正祖 때에 전라도 觀察使 朴 祐源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목에 移配하는 죄인을 실은 배가 漂失되어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제주목사 李鴻運이 “이배죄인 李會遂와 승려 信 叟 등이 바다를 건너다 바람을 만나 표실했다”고 보고한 것은 한두 예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조 약 5백년을 통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자의 수는 무려 230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개중에는 申鈺과 같이 84세의 최고령자가 있었는데, 가장 어린 나이로는 昭顯世子의 3남 石堅으로 4세였다. 유배자의 신분도 위로는 廢主 光海君을 비롯하여 왕족과 외척, 문무양반, 학자, 승려, 宦官 및 도적과 국경 지방의 越境犯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었다. 특히 유배형에 있어서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제주도에 유배되는 경우 거의 종신형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단지 정세 변화에 따라 赦免, 석방되거나 타지로 이배되었을 뿐이며, 때문에 제주도에서 10여년의 유배생활을 보낸 사람도 많았다. 물론 개중에는 賜死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면 후 兩嶺의 길이 열려 중앙 정계에 진출하거나 유배왔던 제주도에 다시 牧民官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정착하여 입도시조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제주도에 유배된 여러가지 특수한 예를 살펴보면,父子가 전후하여 유배되거나 재차 유배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전가족이 유배되기도 하였다. 또한 도적의 무리로서 유배된 후 그 횡포가 심하여 타지로 이배되어 가는 경우가 있었고, 유배인들끼리 비밀히 結社하여 역모를 꾀했던 일까지 있었다.

楸子烏를 포함한 제주도 내의 유배인의 분포는 濟州三邑에 두루 배치되었던 것이 말기로 넘어가면서부터 濟州牧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것은 英祖 때 전라도 觀察使 李昌壽가 “유배인이 제주목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그 연좌인을 제주삼읍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보고한 것이나 謫客 金允植이 《續陰晴史》에서 “오늘날과 같이 제주목에 적객이 많은 때가 없었다.”고 한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제주삼읍 중에서도 특히 大靜縣의 경우

정치적 중죄인의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그것은 서울에서 絶遠奧地로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더우기 조선조부터 충군, 위노형의 경우는 대부분 대정현으로 정배시켜 왔다. 中宗 때에 제주목사를 지낸 金錫哲이 狀啓를 올려 “京中에서 죄를 지어 公奴婢로 定屬한 범죄인 가운데 제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이 현에 소속시켜서 殘縣을 충실하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한 것은 그를 반영하는 것이다.

죄인이 유배지로 보내질 때 그 중에는 특별한 은전에 의해 가족이나 노비의 隨從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왕명에 의해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인 탄 流人船은 대개가 전라남도 海南, 康津, 靈岩 등지에서 출발한 浦吉島나 所安島 등을 거쳐 제주 別刀浦(禾北)에 도착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별도포가 유배인이 도착한 후 제주목으로 인계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始·終着地가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宋時烈과 같이 처음 泰仁(충남 서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고 김윤식처럼 仁川에서 출발하여 山地浦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제주에의 도착 지점도 光海君과 같이 於等浦(행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涯月浦, 朝天浦, 成德浦, 別刀浦 등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아마 풍향이나 조류 관계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제주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金尙憲의 《南槎錄》에 의하면, “본도는 본래 남해 중에 있어서 왕래하는 배가 북풍을 만나면 들어오고, 동풍을 만나면 나가는데 육지로 나가는 모든 배가 朝天館과 별도포에서 바람을 기다린다. 혹은 말하기를 옛적에는 바람을 기다림에 일정한 곳이 없어서 동쪽은 별도포 조천관, 어등포에서 동풍을 만나 육지로 향하여 白島(강진)·館頭(해남)·진도 등지에 대며, 서쪽은 都近川, 애월포에서 서풍을 만나 육지로 향하여, 於蘭浦(영암)·관두·진도·草島(진도에 속함)등지에 정박했다”고 했다.

이렇듯 전라남도 남단인 해남, 강진, 영암 등지는 과거 이래 제주도와 연결하는 교통항인 동시에 제주도로 유배되는 유형인들의 길목이기도 하였던 곳이

다.

특히 별도포의 경우, 조선조 태조 때에 불사이군의 죄로 제주 외도에서 귀양 살이 했던 李美는 그의 장형이 조정에 간청하여 제주도안무사로 부임해 와서 그의 귀향을 종용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라도 출옥시키기 위해 별도포로 연행했으나 갑자기 태풍이 불고 풍랑이 거세어 세번이나 출항치 못하자 결국 단념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혹은 제주에서 출발한 배가 南海群島의 도서간을 지나 그자그 항해하다가 갑자기 도중에서 바람의 강약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부득이 부근 도서에 정박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3)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조선조 약 500년을 통하여 제주도에 유배된 人士는 200여 명에 달하며 濟州牧에 유배된 사람은 상당히 나타나나 그들이 어느 포구를 통하여 入島하였는지는 자료상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화북포를 통해 입도한, 기록이 분명한 대표적인 네 사람을 주로 선정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申命耑는 寧陵(孝宗陵)을 옮길 때 石役의 감독이 태만했다는 죄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顯宗 14년(1673) 4월 초에 신명규가 영릉의 석역에 힘쓰지 않았다는 문제가 南人들에 의해 제기되자, 현종은 곧 左議政 金壽恆을 현지에 파견하여 공사현장의 검증을 담당케 함과 동시에 陵役管掌官이던 신명규와 監造官이던 李昇基 등 관계자를 하옥시켰다. 그런데 4월 11일에는 다시 副修撰 趙威鳳이 상소하여 영릉을 奉審하였던 전후 大臣을 탄핵하였고, 5월에는 靈林副守 李翼秀도 상소하여 寧陵奉石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즉 그의 상소에 의하면 “영릉의 石物에 금이 생겨 빗물이 꿰 염려가 있고, 또 능의 北側도 느슨해져서 매년 수

리하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드디어 5월 초에는 능역 봉심관이었던 김수항도 또한 그 책임을 지워 관직까지 박탈되었으며, 능을 옮길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신명규를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시키라는 왕명이 떨어졌다. 이리하여 신명규는 현종 15년 5월 11일경 유배의 명을 받고 출발, 15일 동안 걸어서 5월 26일 해남현에 도착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海倉에 이르렀다. 7월 5일 해창에서 출항하였으나 逆風을 만나 어란포에 정박하였다가 다시 보길도에 이르렀는데, 7월 8일에는 배를 보길도의 동단에 돌출한 백도로 옮겼다. 12일 백도에서 출항하여 7월 13일 제주 별도포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걸어서 제주성으로 직행하였다. 그리고 대정현에 謫畝가 마련 될 동안 제주성에 머물러 있다가 9월 15일 배소인 대정현 延來村에 도착하였는데 격소는 李爰吉의 집이었다.

그는 여기서 약 7년 동안을 적거하였으며 무단히 외출하거나 한 일은 없었다. 주위의 이목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그 후 숙종 6년(1680) 庚申大黜陟으로 南인이 몰락하고 西인이 집권하자 진도로 이배되었다가, 아들 申紆이 申聞鼓를 울려 부친의 寃罪를 호소하매 결국 무죄석방되어 방환되었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숙종 14년(1725)에 사망했다. 死後 그에게 吏曹判書가 追贈되었다.

任徵夏는 英祖 원년(1725) 老論이 집권했을 때 司憲府 掌令으로 등용되어 6개조의 상소문을 올려 蕩平策을 반대하고 少論의 제거를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進言과 아울러 弊政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파에서는 이를 기화로 계속하여 상소를 올려 그를 論斥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임징하를 탄핵하는 상소를 물리치거나 혹은 그들을 遠地에 귀양보낸 후, 同王 2년 2월 24일에는 임징하도 함경북도 順安縣으로 귀양보내도록 명하였다. 이에 대신들이 계속하여 임징하의 원통함을 伸救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조 3년 丁未換局으로 소론이 등장하자 임징하도 순안에 유배된 지 1년만에 다시 제주도 대정현으로 이배하여 위리안치하라는 명령이 사헌부의 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영조 3년(1727) 7월 초의 일이다.

여기서 그가 제주 유배의 명을 받고 순안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영조 3년 7월 초에 이배의 명을 받고 즉시 순안현을 출발하여 平壤, 金川, 臨陂 등지를 경유하여 한달여 만에 천라도 영암에 이르고 여기서 출항하여 소안도를 거쳐 8월 17일 밤에 별도포에 도착하였는데, 실로 水陸 3천리나 되는 거리였다.

그는 제주성에 들어와서 임시로 洪尙敏의 집에 머무르면서 데리고 온 奴僕들을 시켜 荷物을 謫居할 곳으로 옮기게 하는 한편, 倉口川(안덕면 창천리)에 가서 적소를 구하게 했다.

8월 21일 禁府都事는 대정현청을 향해 출발하면서 임징하에게 倉口川에 가서 적소를 정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加棘하겠다고 하자, 임징하도 그 말대로 조반 후에 倉口川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때 물건들을 거두어 주려고 제주성 촌민들이 자진하여 나왔고 騎馬까지 내놓아 주었으므로 데리고 온 노복들까지 합하면 일행의 수가 수십에 달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제주성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黑德村(금덕리)을 거쳐 대정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柑山里에 거주하는 干擻 金德恒이라는 사람의 길 안내를 받아 감산촌 부근에 이르렀는데, 시각은 밤 삼경무렵이었다.

여기서 바로 인접해 있는 倉口川으로 직행하여 노복이 전일 집을 빌기로 교섭했다는 姜座首(世進)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집을 구하려고 이곳에 와 있던 노복이 “주인이 집을 허락하지 아니해서 아직 저녁밥도 마련치 못했다”고 하였다. 더구나 주인 강씨는 임징하가 자기집에 도착한 것을 알면서도 나와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밤이 깊어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몹시 시장하였으므로 데리고 온 婢女를 시켜 밥을 짓게 하였는데, 이때 닭울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고 한다.

임징하는 아침에 주인 아들을 불러들여서 집을 빌려 줄것을 다시 교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으므로 강씨집을 나온 후 대정현감에게 사람을 보내어 都事를 오게 하였다. 얼마 후에 도사가 와서 전후사를 들은 후 강씨를 처벌하려고 하자 임징하는 이를 만류하고 또 강씨의 집에 거처하라는 권고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노복을 감산촌으로 보내어 高英濟의 집을 얻은 뒤에 그곳으로 옮겼다. 이에 도사는 그 다음날 그 집 주위에 가극을 마련하였는데, 때는 영조 3년(1727) 8월 23일이었다.

그런데 영조 4년 2월 20일 별안간 금부도사 金流가 서울에서 내려와 “徵夏掌來”의 傳旨를 보이고 그를 압송하여 3월에 제주를 떠났다. 그는 서울에 도착한 후 수년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차례 엄한 형을 받아오다가 결국 영조 6년 7월 義禁府 옥에서 사망했다. 즉 소론의 領袖 李光佐의 주청으로 투옥된 뒤 고문을 받고 獄死한 것이다.

趙觀彬은 영조 7년(1731) 10월 대사헌에 재직 중 申壬士禍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 이광좌를 탄핵했다가 “당파심에 의한 私感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대정헌에 유배되었다. 그 상소의 주요골자는 신임사화 이래의 義理를 개진하여 時政을 極論하였고, 또 이인좌의 난에 대한 勸亂錄을 얻어 보니 鄭希亮 등 10賊만이 괴수로 취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세력을 원조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李麟佐 등의 난이 가능했던 것이며, 따라서 이광좌 등이 그 事變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실제적인 괴수였다고 하여, 영의정 이광좌를 논척했던 것이다.

당시 영조는 탕평책을 내세워 당파의 조정에 힘쓰고 있던 때였으며, 따라서 承政院에서 조관빈이 올린 상소문을 보고받은 영조는 史官에게 명하여 그 소장을 돌려주게 하고 조관빈은 闕內에 와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리고 영조 7(1731)년 10월 27일 그가 入侍하자 왕은 진노하며 그에게 탕평책의 可否를 推究하고 곧 대정헌에의 유배를 명했다.

죄목은 그가 파벌적 대항의식이 강하고 탕평책을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조관빈이 서울을 떠난 것은 동년 11월 20일 경인데, 그는 10여일 만에 강진에 이르렀고, 일기 불순으로 15일간이나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다가 12월 17일에야 비로소 제주를 향해 출항하였다. 그러나 항해 도중에 일기가 불순하여 완도, 백도(보길도), 소안도 등의 여러 섬에서 각각 수일간 썩을 候風한 관계로 12월 27일 밤중에야 비로소 별도포에 도착하였다.

그의 적사는 대정현 북문 밖의 金氏의 집이었다. 그런데 조관빈은 다음 해인 영조 8년 2월 21일부로 출륙의 혜택을 받아 동년 6월 9일 방면되었다.

따라서 그가 제주에서 謫居 체류한 것은 5,6개월 밖에 안되나 역대 제주유배자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시가와 문장으로써 제주를 표현했다.

金正喜는 憲宗 6년(1840)에 尹尙度の 獄死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純祖 30년(1830) 代理聽政하던 王世了가 22세로 서거한 후 동년 8월 전 臺官이었던 兪상도가 그 아들 尹翰模와 연서로 상소하여 “戶曹判書 朴宗薰과 전 留守 申緯, 御營大將 柳相亮 등이 行大護軍 金鏞에게 아부하여 國用物을 자의로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을 학대하였고 심지어는 돌아간 왕세자까지 멸시하는 내용의 凶訴를 사간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은 兪상도의 말이 신하된 자의 본분을 어긴 것이라 하여 동월 28일 兪상도 부자를 추자도에 定配하였고, 동 29일에는 행태호군 김로를 남해현에 안치하였다. 그 후 동왕 34년에 순조가 돌아가고 현종이 즉위하였는데 동왕 6년 8월에 이르러 대사헌 金弘根이 10년만에 다시 兪상도의 誦소 사건에 대하여 재심하여 논죄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 결과 凶疏 사건이 다시 제기되어 兪상도 부자는 즉시 추자도의 적소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대역무도죄로 국문, 논죄하여 처형되고, 그 때의 연좌죄인들도 장형 혹은 각지에 유배되는 등의 대옥사(경자옥)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국문할 때 兪상도와 연좌죄인들이 김정희를 끌어들었으므로 김정희에게도 연좌의 죄가 미치게 되었다.

즉 兪상도는 전 府使 許晟을 끌어들었고, 許晟은 다시 전 參判 金陽淳과 병조참판 김정희를 끌어들었다. 그러면서도 허성과 김양순은 자기들은 관련된 바 없다고 부인하므로 그 근원을 밝힐 수가 없었으며, 더구나 김양순은 누차의 고문으로 옥사하였다. 그러나 鞫聽에서는 “김양순의 供述에서 김정희가 誦소를 기안하여 李華免을 시켜 南履翼에게 전송하였고, 그는 다시 그것을 허성에게 준것이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정희는 “그것은 전혀 김양순의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이에 승복치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이 때는 이미 김양순의 이화면, 남이익 등의 연좌죄인들

이 죽었으므로 밝혀낼 도리도 없었다. 결국 김정희는 이 옥사에 연좌되어 제주 대정현에 위리안치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현종 6년 9월 4일의 일이다. 이리하여 김정희는 동년 9월 27일 남해에서 乘船하여 金吾郎과 같이 제주도로 향하였다. 아침 풍세가 순풍이었으므로 정오 경에는 배가 大海의 반 이상을 건넜다. 그런데 오후부터는 갑자기 풍세가 맹렬하여지고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배멀미를 하였으나, 저녁에는 무사히 禾北嶺에 도착하였다. 아침에 출발한 배가 저녁 때에 도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김정희의 나이는 55세 때였다.

김정희는 제주에 도착한 그날 밤을 화북진의 한 민가에서 유숙한 후 다음날 아침 제주성에 들어가 배에서 친해진 전 吏房 高漢益의 집에 머물렀다가 10월 1일 금오랑과 같이 대정현으로 출발했는데 이날 일행 중 鄭某가 먼저 도착하여 校吏 宋啓純의 집을 얻어 놓았다. 적소의 규정대로 집 형태에 따라 가시울 타리를 둘러서 위리안치한 후 금오랑은 귀경하였다. 후일 姜氏宅으로 적거를 옮겼다. 이리하여 김정희는 현종 14년까지 9년간을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보냈다.

2. 禾北의 敎學文化

-유배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梁 鎮 健

(1)

본고는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유배인들과 관련한 교학적 영향력의 전파 맥락에 대한 검토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화북지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유배인으로는 金淨, 李承文, 金正禧, 崔益鉉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화북지역의 문풍진작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이밖에 申命圭, 宋時烈, 任徵夏, 趙觀彬 등도 거론될 수 있는데 이들은 내도때나 출륙시에만 화북포구를 이용했던 탓으로 화북지역과의 인연은 간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들 유배인들의 대부분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었기에 그들의 직·간접의 영향 그 자체가 강도 높은 교학적 자극이었으며 특히 화북지역은 조선조

제주의 관문이었기에 그러한 자극이 제주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빈번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화북지역은 나름의 독특한 교학문화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간접의 영향이란 전통적인 교육의 형식으로서 師生 혹은 師門하여 배움을 청하는 형식은 물론이거니와 다만 서한으로 問目을 하거나 혹은 書贊을 올려서 師生관계를 맺는 등의 여러 방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특히 故人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속으로 그 덕을 사모하고 직접 가르침이 없어도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하여 자기 학문을 닦는 소위 私淑弟子의 관계는 직·간접적인 정신적 영향력의 주요 맥락이다.

(3)

화북지역의 독특한 교학문화권의 예는 화북의 거로마을이 오랫동안 “선비 마을”로 통하였다는 데서 우선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4·3사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瓦葺家廟가 두 군데나 있어서 사대부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던 예도 그렇다.

화북의 거로마을이 선비마을로 불리게 된 것은 순조14년 거로출신 나주김씨의 金英集, 金英業, 金英樂 3형제의 문과 동방급제¹⁾가 그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인데 <國朝榜目>에 의거 과거 합격자를 조사해보면 특히 單寒한 시골선비의 합격자는 거로출신 3형제의 예에서 보듯 父子兄弟叔姪 등에서 많이 나왔다. 과거준비방법, 작문연습, 출제경향, 답안작성요령 등은 바로 오랜 家學的 경험을 가진 자가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한 가문에 있어서의 학문전수도 결국 동일한 이치라 하겠다. 어쨌든 김씨 3형제의 동방급제는 제주도에서는 주목거리가 될 만큼 희귀한 경우였던 것은 분명하다.

1) <조선왕조실록> 권 17. 14년 4월 경진조
 <중보탐라지> 문학조 382면 참조

이러한 김씨 3형제의 家學的 배경 마련의 단서는 유배인 김정과 인연이 깊다. 김씨 3형제의 가학적 배경은 그들의 선대로서 을묘제주왜변 때 공이 컸던 金成祖와 관련이 되는데 김성조는 유배인 김정의 제주 初傳(제1대제자)이었던 金良弼의 사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과 김씨 3형제의 교학적 영향력의 상호관련성이 높다. 가학과 인척관계에서 학문적인 授受 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은 조선조의 상례였던 것이다.

김씨 3형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주김씨의 가학적 전통은 후대에 들어 구체적으로 金履中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유배인 최익현의 교학적 영향력에 힘입어 집의제의 결성에 동참, 척사위정의 사상을 전개한다.

그러한 교학적 영향력의 상호관련에는 梁有成이나 高處亮 등의 거로출신 科宦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濟州四絶”의 한사람으로 일컬어지던 양유성과 화북포구 수축에 공헌이 컸던 金政목사와 함께 화북에 三泉書堂을 설립하는 데 진력을 한 고쳐량은 화북지역의 문풍진작에 일익을 담당한다. 특히 고쳐량은 진해현감을 끝으로 낙향을 하여 줄곧 화북에서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몸소 실천하면서 지방 자제 교육에 전념을 하였다. 길재가 낙향을 하여 지방자제를 교육시켰던 것을 계기로 하여 영남학파가 발단이 되었듯이 고쳐량의 이러한 작업은 참으로 주목되는 바가 큰 일이다.

이밖에도 화북지역의 독특한 교학문화권의 예는 거로마을의 옛이름이 “늪은이터”였다는 데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장수한 늪은이가 살았던 집터라는 뜻에서 “늪은이터”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백수를 누린 노인이란 교육철학적 위상에서는 다름아닌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충고나 설교 혹은 호소의 교육철학적 전제로서 “늪은이”는 그 자체가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면모이기에 거로마을의 옛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교학문화권의 또다른 예증인 것이다.

(4)

유배인 중에 화북의 교학문화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는 또 최익현을 들 수 있다. 최익현은 제주유배시 많은 제주문사들과 사우관계를 맺는데 척사위정의 논조에 입각한 최익현의 교학적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李膺鏞를 중심으로 결성됐던 12지사의 “집의계”이다. 이응호는 최익현의 제주초전인 이기온의 아들로서, 거유 盧沙 奇正鏞의 제주초전인 고성겸의 제자인데 조선말기 제주의 사상적 구심점이었다.

집의계를 결성했던 12지사²⁾ 가운데 한사람으로 화북의 거로출신 문사 金履中은 비밀결사의 맹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최익현이나 기정진 혹은 기우만 등으로부터 승계된 기호학파류의 사상적 활력성을 드러냈다.

김이중 외에도 화암 신흥석 같은 거로출신 문사도 이응호와 중유를 하였는데 신흥석의 문집에 이응호가 발문을 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최익현이나 기정진으로부터 승계된 척사위정의 논조는 이응호를 통해 당시의 제주유림에 넓게 공유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이중이나 신흥석 그리고 허갑 등의 화북출신의 문사들이 이응호와 관련하여 그러한 당시 척사위정의 사상적 분위기에 깊게 동참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하는 일이다.

許鏞은 화북지역의 문사로서 성리학적 소양이 깊었는데 특히 이응호와 교학관계가 돈독했었다. 이응호와의 중유를 통해 허갑은 자연스레 이응호의 가학적 배경인 최익현의 교학적 영향력과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은데 그가 쓴 최익현에 대한 비문이 현재 가시리 지방에 남아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그 예를 반증한다. 또한 허갑은 고성겸으로부터 이응호로 승계된 기정진의 학풍도 또한 공유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기정진의 학풍을 승계한 화북의 문사로는 玄商希가 주목된다. 그는 기정진의 제주초전인 안달삼의 아들 안병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안병택은 광주를 근거지로 하여 여러 제주문사들에게 기정진으로부터 승계된 가학적 전통을 가르치는 데 진력하였다.

2) 12지사는 김좌경, 김병로, 서병수, 고서구, 김석익, 김순호, 김이중, 강철호, 강석중, 임성숙, 김기수 등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선말기의 3대학파로 통칭되는 華西학과, 盧沙학과, 長齋학과의 교학적 영향력이 화북지역에서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서학과 최익현의 영향력을 승계하고 있는 김이중, 신흥석, 허갑, 노사학과와 현상희 등의 위상이 그것을 반영한다.

화북의 포구적 위치와 앞서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화북지역은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나름의 교학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교학적 기반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나름의 교학문화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데 화북의 포구적 위치로 인한 타문화의 왕성한 수용성 여부는 특히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일제의 세력확장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해볼 때 육지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 제주유림들에게는 분노의 표적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이중이나 신흥석, 허갑, 그리고 현상희의 처사위정적 위상은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같은 교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명망을 얻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金光秋이다. 그는 일찌기 허갑의 문하에서 천자문을 외웠고 이어 한학을 익혔는데 우리는 그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유배인 김정희가 펼친 교학적 영향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물론 김광추가 스스로 김정희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거나 그에게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노라는 얘기를 해본 적은 결코 없었다 하더라도 김광추의 여러 면모에 대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김정희가 제주 유배시에 펼쳐놓은 여러 영향력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직접 及門하여 배움을 청하지 아니 하였지만 死後의 영향력에 대한 인격적 교섭만으로도 교학적 수수관계의 제 모양과 뉘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은 전통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희의 영향에 대한 김광추 나름의 천착에 대해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겠다.

조심스런 추측이지만 그러한 정황으로 우선 김광추는, 일찌기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주도 대정현까지 찾아와서 그림과 글을 배워 이른바 남도문

인화의 시조가 되었던 小癡 許維의 손자인 南農 許鍵과 절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김광추는 허건과의 종유를 통해, 적어도 유배인 김정희와 허유의 진솔한 만남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며, 척박한 제주에서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한 유배인 김정희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어쩌면 서도의 길을 가고자 했던 제주의 화북사람 김광추로서는 김정희에 대한 경도가 그만큼 당연했을 것이다.

김정희의 유배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제주 篆刻은 우선 김정희의 제주 초견인 蘇齋 金九五가 승당하였는데 그의 아들 愚齋가 정통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研山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으며 연산을 研農 洪鍾時가 이었고 그 뒤를 朴判事(성명미상)가 전승했으나 이러한 맥은 일제 해방과 동시에 완전히 끊기다가 김광추의 장려로 다시 맥이 부활되었던 점 또한 김정희의 교학적 영향력과 김광추와의 관계맺음의 한 증거이다.

그 밖에 김광추가 목포, 광주 등지를 자주 다니면서 무등산 춘설차를 가져다 마셨다는 점 등도 김정희의 교학적 영향력의 정황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다. 김정희는 전남 대흥사의 草衣 선사와 각별한 관계였는데 김정희나 초의는 당대 절정의 茶人들로서 특히 김정희는 초의로부터 목포, 광주지역에서 재배된 차 얻기를 즐겨했는데 아마 김광추는 어떤 계기로든 김정희의 면모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접하였었고, 그것에 나름대로 천착했던 것 같다.

그러나 화북지역에 대한 김정희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거로출신 문사 甯齋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오점은 송설체가 뛰어나 제주필원의 한 사람으로 꼽혔는데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되어 왔을 때 명필 오점을 만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정희는 오점의 필법이 東國의 명필이라 극찬하며 서로 사귀기를 서슴치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희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오점에게 승계되어 화북지역의 문풍진작에 큰 몫을 하였음을 알게된다. 오점은 부친점을 스승으로 하여 왕명에 따라 奎章全韻을 집필하기도 하였는데 벼슬을 마다하고 지방자제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제주향교에 配享되었다.

김광추나 오점의 예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유배인 이승문의 예는 좀더 집단

적이다. 즉 이승문은 중종 14년(1519)에 기묘사화를 계기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 그는 유배지인 화북에서 그의 종족을 퍼뜨려 전주이씨의 가문을 형성케 함으로써 화북지역의 씨족계보를 다채롭게 만들고 교학적 분위기를 풍성케 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문과 화북지역과의 관계는 집단적이다.

(5)

화북지역의 교학적 활성력의 단적인 예는 화북학교의 개설과정을 통해 볼 수 있다. 화북의 주민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지식을 교육할 필요를 알게 되자 유지들은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간씩의 성금을 모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터를 닦고 출역을 하여 교사를 지었으며 마을 몇 안되는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 교사가 되어 마침내 주민들의 힘으로 화북학교를 훌륭히 설립하였던 것이다.

화북의 주민들은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고 성인들은 화북학교 안에 다시 야학을 개설, 공부를 하였는데 이 화북학교를 일제당국이 무상으로 접수한 것이 오늘의 화북국민학교인 것이다.

화북학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력을 모아 세운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학교의 설립보다 그 의의가 크다.

화북주민들이 학교개설을 위해 중력을 모을 수 있는 저력은 당시 화북지역에는 화북보통학교 외에도 화북 영신학교, 혹은 개량서당으로 화북사숙 등이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우연한 것은 아니며 튼튼한 교학적 기반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튼튼한 교학적 기반을 이루는 데는 앞서 논의했던 여러 정황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같은 정황들 가운데 여러 유배인들의 교학적 자극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한 몫임은 분명하다.

(6)

화북지역은 제주의 관문이었던 화북포구 때문에 비교적 제주의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적 자극이 빈번할 수 있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유배인의 내왕이다. 유배인들의 내왕을 그 자체가 강도 높은 교학적 자극이었으며 논어나 맹자, 통감이 고작인 변방의 지식 수준에 대한 일대 경종의 의미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김정, 김정희, 최익현 등의 유배인들 중심으로 화북지역과의 관계 맺음을 검토해 보았다.

IV. 史的 考察 및 地表調査

1. 禾北洞 遺跡의 史的 考察

高昌錫·姜彰彦

(1) 禾北鎮城 (圖板 1, 2, 3. 寫眞 4, 8)

禾北鎮城은 朝鮮朝 肅宗 4년(1678)에 牧使 崔寬이 설치하였다.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는

「在州東十里 肅廟戊午牧使崔寬創設 城周三百三步高十尺 東西兩門 城內有 客舍 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防軍九十二名 伺候船一隻 喚風亭即客舍 肅廟乙卯 牧使南至薰建 望洋亭在北城上」

이라 하여, 築城 당시에는 城의 둘레가 303 步, 높이가 10 尺이었으며, 城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門이 있었다. 城內에는 客舍와 軍器庫가 있었고, 助防將 1인 雉摠 2인 防軍 92명, 伺候船 1척이 있었다. 客舍는 喚風亭이라고도 하는데 숙종 25년(1699) 목사 南至薰에 의해 세워졌으며, 北城 위에는 望洋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이루어진 正祖年間의 《濟州邑誌》에는, 鎮將 1인, 雉摠

2인, 書記 12명, 元防軍 49명, 添防軍 50명, 放砲手 11명, 弓人 8명, 矢人 9명, 城丁軍 156명이 있었다고 하여, 防禦軍의 종류나 수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숙종 28년(1702)에 목사 李衡祥에 의해 이루어진 《耽羅巡歷圖》 '禾北城操'에는, 城이 위치하고 있는 嶺의 자세한 해안 지형과 성의 위치, 그리고 民家의 위치도 하나하나 자세히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軍船의 모양 隻數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하였고 城內의 건물 배치, 城丁軍의 배치, 烟臺의 위치 등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禾北城操'의 城操는 城에서 시행하는 丁軍의 操鍊을 뜻한다.

그리고 《耽羅巡歷圖》 末尾의 '浩然琴書'에는 바다에서 본 禾北浦口의 全景이 잘 나타나 있다. 즉 '浩然琴書'는 전라남도 甫吉島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浩然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는 뜻의 그림이다.

(2) 環海長城 (寫眞 10, 11)

제주도에서의 환해장성에 대한 기록은 高麗 시대로까지 소급된다. 즉 고려 元宗 11년(1270) 당시 三別抄의 入島를 막기 위하여 靈岩副使 金須와 將軍 高汝霖을 시켜 해안선 3백여 리에 걸쳐 성을 쌓았다는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古蹟'에,

「古長城 <註>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
高汝霖(霖)等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因築長城」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朝鮮朝 憲宗 11년(1845)에도 異樣船의 출몰에 대비하여 환해장성을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耽羅紀年》

따라서 禾北嶺城의 동북 해안에 현재 그 일부가 남아 있는 환해장성도 위의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가 있는데, 本 調査 때에 發見하여 本章

에서 처음 發表되는 것임을 밝혀 둔다. 이 밖에 涯月·北村·溫坪 등지의 해안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고 전한다.

禾北洞 해안의 환해장성은 禾北鎭城의 동북쪽 해안에 위치하며, 外壁으로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밀물 때면 바닷물이 닿고 썰물 때면 城郭의 基壇石이 드러난다. 內壁은 경작지 경계선으로 되어 있고 基壇石은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곽의 축성 방법은 挾築이며, 雜石 채움을 하고 있고, 형식은 弓形이다. 城石이나 面石은 제주산 바닷가 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잔존 높이가 3.8미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인 높이는 대략 2.5미터 정도이다. 너비는 1.2미터에서 무려 4미터가 되는 곳도 있다.

(3) 三射石 (寫眞 14, 15)

三射石은 현재 제주시 화북동 138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耽羅의 開闢 후 高良夫 3 神人이 碧浪國의 세 공주를 맞아 배필로 정하고 定都하기 위해 활을 쏘은 바, 그 화살이 꽂혔던 돌맹이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耽羅志》에 의하면, '삼사석은 州의 동쪽 11 里에 있는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三姓人이 卜地를 할 때 활을 쏘은 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다.'(三射石 在州東十一里 諺傳 三姓卜地時所射 至今射痕猶在)고 하였고, 현존하는 三射石碑 前面左石에 '毛興穴古 矢射石留 神人異蹟 交映千秋'라 한 것은 《耽羅紀年》에는 金政의 銘文으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金政이 세웠던 碑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었으나 確實하게 알 수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本 調査 때에 처음 세웠던 碑의 破片이 發見되었다. 현재 묻혀 있는데 表面에는 "射石, 穴古"라는 글씨가 陰刻되어 있다.

그리고 三射石 石室 前面에는 '三神遺蹟 歲久殘缺 今焉補葺 加以石室 嘉慶 癸酉春 石室'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嘉慶(淸 仁宗의 연호) 癸酉年(純祖 13, 1813) 봄에, '3신의 유적이 세월이 오래에 따라 남아 있는 것을 거두어서, 이

제 이를 補葺하고 石室을 마련해서 보관한다'는 뜻으로 이는 濟州人 梁宗昌이 石室을 마련해서 화살맞은 돌을 보관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碑後面에 '庚午三月七日 改堅'라 한 것은 그 후 石室이 허물어지자 1930년(庚午) 3월 7일에 高漢龍·高大吉·高永恩 등이 다시 증진한 것을 말한다.

현재 三射石碑는 높이 113센치미터, 너비는 상단이 43센치미터, 하단이 38센치미터, 폭 18센치미터이며, 石室은 높이가 149센치미터, 앞너비 101센치미터, 옆너비 67센치미터 정도이다.

(4) 東濟院 (寫眞 20)

東濟院은 高麗 元宗 11년(1270) 11월 靈岩副使 金須와 將軍 高汝霖이 거느린 官軍과 三別抄의 李文京이 거느린 군사가 接戰을 할 때 李文京이 陳을 쳤었다는 곳이다.

(5) 海神祠 (寫眞 16, 17, 18, 19)

海神祠는 純祖 20년(1820) 목사 韓象默이 해상 교통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禾北浦口에 祠堂을 짓고 매년 정월 보름에 海神祭를 지내도록 한 곳이다. (海神祠在禾北鎮 純廟庚辰 牧使韓象默 創建 <耽羅誌草本>)

그 후 憲宗 7년(1841) 防禦使 李源祚가 海神祠 建물을 重修하여 揭額하였고 (當宇辛丑重修揭額) 尙王 15년에는 방어사 張寅植이 海神之位라는 石位를 刻하여 보존토록 하였다.

그런데 해신사는 원래의 장소에서 禾北城 서북쪽인 현재의 해신사 서북쪽 10미터 정도의 방파제 옆 공터로 옮겨졌고, 1975년에는 이를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현재의 해신사는 화북포구 앞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데

전면 1칸, 처마까지의 높이는 2.35미터이다. 건물 양식은 5량 집이며, 8角 지붕에 연등천정으로 되어있다. 정사각형 기둥에 창방과 평방을 놓아서 씨가래를 바치고 있다.

건물 면적은 가로 3.54, 세로 2.67미터이며, 건물 안에는 祭壇(가로 97센치미터, 세로 61센치미터, 높이 16센치미터)이 있고, 碑閣은 갓돌 위에 안치되어 있다. 해신사라는 현판은 건물 안의 창방과 평방에 걸려져 있다.

(6) 禾北浦口 (寫眞 12, 13)

濟州城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화북포구는 고려 원종 11년(1270) 高汝霖 장군이 入島할 때 선박 70여 척을 정박할 수 있었던 浦口였다고 전하나, 水深이 얇고 물이 넘쳐 선박 왕래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英祖 11년(1735) 목사 金倣이 몸소 돌을 운반하며 浦口에 방파제를 축성하여 그 기능이 활성화된 포구이다. ((耽羅誌草本) 舊時 浦港淺溢難於藏船 金倣莅州時 親董築堰 長二百十尺廣二十一尺高十三尺 往來者今賴之 作迎送亭於其上 以爲公私船點檢之所 今廢 海神祠在城西)

당시 방파제의 규모는 길이가 210척 너비가 21 척, 높이가 13 척이었으며, 방파제 위에 迎送亭을 지어서 公私船의 點檢所로 삼았었다.

조선조 약 5백년을 통하여 많은 流配人과 3邑 守令이 왕래했던 곳이기도 하며 특히 牧使 李衡祥이 부임할 때는 '浩然琴書'라 하여 浩然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官員과 州民들이 영접하는 가운데 목사 李衡祥이 詩를 읊으며 入港했다는 얘기가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金倣 목사가 화북포구 공사 때에 썼던 告由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禾北浦始役時告由文

濟州牧使 金倣

天以覆物 地以載物 海以濟物 大舜之機
神禹之斧 軒后之舟 財以成之 輔以相之

以左右之 風以颺之 險以阻之 波以盪之
 氣之使也 理之然也 勢之圖也 苟能侯之
 苟能弟之 苟能慎之 處色而安 當險而易
 遇邊而平 奧昔毛羅 始航耽津 政毛耽羅
 自是厥後 國除爲州 于有餘祀 冠蓋來往
 貢獻絡繹 有無貿遷 王靈之暢 溟渤之德
 乘木之功 顯茲禾浦 島之咽喉 舟之要津
 浦石錯舉 巨浪舂撞 長風衝激 昔築石堡
 頽地無餘 動遭顛覆 不牧人爲 猶憾於天
 咸怨于海 思復舊障 召集工匠 伐石運石
 敬修牲醴 瀝血爲辭 先事告由 風日和暖
 巨靈助順 湖頭少定 一日二日 層累而成
 可支百世 舟可以藏 舟可以放 舟可以入
 罔非天成 罔非陰相 罔非神助

(7) 禾北비석거리 (寫眞 22, 23)

화북의 비석들은 善政을 베푼 守令들이 갈려간 뒤에 고을 주민들이 그들을
 생각하여 여기저기에 세웠던 것들인데, 화북의 비석거리는 오늘날 그 비석들
 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이다. 현재 13墓의 비석이 있다.

① 牧使沈相演清德碑 (寫眞 24)

건립연대 미상. 재임기간, 仁祖 15년(1637년) 6월~동왕 17년 9월.

② 牧使尹公久東清德善政碑 (寫眞 25)

純祖 18년(1818년) 2월에 건립. 在任기간 純祖 15년(1815년) 5월~同王 17
 년 10월.

③ 牧使李公遠達恤民善政碑 (寫眞 26)

憲宗 6년(1804년) 5월 건립. 재임기간, 憲宗 3년(1837년) 11월~동왕 5년
 3월.

④ 牧使具公載龍去思碑 (寫眞 27)

哲宗 8년(1857년) 12월 건립. 재임기간, 헌종 5년(1839년) 3월~동왕 6년 3월.

⑤ 牧使張公寅植恤民善政碑 (寫眞 28)

건립연대 미상. 재임기간, 헌종 14년(1848년) 3월~철종 1년(1850년) 6월.

⑥ 牧使李公玄功恤民善政碑 (寫眞 29)

건립연대 미상. 재임기간, 철종 1년 6월~동왕 2년 7월.

⑦ 牧使白公希洙恤民善政碑 (寫眞 30)

甲寅年(철종 5년, 1854년) 5월 건립. 재임기간, 철종 2년 7월~동왕 4년 12월.

⑧ 牧使任公憲大去思碑 (寫眞 31)

건립연대 미상. 재임기간, 철종 13년(1862년) 2월~동왕 14년 정월.

⑨ 牧使洪公圭去思碑 (寫眞 32)

연대 미상. 4월 건립. 재임기간, 고종 21년(1884년) 12월~동왕 23년 5월

⑩ 察理李相公奎遠清德碑 (寫眞 33)

건립연대 미상. 재임기간, 고종 28년(1891년) 9월~동왕 31년 9월

⑪ 判官高公景峻去思碑 (寫眞 34)

건립연대 미상. 재임기간, 고종 20년(1883년) 8월~동왕 22년 4월.

⑫ 助防將洪公在昱去思碑 (寫眞 35)

건립연대·재임기간 미상.

13……………思碑 (寫眞 36)

未詳

이 밖에 禾北城 北쪽 5m 쯤에는 牧使 金公(政奉 “㉔”?) 碑가 石室 內에 놓여져 있으며, 그 옆에는 金(政) 牧使의 銅碑를 받쳤던 것으로 推定되는 龜趺가 있는데 龜趺의 上面에는 폭 2.5cm, 길이 20.5cm의 홈이 나 있는데 銅碑를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8) 息波庫

화북진 포구에 있었던 軍器庫로써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耽羅志》에 의하면, 화북포구에 있는 息波庫에는 交子弓 45張, 張箭 45部, 片箭 75部, 環刀 9柄, 地字銃 3門, 玄字銃 6門, 宙字銃 10門, 勝字銃 8門, 화약 75근, 水鐵丸 90개, 鐵甲 3部, 鐵冑 3部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9) 煙 臺 (寫眞 21)

화북성 동북 쪽의 속칭 “연대동산”이라 불리우는 높은 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기단부만 희미하게 남아 있다.

(10) 迎送亭

英祖 11년(1735) 목사 金(政)이 화북 포구의 방파제를 축성한 후 그 위에 영송정을 지어 公私 선박을 점검하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

2. 禾北城址 地表調査報告

李清圭·姜彰彥

濟州島에는 木城, 土城, 石城 等이 文獻을 通하여 알려지고 있는데 確認된 것은 土城과 石城들 뿐이다. 木城에 대해서는 文獻上으로만 남아 전하여 지고 있으며, 土城인 涯月邑 缸坡城은 復元되어 있고, 石城에 대하여서도 州城 旌義縣城, 大靜縣城 部分的으로 復元되고 있다. 이 밖에도 多數의 石城이 存在하고 있으며, 高麗朝의 濟州島 3百里에 걸쳐 쌓았다고 하는 環海長城은 아직도 바닷가의 곳곳에 남아 있다.

土城인 缸坡城이나 石城인 旌義縣城 州城 等은 一部 保存되어 있으며 大靜縣城에 대해서도 保存된다는 얘기가 있는 가운데 朝鮮朝의 조그만 城郭들은 무관심 속에 하나 둘 없어져 버린 것이 事實이었다. 이러한 時點에서 濟州禾北城址의 地表調査는 濟州道에서의 城으로서의 처음 實施되는 學術調査라는 點에서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現況을 濟州市에서는 잘 파악하여 本 遺跡에 대한 地表調査를 實施하고 復元을 해 보고자 함은 後代에 길이 남을 일이라 하겠다.

本 報告書는 1단계 작업으로 地表調査를 整理하여 내 놓은 것이다.

1988年 5월 13日 濟州市와의 學術用役契約 과 同時에 調査를 착수하여 1988年 11月 15日까지 하였다.

이 調査를 擔當한 調査員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調 査 員： 濟州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李清圭

調 査 補 助 員： 濟州大學校 博物館 姜彰彦

學 生： 濟州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金明徹(4年), 玄萬浩(3年), 방문배(1年), 김경주(1年)

(1) 位置와 現況(圖板 4~6, 寫眞 1)

禾北城址는 行政區域上 濟州市 禾北洞에 있다. 마을의 東쪽은 三陽洞, 西쪽은 健入洞, 南쪽은 영평동, 北쪽은 바다와 연결하고 있다. 交通便으로는 濟州市廳에서 東回線 一周道路를 따라 약 5km 정도를 가면 禾北洞의 進入路가 나오는 데 거기서 다시 北쪽으로 약 300m 정도를 가면 禾北城址와 禾北浦口가 나온다. 位置上으로는 東經 136도33分, 北緯32도31分이 된다.

禾北城址는 大략 2분의 1정도가 原形 그대로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現 道路 밑에 基石이 있다고 전한다. 禾北城址의 西北쪽에는 金倣 牧使가 防波堤를 쌓았다는 禾北浦口와 金倣 牧使碑가 있으며, 防波堤와 連接한 空地에는 바다에서의 安全을 祈願하는 海神祠가 있다. 또한, 西쪽 200m 地點에는 牧使들의 碑 13基가 있는 禾北碑石거리가 있다. 西南쪽으로는 高麗 元宗 11年(1270年)에 高汝霖 將軍이 陳을 쳤던 것으로 전하여지는 東濟院址가 있고, 南쪽 方向으로 하여 小林寺址, 東南쪽에는 三射石, 東北쪽 海邊으로는 環海長城 및 煙臺가 있다.

한편, 西쪽으로 海拔 134m의 別刀峰이 있고, 그 밑으로 하여 別刀川이 形成되어 있는데 乾川이어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맑은 날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河川이어서 地形上으로는 生活用水가 귀한데, 禾北浦口와 連接한 海岸에는 湧泉水가 發達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湧泉水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現在 禾北城址의 區域 內에는 禾北城 建物の 柱礎石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10점 가량이 發見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後代에 埋立된 기와무지와 建物の 基壇石으로 추정되는 石物 등이 계속 發見되고 있다.

(2) 調査 節次

우선 禾北城址의 地理的 入地條件을 알아 보고자 周邊의 地形에 대한 平板 및 等高線 測量을 實施하였다. 그런 다음 地表上의 調査 및 遺物表土採集을 實施하였고, 周邊의 遺跡址들도 再確認하는 한편 精密調査를 實施하였다.

禾北城址의 內에는 test trench나 test pit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926년에 國民학교 建物を 짓기 위해 完全히 埋立된 狀態였고 당시 國民學校 建물이 現在는 감굴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實行할 수 없었다. 그러나 北쪽의 城壁 쪽으로 하여 많은 瓦片이 埋立되어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禾北城址에 대해서는 精密實測을 하였고 發見된 礎石 10基와 推定基壇石에 대하여서도 實測과 寫眞 촬영을 하였다. 發見 收集한 瓦片은 搨本을 通하여 文樣 分析을 하였고 그외의 周邊의 史跡과 遺物에 대해서는 寫眞촬영을 하고 記錄 整理하였다.

(3) 調査遺構(圖板 9, 寫眞 2~9)

朝鮮朝 肅宗 4年(1678年) 겨울에 牧使 崔寬에 의하여 築城된 禾北城址는 築城당시 높이 11尺, 周圍가 303步였다고 전하고 있다.

禾北城址는 海拔 1~4m의 완만한 傾斜面에 있는데 東西 120m 南北 75m가 되고 있으며 全體의인 地形은 南高北底가 되고 있다. 築城 당시의 石築이 現

存하고 있는데 길이는 187m이며, 높이는 최고 3.8m, 최저 1.5m 정도이다. 城上 쪽은 0.7에서 1.2m 정도로서 이는 1926년에 禾北國民學校 開設 당시 築城된 城石을 울타리로 이용하기 위해 다시 쌓아 놓은 것이라 思料되는 바, 部分的으로는 築城 당시의 原形이 잘 남아 있다.

城의 狀態를 보면, 濟州産 玄武岩을 거친다듬하여 쌓은 石築으로 弓形의 形式을 하고 있다. 북쪽의 外城壁은 바다와 폭 5m의 길이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길은 바다를 埋立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築城당시에는 바다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內城壁은 國民學校 開設 때부터 現在까지 높이 1m이상 埋立되어 確認할 수 없다. 基壇石은 自然的인 岩盤 위에 놓여져서 그 狀態가 良好하다. 築城方法은 挾築이며 猨石채움을 하고 있다. 城石이나 面石은 玄武岩으로 自然石을 거친다듬 후 쌓았는데, 크기는 90×60×40, 70×50×30, 50×40×30cm 정도가 되고 있는데, 크기의 차는 심한 편이다.

북쪽편으로 70m 정도의 石築은 基壇石과 面石, 城石의 區分 比率이 正當하고, 全體의인 城石이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 築城方法은 自然石으로 거친다듬을 하여 長을 높이고 短을 세워 쌓아 있는 것으로 보아 築城 당시의 城郭으로 推定된다.

동쪽편으로 하여 50m 정도는 石築이 가정집의 울타리를 겸하고 있어서 높이가 많이 훼손되어 있으나 基壇石은 잘 남아 있다.

서쪽 방향으로 42m 정도는 基壇石, 城石, 面石이 確實히 구분 안된 狀態이고 形式이 바로 쌓아 있는 20° 정도 기울어진 일직선형이어서 後代에 계속적으로 補修하였던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남쪽으로 築城된 것처럼 보이는 石築이 있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도로포장시 城石을 안쪽으로 밀려 쌓은 것으로 築城 당시의 城郭과는 무관한 것이다. 본래의 石築의 基壇石 一部는 現在 마을길로 인하여 埋立되어 있다고 口傳上 傳하고 있다.

朝鮮朝 肅宗 28年(1702年) 牧使 李衡祥이 禾北城을 순례하였을 때 그려졌던 당시의 城의 形態를 보면, 城門은 동쪽과 서쪽으로 두 군데가 있었고, 城內에

는 8채 이상의 建物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建物の 原 位置는 確認할 수가 없으며, 다만 城內에서 建物の 柱礎石 11點이 發見되고 있다. 建物の 瓦片들이 묻혀 있는 곳은 城郭의 內壁 北쪽의 部分으로 現在에도 많은 瓦片이 埋立되어 있다.

建物址인 경우, test trench나 test pit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推定位置에 감골선과장이 들어서 있어 다음 기회로 미루워 두지 않을 수 없었다.

(4) 出土遺物

가. 礎石 (圖版 9-20, 寫眞 38-49)

本 調査시에 發見된 礎石은 모두 11點이다. 주로 城의 西北쪽편 돌무더기와 現 建物の 周圍로 묻혀 있었다. 精密實測 結果 대략 3채의 建物들의 것으로 推定된다. 모두 多孔質玄武岩으로 製作되었다.

禾北城址 礎石 現況表

順番	柱 座 形 態	柱座規格	礎 石 規 格		材 質	出土地	備 考
			높이×가로×세로				
1	圓 形	48.0	34×48×55		多孔質 玄武岩	城 內	圖版 9 寫眞 38
2	"	52.0	30×52×49		"	"	圖版 10 寫眞 39
3	"	50.0	30×50×49		"	"	圖版 11 寫眞 40
4	"	50.0	44×50×53		"	"	圖版 12 寫眞 41
5	方 形	30.0	47×30×30		"	"	圖版 13 寫眞 42
6	圓 形	33.0	44×33×30		"	"	圖版 14 寫眞 43

順番	柱座 形態	柱座規格	礎石規格	材質	出土地	備考
			높이×가로×세로			
7	"	43.0	41×43×47	"	"	圖版 15 寫眞 44
8	"	43.0	34×43×44	"	"	圖版 16 寫眞 45
9	"	51.0	27×52×51	"	"	圖版 17 寫眞 46
10	"	50.0	60×50×51	"	防波堤	圖版 18 寫眞 47
11	"	50.0	65×50×51	"	"	圖版 19 寫眞 48

(단위 : cm)

이 외에 基壇石으로 보이는 石物이 發見되었는데, 多孔質玄武岩으로 製作되었는 바, 그 길이는 80cm, 가로 19cm, 세로 18cm의 정도이다.

나. 瓦片

禾北城址에서 出土된 瓦片들은 城郭의 북쪽 內壁에 埋立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모두 平瓦로서 암막새나 솟막새들은 아직 發見이 안되고 있다. 出土된 瓦片들의 文樣別로는 樹枝文, 長線文, 圓文, 斜線文, 複合文, 無文 등이 있으며, 瓦片類로는 수키와片和 암키와片들이 있다.

① 無文수키와片 (寫眞 50)

연회색의 수키와片으로써 거칠게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補強劑를 混合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表面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으며, 매끈하게 되어 있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희미하게 나 있다. 언강은 경사지게 되어 있고 높이가 0.9cm이며, 미구의 길이는 2.8cm이다. 높이는 8cm이며, 폭은 17.3cm이다. 두께는 3.3cm내외이다.

② 樹枝文수키와片 (圖板 21, 寫眞 51)

연회색의 수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에 세밀한 玄武岩 알갱이를 補強劑로 混合되어 있다. 表面에는 비교적 굵은 3%의 線으로 樹枝文을 기와의 가로方向으로 넣고 있어서 이를 바로 보면 마치 부채무늬를 넣은 듯이 보인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나 있고, 두께는 2.5cm 내외이다.

③ 樹枝文수키와片 (圖板 22, 寫眞 52)

암갈색의 수키와片으로 水飛가 잘 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밀한 모래 補強劑를 混合하고 있다. 表面에는 樹枝文이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 自然的인 빛이 나돌고 있다. 裏面에는 균열이 심하게 나 있으며, 삼베의 흔적은 없다. 다만, 손으로 마무리한 듯한 흔적만 보인다. 두께는 2.5cm 내외이다.

④ 無文수키와片 (寫眞 53)

연회색의 수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玄武岩 알갱이를 補強劑로 混合시키고 있다. 表面에는 樹枝文이 있었던 것 같으나, 아주 희미하여서 알아볼 수 없다. 裏面에는 아무런 文樣을 하고 있지 않으며, 두께는 3.1cm 내외이다.

⑤ 樹枝文수키와片 (圖板 26, 寫眞 55)

암갈색의 수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에 玄武岩 알갱이를 補強劑로 混合하고 있다. 表面에는 아주 희미한 樹枝文이 있는데, 손으로 마무리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나 있고, 두께는 2.5cm 내외이다.

⑥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圖板 23, 寫眞 54)

연회색의 수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에 精選된 모래 補強劑를 混合시키고 있다. 表面에는 樹枝文과 長線文, 複合文이 있는데, 長線文의 길이는 4cm 정도이다. 나머지 部分은 複合文으로 처리하였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나 있으

며 균열이 많다. 높이는 9.2cm이며, 폭은 19.5cm이고, 두께는 2.8cm이다.

⑦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圖板 24, 寫眞 56)

적갈색 수키와 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고, 미세한 玄武岩알갱이를 補強劑로 混合하고 있다. 表面에는 樹枝文을 몇 段 넣었고, 언강의 部分에는 長線文을 넣어 마무리 하였다. 文樣段과의 간격은 6.5cm 정도이다. 높이는 7.8cm, 폭은 15.2cm이며, 두께는 2.3cm 내외인데, 불에 그을려진 기와이다.

⑧ 長橢圓文수키와片 (圖板 27, 寫眞 58)

질은회색의 수키와 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 세밀한 補強劑를 混合시키고 있다. 表面에는 길이 6cm, 가로 4cm의 長橢圓形의 무늬가 있는데 이 橢圓形의 안쪽으로 하여서 계속 작아지는 橢圓形 8개를 넣고 있다. 文樣은 瓦片의 길이로 2段으로 되어 있고, 가로는 7개 정도가 겹치면서 연이어져 있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있으며, 언강은 경사지게 되어 있고 높이는 1.1cm이다. 미구의 길이는 2.8cm이다. 기와의 높이는 9cm이며, 폭은 16.5cm이며, 두께는 2.8cm이다.

⑨ 長線文수키와片 (圖板 29, 寫眞 59)

질은회색의 수키와 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고, 세밀한 모래 알갱이를 補強劑로 混合하고 있다. 3%의 線으로 長線文樣을 이루었고, 구울 때의 自然釉 혹색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裏面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며, 두께는 2.2cm 內外이다.

⑩ 複合文수키와片 (圖板 28, 寫眞 60)

암갈색의 수키와 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다. 表面에는 4%의 線으로 대각선이나, 수직 혹은 가로로 하여 文樣을 이루고 있다. 裏面에는 삼

베자국이 나 있고 두께는 2.3cm 内外인데, 불에 그을려져 있다.

⑪ 無文암키와片 (圖板 30, 寫眞 61)

적갈색을 띤 암키와片으로 거칠게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玄武岩 알갱이를 補強劑로 混合하고 있다. 表面은 無文이며, 裏面에는 손으로 마무리한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삼베 흔적도 보이기는 하나 아주 미세하다. 두께는 3.3cm 内外이다.

⑫ 無文암키와片 (圖板 32, 寫眞 64)

연회색을 하고 있는 암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다. 表面은 기와의 가로 方向으로 하여 밀어 내었던 흔적이 있다. 裏面에는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두께는 3.4cm 内外이다.

⑬ 樹枝圓文암키와片 (圖板 33, 寫眞 63)

회색을 띤 암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다. 특이하게 補強劑를 混合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表面에는 樹枝文과 圓文이 섞여져 있는데, 文樣을 나타내는 線의 폭은 4mm 内外이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나 있다. 두께는 2.5cm 内外인데, 불에 그을려진 기와이다.

⑭ 樹枝長線文암키와片 (圖板 31, 寫眞 62)

적갈색을 하고 있는 암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補強劑의 混合은 거의 없다. 表面에는 樹枝文과 길이 3cm 정도의 長線文이 있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희미하게 나 있으며, 두께는 2.5cm 内外이다. 불에 그을린 기와이다.

⑮ 斜方文암키와片 (圖板 35, 寫眞 65)

적갈색을 띤 암키와片으로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補強劑를 혼합한 흔적은 없다. 表面에는 斜方文이 있는데, 세로 5.5cm, 가로 4.5cm 정도가 되며, 그 안으로 점점 작아지는 斜方文이 있다. 文樣을 이루는 線의 폭은 5% 정도이다. 이 斜方文의 가로로 하여 他 斜方文과 線으로 連이어져 있어 全體 文樣을 이루고 있다. 裏面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으며, 두께는 3.5cm 內外이다. 불에 그을려진 기와이다.

⑯ 斜方文암키와片 (圖板 34, 寫眞 66)

⑮와 똑 같은 樣相을 하고 있는데 裏面의 삼베자국이 나 있음만 틀린 암키와片이다.

⑰ 斜方文암키와片 (圖板 36, 寫眞 67)

적갈색을 띤 암키와片으로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는데, 補強劑의 混入은 거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面에는 斜方文이 있는데, 길이 5.5cm 정도로 하여 마름모 形態를 이루고 있으며 중간에는 3줄 정도 빗금쳐서 마무리 하였다. 文樣을 이루는 線의 폭도 5% 內外이다. 裏面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으며, 두께 3.5cm 內外인데, 불에 그을려진 흔적이 나타나 있다.

⑱ 長橢圓文암키와片 (圖板 41, 寫眞 73)

연회색을 하고 있는 암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다. 表面에는 길이 8.5cm, 폭 3.5cm 정도의 橢圓形 文樣이 있는데, 안쪽 方向으로 계속 작아지는 橢圓形 8개 정도를 두고 있다. 文樣을 이루는 線의 폭은 4% 정도이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나 이고, 두께는 2.4cm 內外이다.

⑲ 銘文암키와片 (圖板 42, 寫眞 74)

적색과 회색을 띤 암키와片으로서 잘 水飛된 흙을 사용하고 있다. 表面에는 4×4cm 정도의 글씨를 넣고 있는데, 破片이고 마모가 심하여 아직 알 수 없다. 文樣을 이루는 線의 폭은 5% 정도가 된다. 裏面에는 아무런 文

樣이 없는데, 손으로 기와의 가로 방향으로 쓸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두께는 2.2cm 内外이며, 불에 그을려진 것 같다.

㉔ 複合文암키와片 (圖板 43, 寫眞 75)

연회색을 하고 있는 암키와片으로 잘 水飛된 흙에 모래 補強劑를 混合하고 있다. 表面에는 빗금線들이 일정한 方向없이 아무렇게 配置되어 있어서 文樣구분을 할 수 없다. 裏面에는 삼베자국이 나 있으며, 두께 3.4cm 内外이다.

다. 磁器片

禾北城址의 周邊에서 收拾된 磁器片들은 靑磁·粉靑沙器·白磁 등이 있는데, 靑磁片에서는 퇴화된 象嵌靑磁片이 있고, 粉靑沙器片에서는 15~16세기의 귀얄文·印花文·덤벙文 粉靑片이 있으며, 白磁片에서는 17~20세기의 純白磁·靑靄白磁片 등이 있다. 器의 種類로는 梅瓶, 沙鉢, 접시, 瓶, 등이 있다.

① 靑磁白象嵌梅瓶片 (寫眞 77)

破片이어서 全體의인 形態는 알 수가 없으나, 梅瓶片이 아닌가 한다. 文樣은 雲文으로 보이며 또 하나의 文樣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内外部로 하여 釉藥이 施釉되어 있고 氷裂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다.

② 靑磁白象嵌片 (寫眞 79)

破片이어서 全體의인 形態는 알 수 없으나, 白象嵌된 文樣이 内部에 있어서 沙鉢片이 아닌가 한다. 釉藥은 内外部 골고루 施釉되어 있으며 세밀한 氷裂이 나타나고 있다.

③ 靑磁白象嵌底部片 (寫眞 80)

破片이지만 白象嵌 雲文이 內部에 있는 점으로 보아 접시류의 그릇으로 보인다. 釉藥은 內外部 골고루 施釉되어 있는데 外部는 퇴색되어 있다. 굽은 얇으며 모래받침을 하고 있다.

④ 靑磁瓶片 (寫眞 81)

작은 破片이어서 全體의인 形態는 알 수가 없는데, 반지름이 3.1cm의 원형인 것으로 보아 瓶片이 아닌가 한다. 釉藥은 瓶片의 內外로 골고루 施釉되어 있는데 세밀한 水裂이 보이고 있다.

⑤ 靑磁片 (寫眞 78)

破片이어서 全體의인 形態는 알 수 없다. 純靑磁이며, 釉藥은 內外로 施釉되어 있고 水裂이 있다.

⑥ 粉靑沙器귀얄文口緣部片 (寫眞 82)

破片이지만 沙鉢이 形態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釉藥은 內外部 골고루 施釉되었으며 잔 水裂이 있다. 그릇의 內部에는 귀얄文이 있다. 두께 0.3cm로 아주 얇다.

⑦ 粉靑沙器귀얄文口緣部片 (寫眞 83)

沙鉢 形態를 하고 있는 破片이지만 釉藥은 內外部 골고루 施釉되어 있으며 잔 水裂이 있다. 귀얄文이 內外部에 文樣되어 있다. 두께는 0.3cm 內外이다.

⑧ 粉靑沙器印花文片 (寫眞 84, 85)

작은 破片 2點으로써 形態는 알 수 없다. 內外部로 印花文과 釉藥이 施釉되어 있다. 두께는 0.7cm 內外이다.

⑨ 粉靑沙器印花文底部片 (寫眞 86)

破片 2點인데 접시 種類로 보인다. 内外部로 釉藥이 施釉되어 있다. 内外에 印花文이 있는 것 1點, 나머지 1點은 귀얄文이 있다.

⑩ 粉靑沙器粉粧底部片 (寫眞 88)

破片으로서 沙鉢의 底部片이다. 内外部로 釉藥이 골고루 施釉되어 있다. 内外에는 粉粧이 되어 있다. 굽의 높이는 0.9cm 정도인데 모래받침 굽을 하였고, 釉藥이 굽까지 施釉되지 않아 胎土가 보인다.

⑪ 朝鮮靑磁底部片 (寫眞 89, 90, 91, 92)

破片 9點으로 沙鉢이나 접시片들이다. 釉藥은 内外부에 施釉되어 있으며, 氷裂은 없다. 모두 모래받침 굽을 하고 있다.

⑫ 白磁底部片 (寫眞 95, 97)

破片이지만 底部分은 完全히 남아 있다. 釉藥은 内外部 골고루 施釉되었는데 두껍고 氷裂이 많다. 굽은 비짐눈굽이며 굽안까지 釉藥이 施釉되어 있다.

⑬ 靑華白磁底部片 (寫眞 93, 96)

破片 2點으로 沙鉢과 접시의 底部片이다. 釉藥은 골고루 施釉되어 있는데, 中央部에 靑華文이 있다. 굽 높이는 1.2cm이다.

⑭ 朝鮮白磁접시 (寫眞 94)

完形으로 純粹白磁 굽높은 접시이다. 釉藥은 内外부에 잘 施釉되어 있고 氷裂은 없다. 굽은 4.3cm로 높고 모래받침 굽을 하고 있다. 윗지름은 15.0cm이다.

(5) 綜合考察

禾北城址는 朝鮮朝 肅宗 4年(1678年)에 牧使 崔寬에 의하여 築城되었고, 肅宗 28年(1699年)는 牧使 南至薰이 城內에 喚風亭을 지었다는 史料의 記錄으로 보아 築城年代는 1678年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당시 城의 높이는 11尺, 周圍는 303步, 城門은 2군데 있었으며 浦口와 連接되어 있었다.

城의 位置나 現況 等으로 보아서 당시의 禾北城은 軍事的·行政的인 城으로 多目的的인 城이었다고 본다.

現在 城郭은 높이 3.8m, 폭 1.2m, 길이 187m가 原形 그대로 남아 있으며 石築의 狀態도 良好하다.

東쪽에서 西南쪽까지 187m는 1678년 築城 당시의 城郭이며, 南西쪽의 30m의 石築은 1975年 道路포장시 城內로 밀려 쌓은 것이다. 南쪽의 70m의 石築은 1987年 現道路開設시 쌓은 것으로 城築과는 무관한 것이다.

V. 맺음말

금번 조사는 학술조사 단계 중 예비적인 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특히 禾北城址 등 조사는 정식 발굴조사가 아닌 지표조사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화북동 일대에 대한 조사는 보다 장기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며, 遺跡 遺物에 대한 충분한 學術資料는 정식발굴조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보다 충분한 文獻 調査와 마을 주민들이 口傳 등의 장기적인 현지조사가 있어야 이 일대의 歷史的 文化遺跡에 대한 이해에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며,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통하여 완전한 復元 計劃을 추진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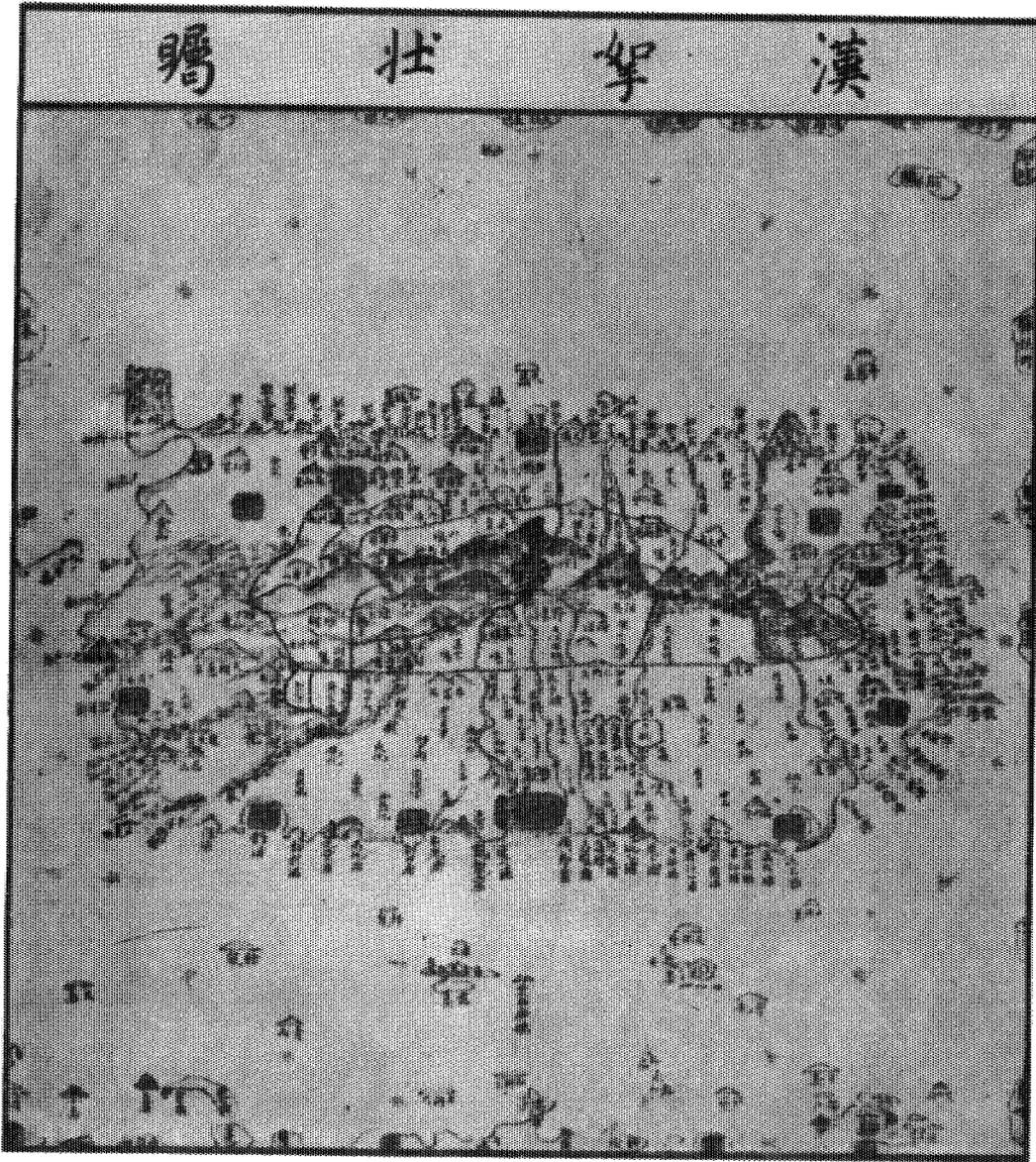
그러나 후자의 경우 城址 내 중심 건물지가 이미 구화북국민학교가 건립되면서 또는 그 이전에 완전 滅失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되고 다만 주춧돌 일부가 유리되어 확인될 뿐이고, 성벽에 있어서도 그 주요부분인 城門址가 완전 멸실됨으로써 그 발굴조사와 그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성곽 복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늦게나마 이러한 실정을 인식, 더 이상 파괴되거나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금번 조사가 실시된 것은 지극히 다행이면서도 보다 충분한 연구조사가 있는 다음 문화재 복원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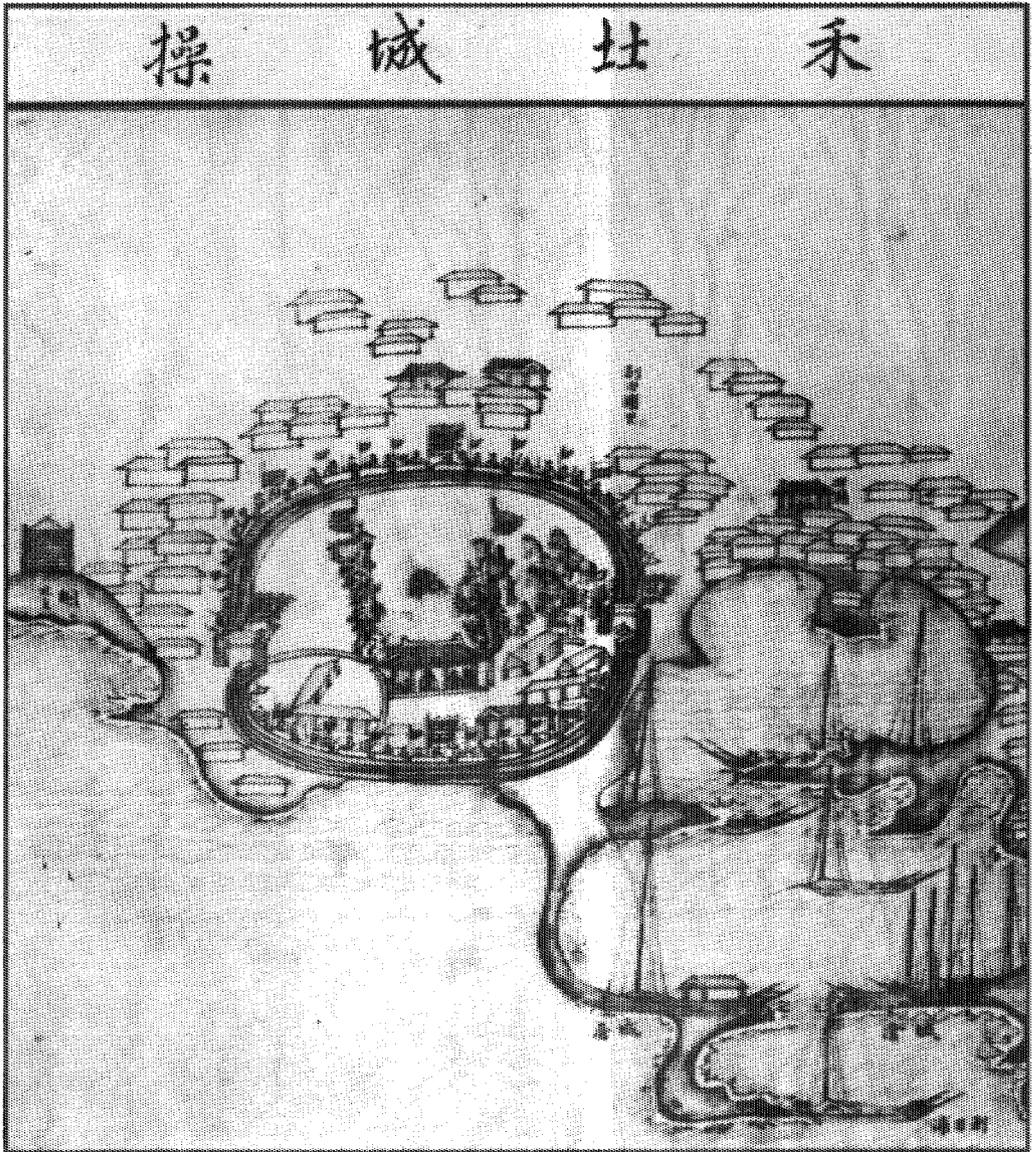
화북진 옛 포구는 근래의 여러 시설물이 신축 등으로 옛 모습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으며, 당장은 어렵지만 현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옛 포구 모습의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첫 단계로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화재 복원은 다행히 일부 옛 모습을 남기고 있는 丕北鎭城의 복원이다. 그러나 그 복원은 예비적 조사 단계인 지표조사를 넘어서 古代 城郭 및 建築에 대한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술조사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화북진성을 중심으로 문화재 복원은 을묘왜변 등의 왜구 침입을 대비하여 축조되고, 옛 관문인 화북포구를 다스린 역사 유적으로서 화북을 대표하는 有形 文化財임을 다시 한번 말해 두고자 한다.



1. 耽羅巡歷圖 中 漢擊壯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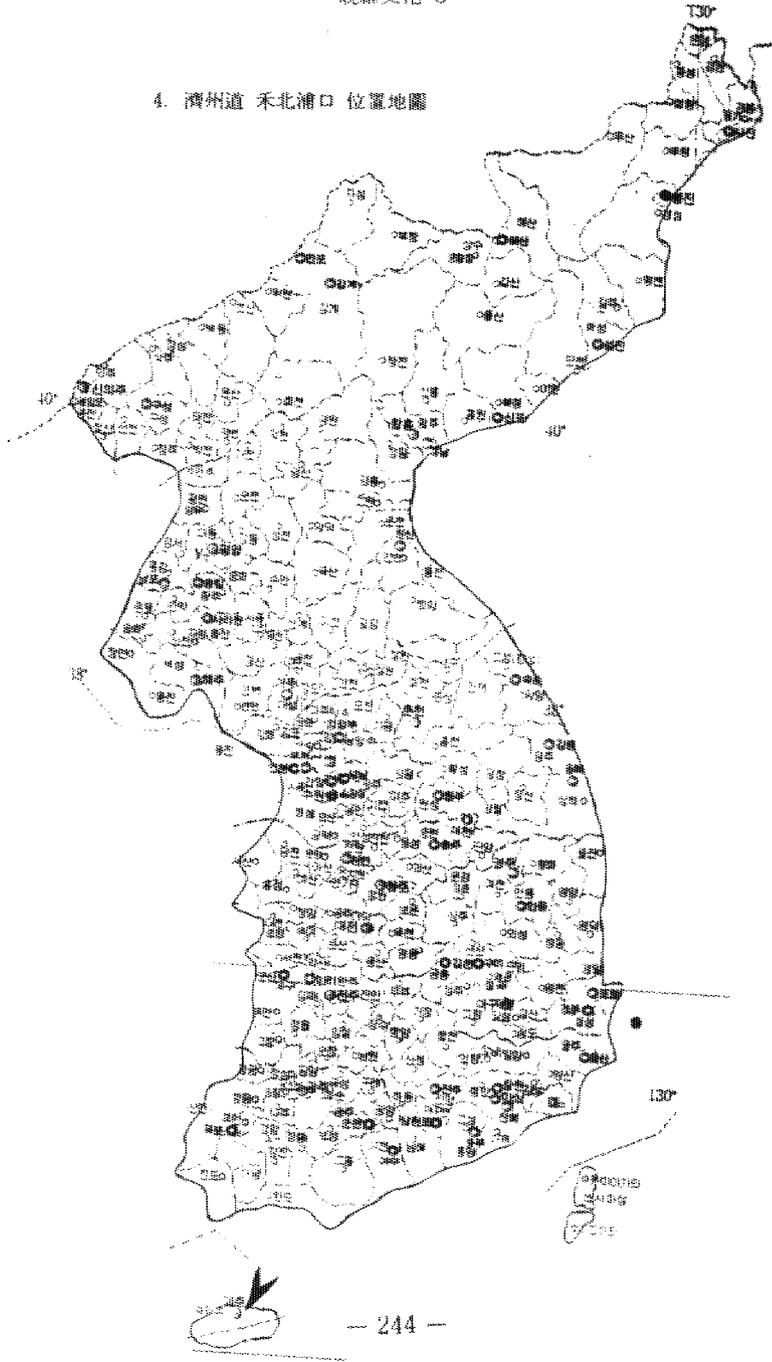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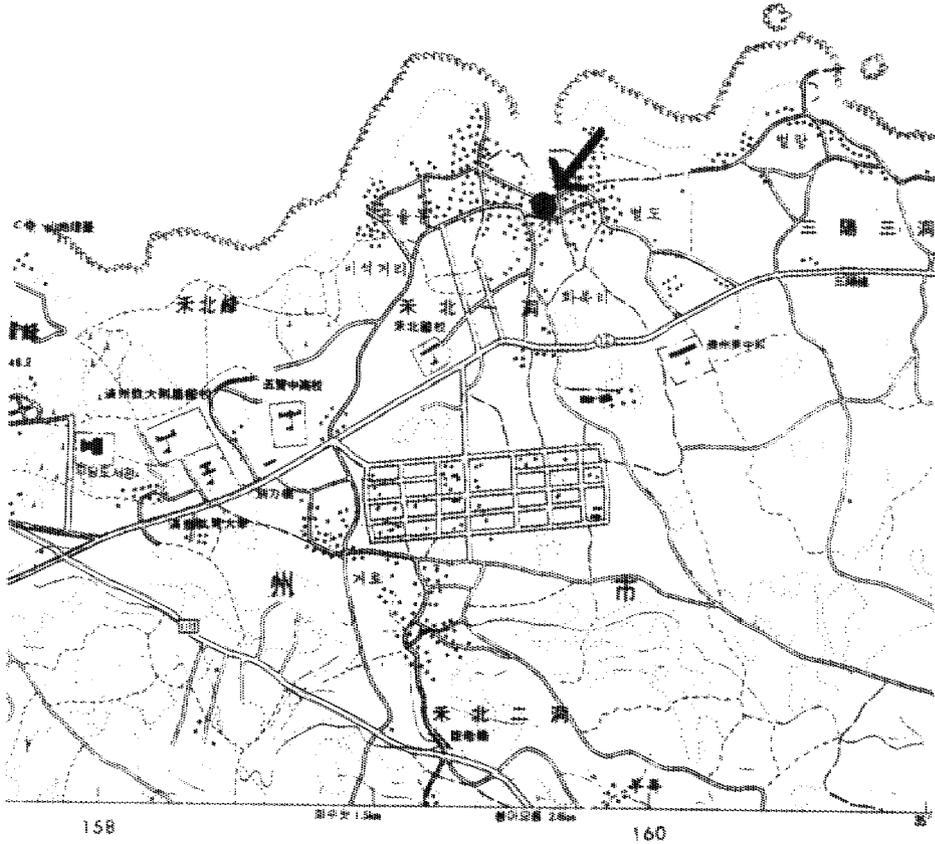
2. 耽羅巡歷圖中禾北城操



3. 耽羅巡歷圖中 浩然琴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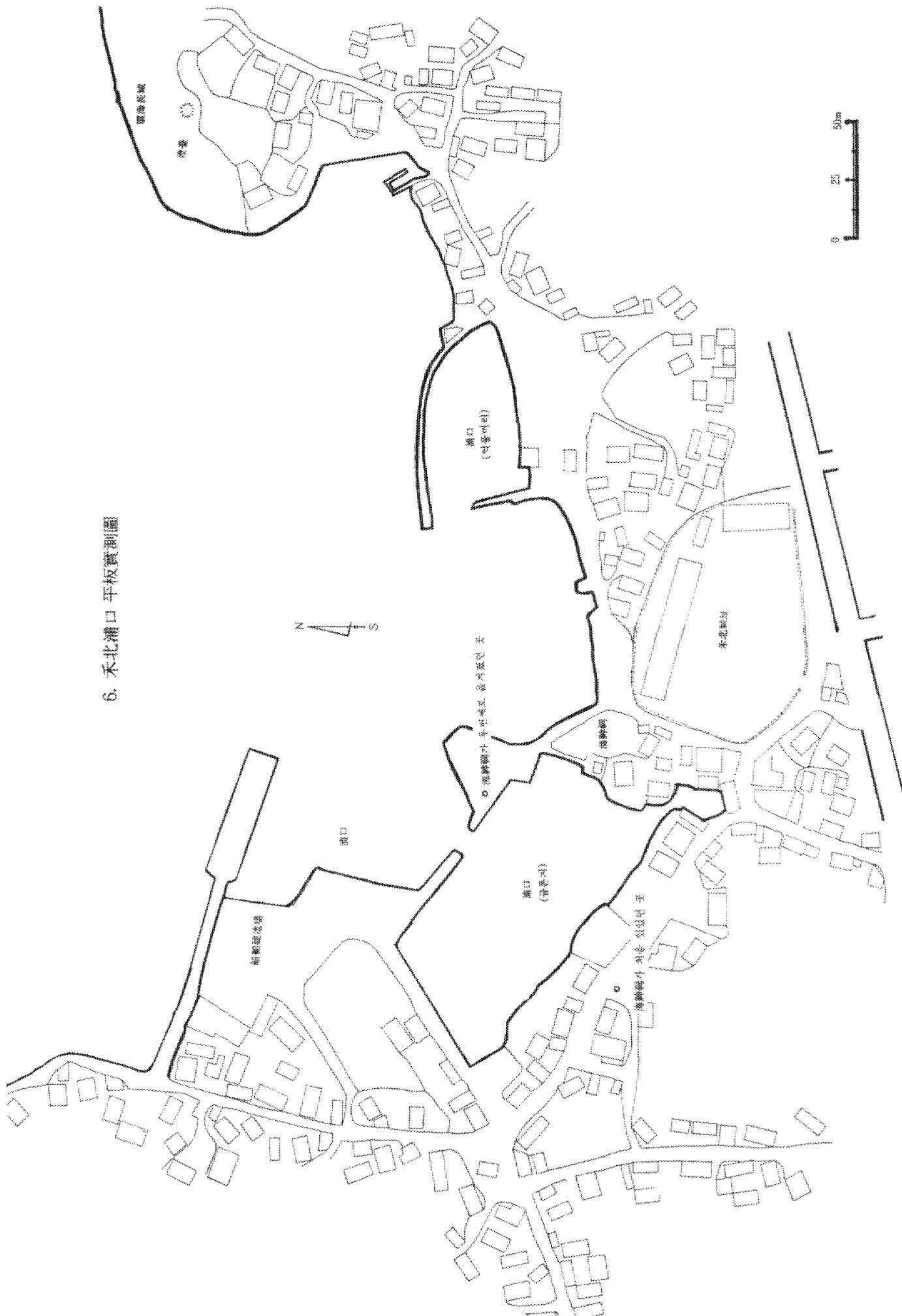
4. 濟州道 禾北浦口 位置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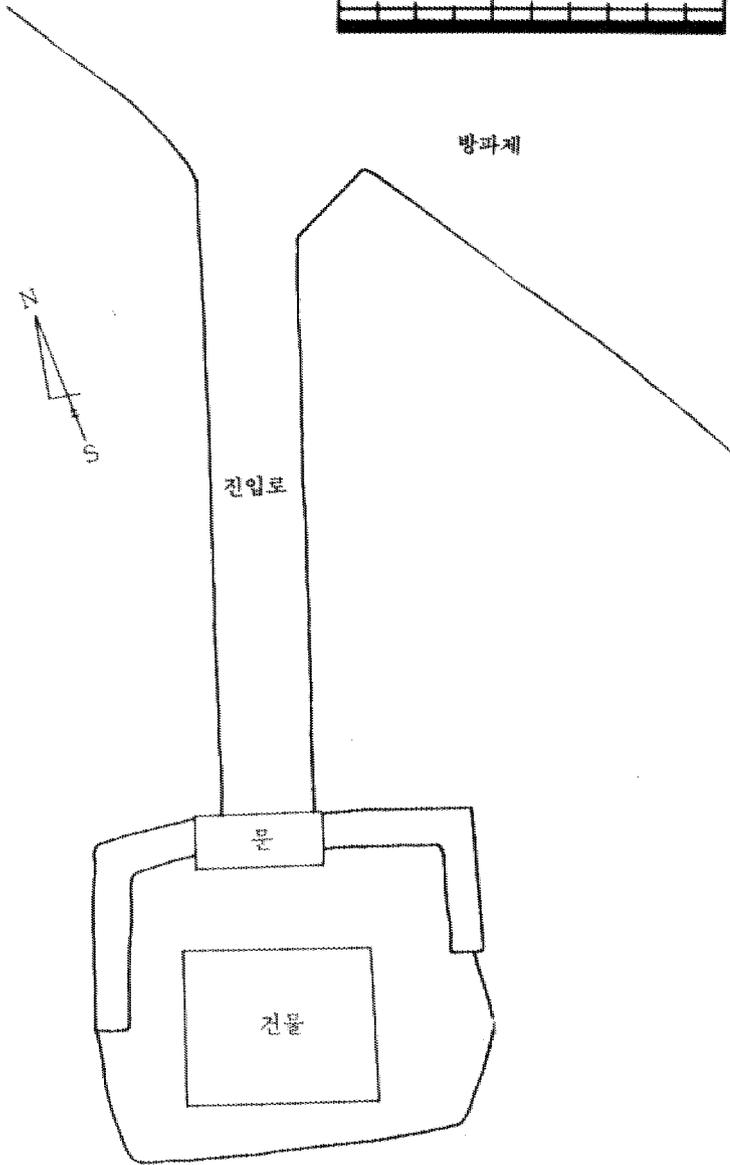


5. 禾北城址 位置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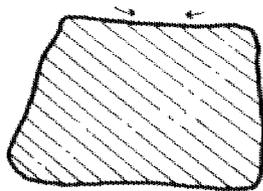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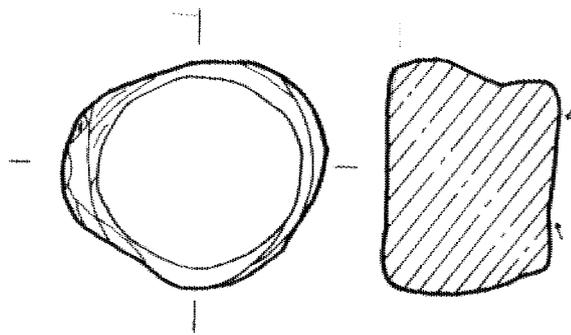
6. 永北浦口 平板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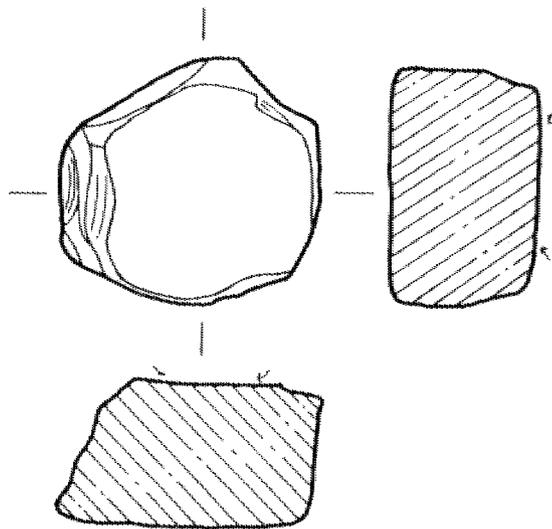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7. 海神祠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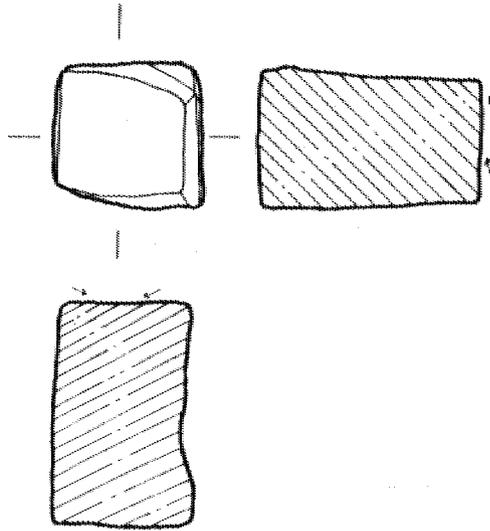


9.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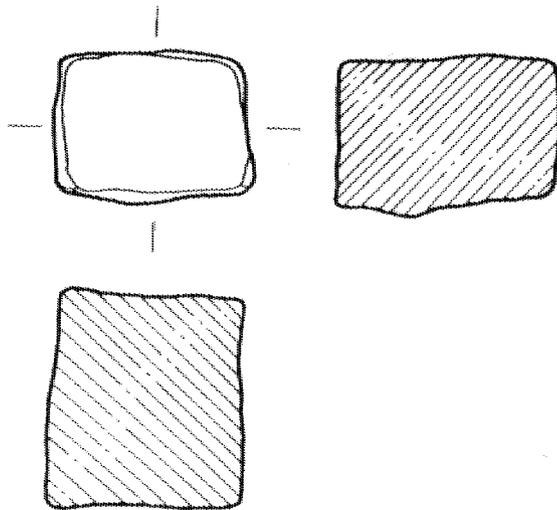


10.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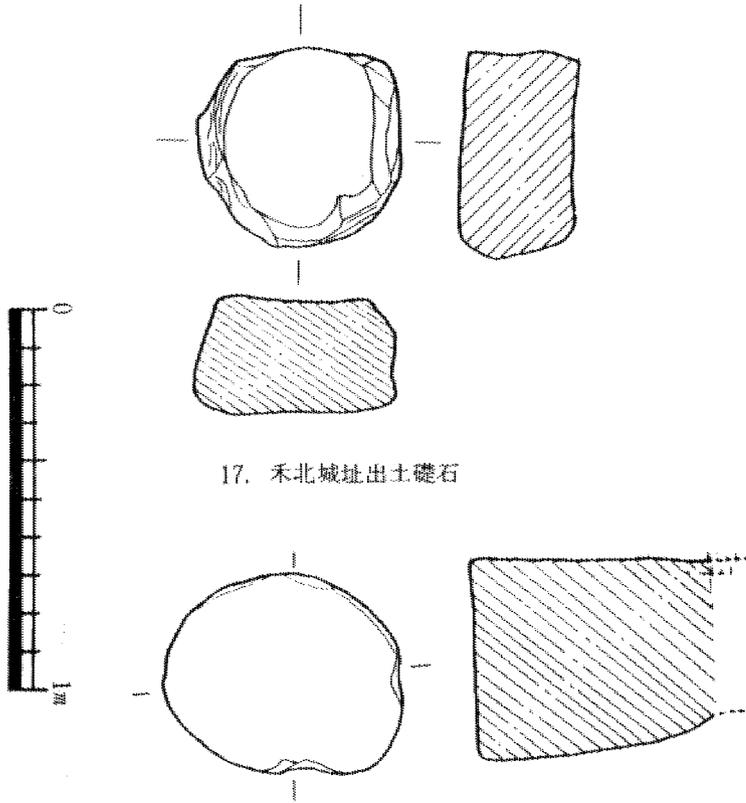




13.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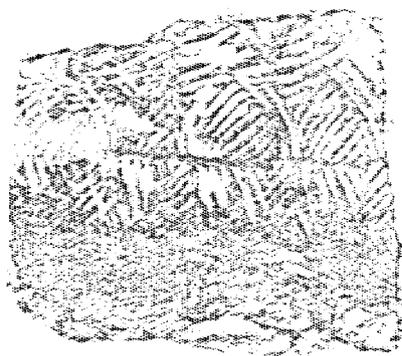


14.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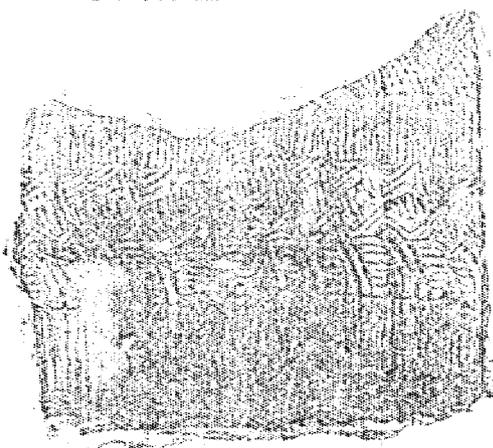


17.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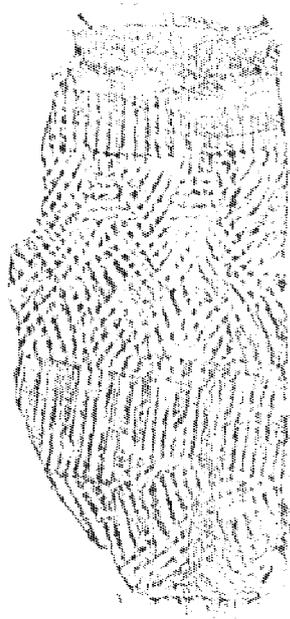
18. 禾北城址出土礎石



21. 樹枝文수키와片



22.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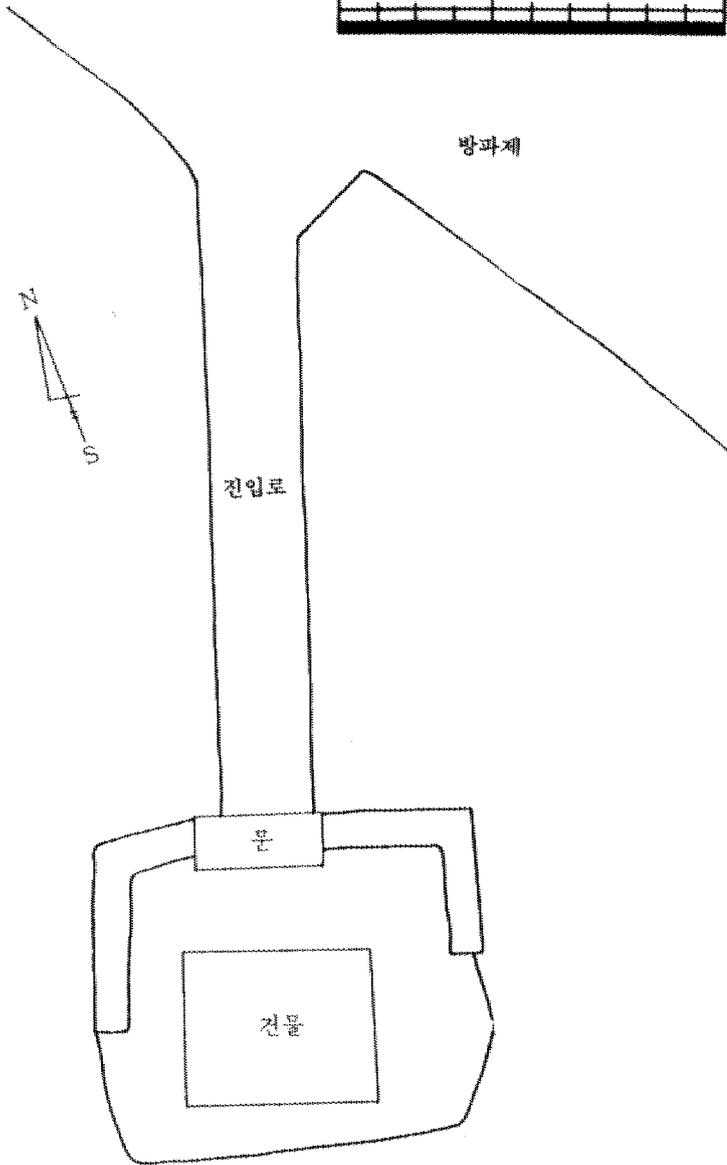


23.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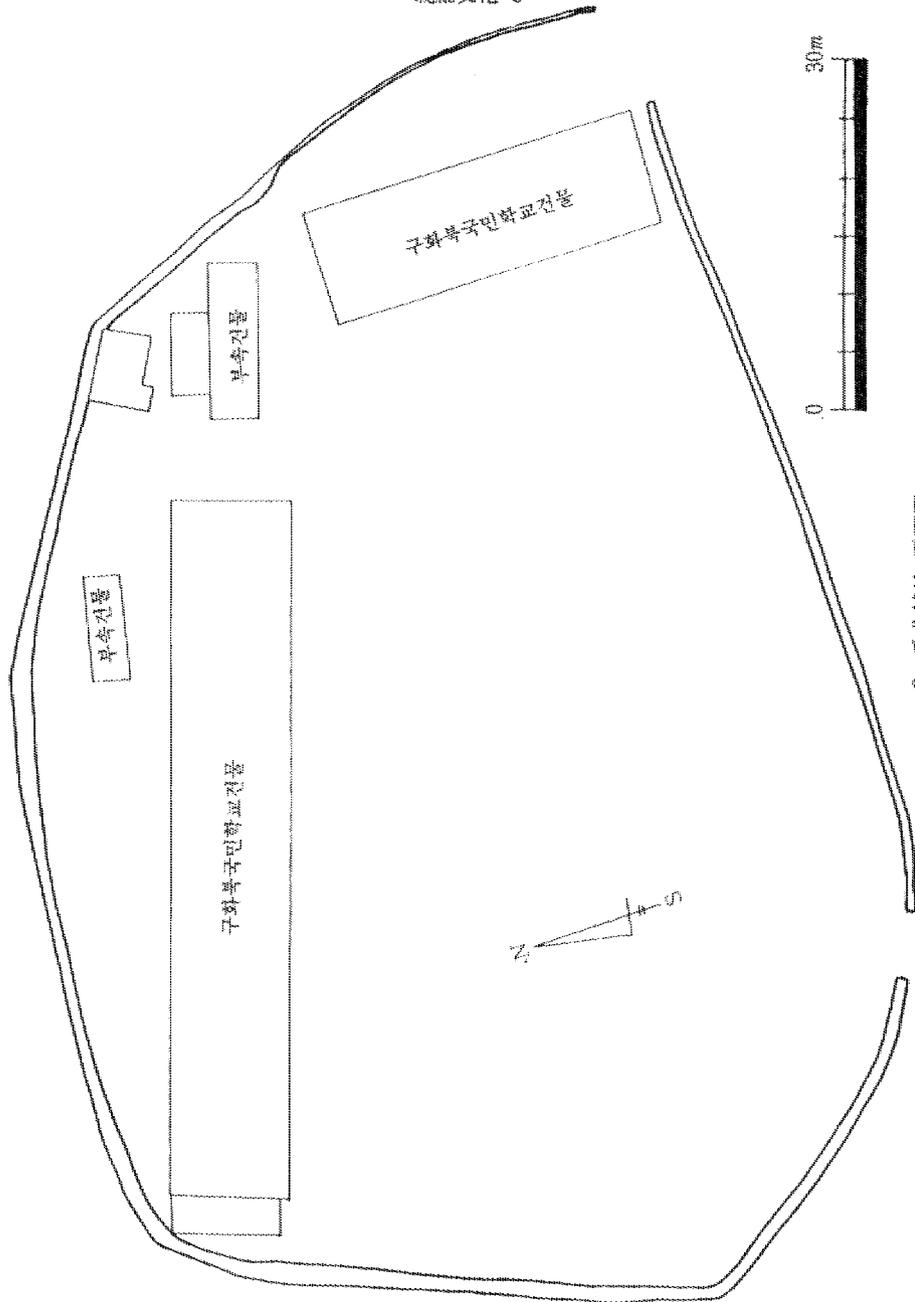


24.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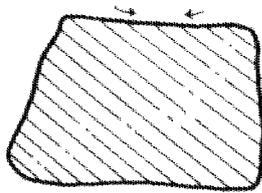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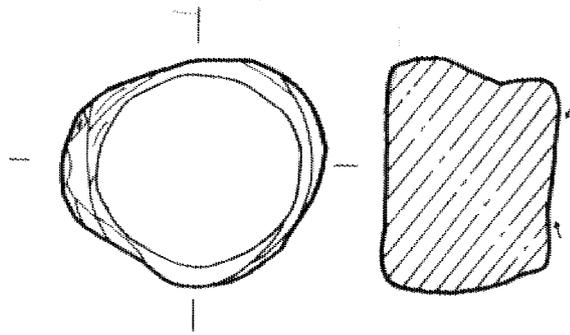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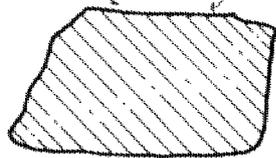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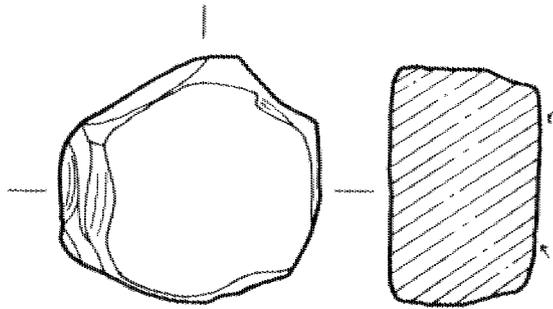
7. 海神祠平面圖



8. 禾北城址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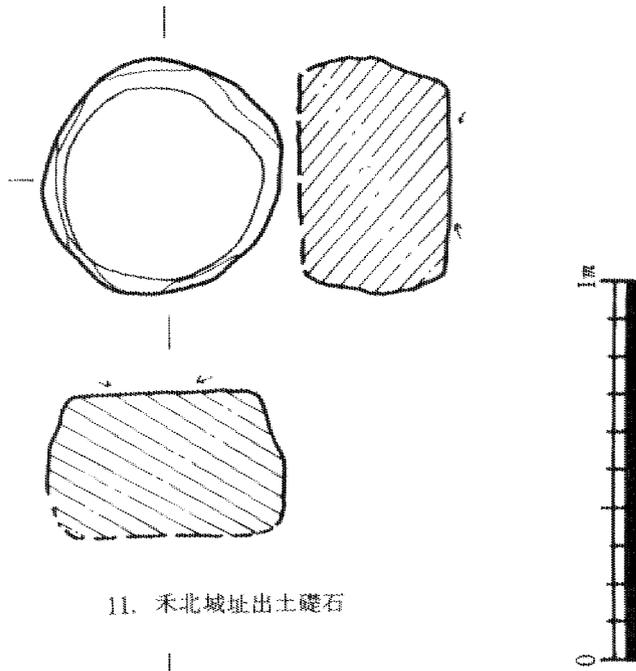


9.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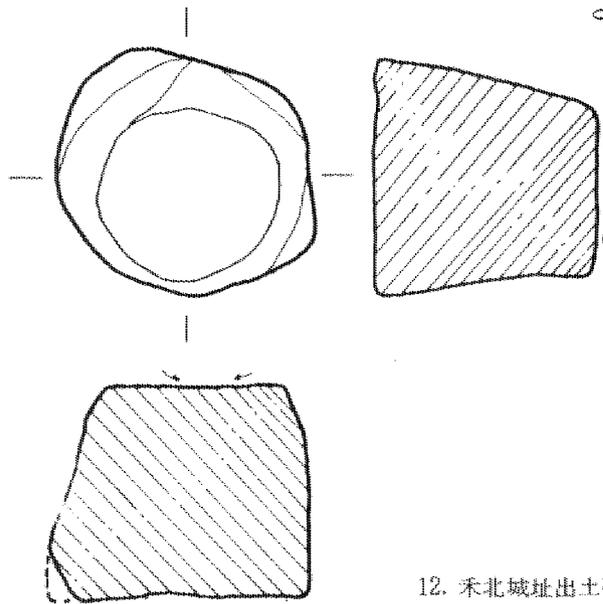


10.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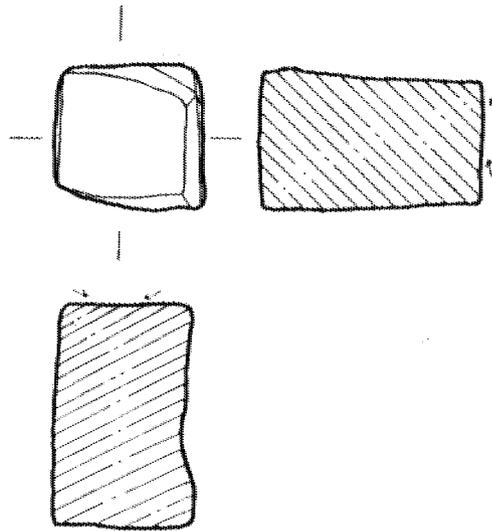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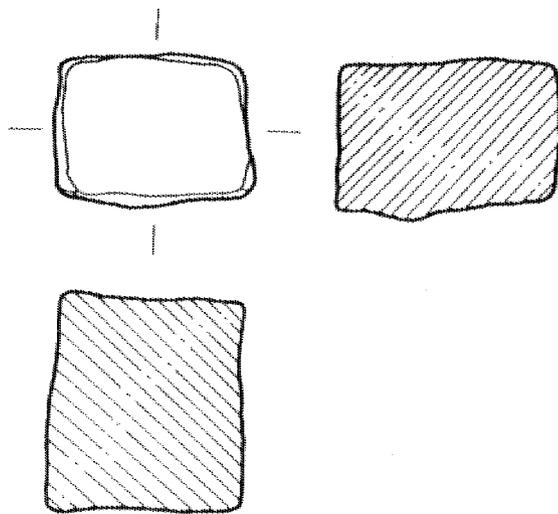
11. 禾北城址出土礎石



12.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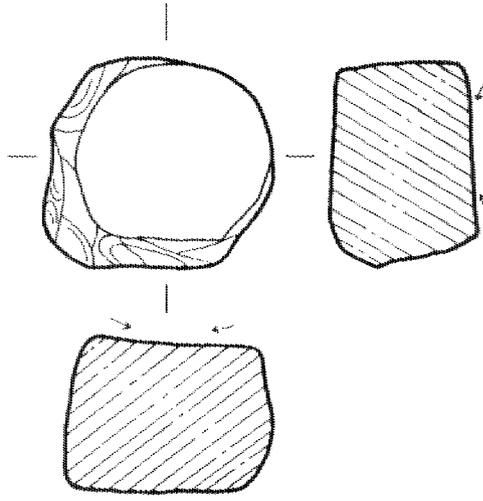


13.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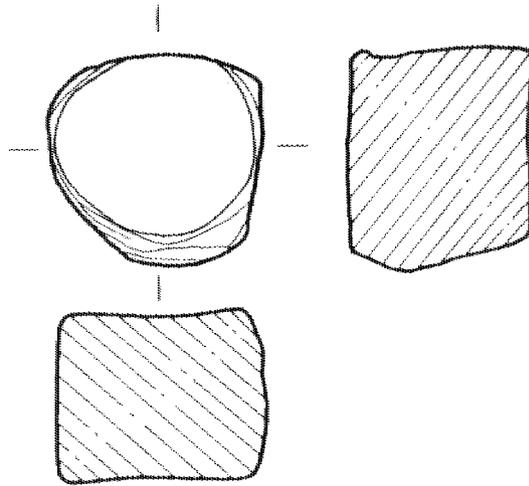


14.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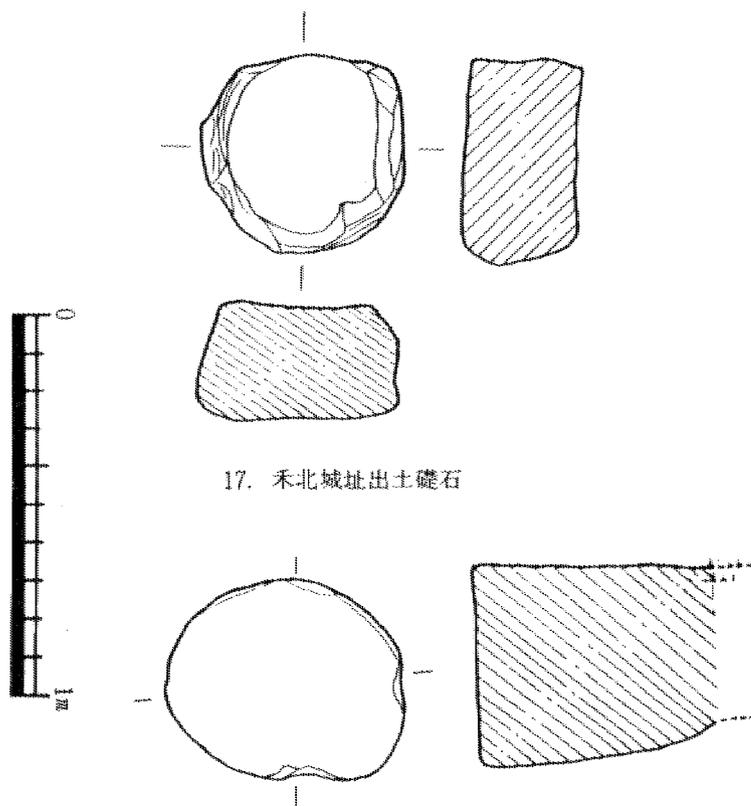


15.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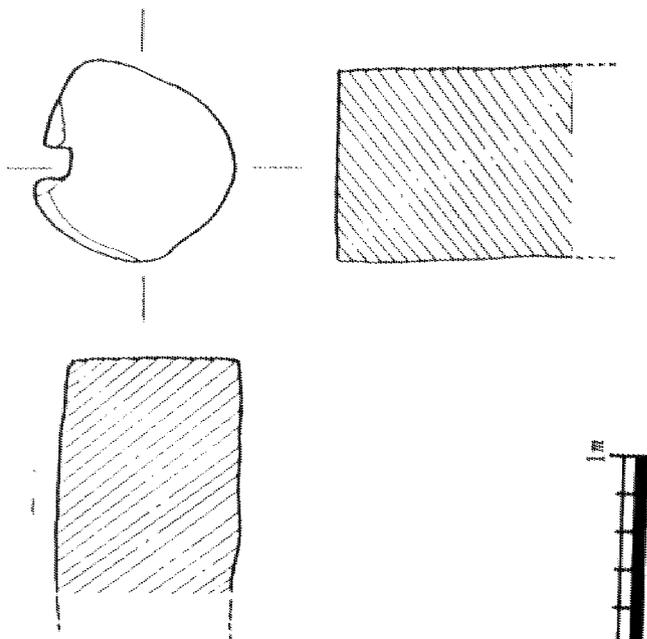
16.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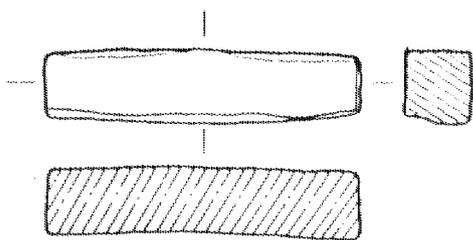


17.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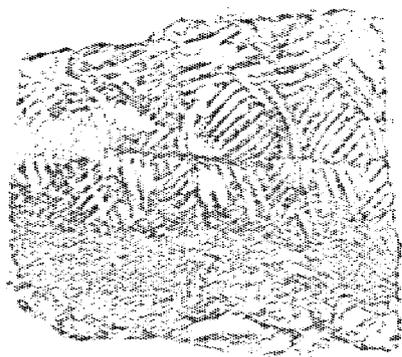
18.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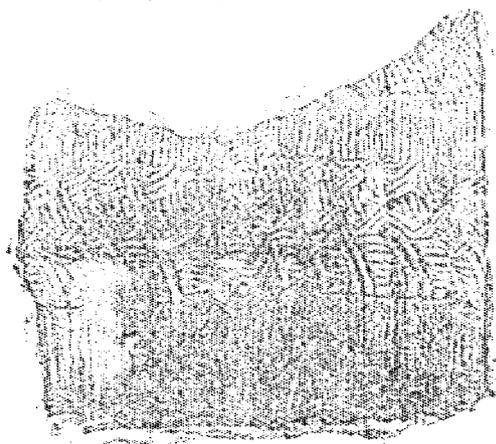
19. 禾北城址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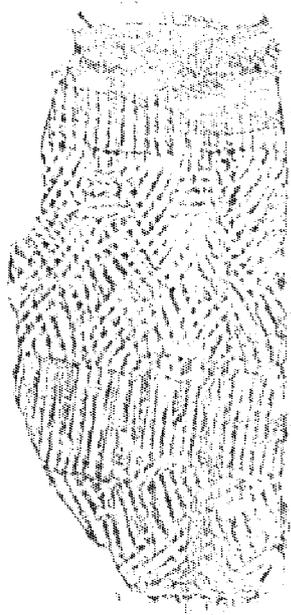
20. 禾北城址出土推定基壇石



21.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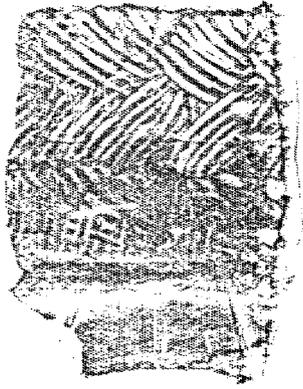
22.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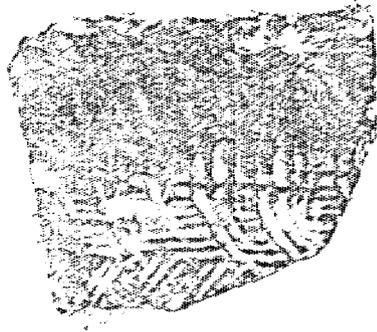
23.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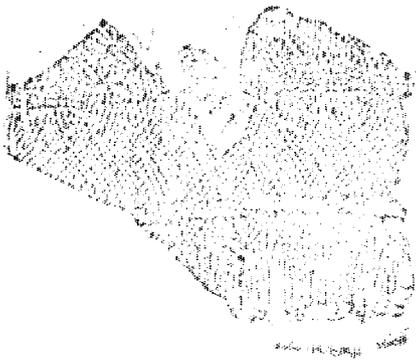
24.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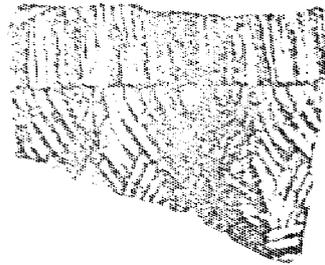
25. 樹枝文수키와片



26. 樹枝文수키와片



27.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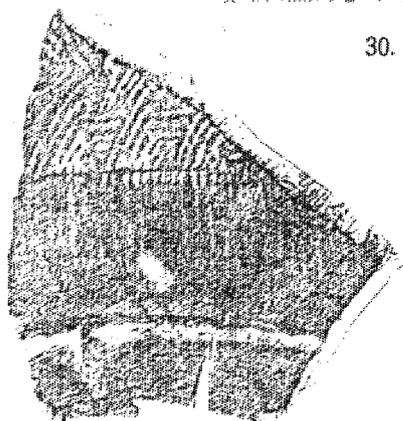


28.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30. 無文암키와片



29. 長線文수키와片



31. 樹枝長線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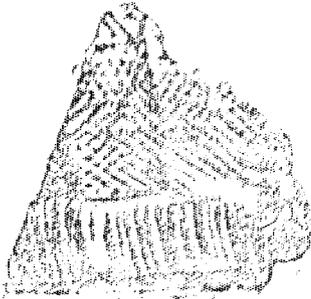
32. 無文암키와片



33. 樹枝圖文암키와片



34.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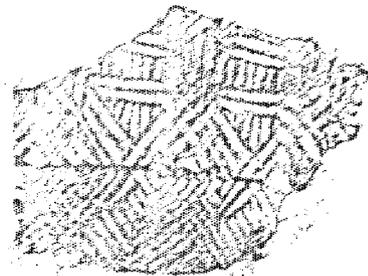
35.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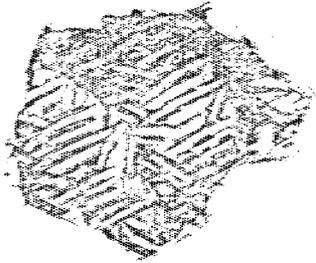
36. 斜方文암키와片



37. 斜方文암키와片



38.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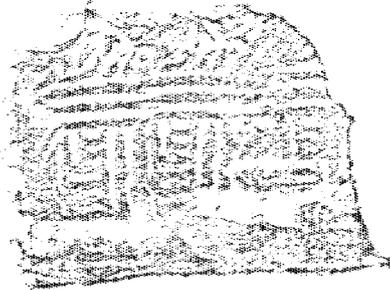
39. 斜方文암키와片



40.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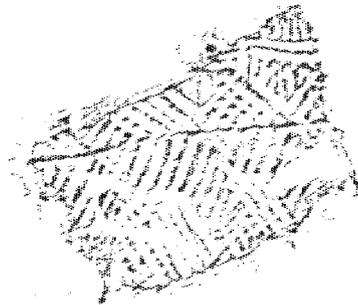
41. 長橢圓文암키와片



42. "○" 銘文암키와片



43. 複合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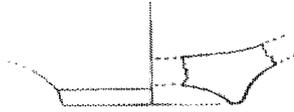


44. 斜方文암키와片

耽羅文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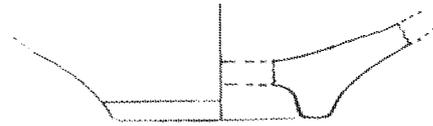
45. 白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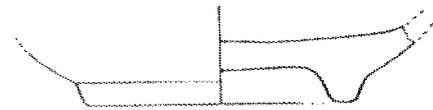
46.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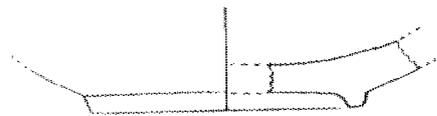
47.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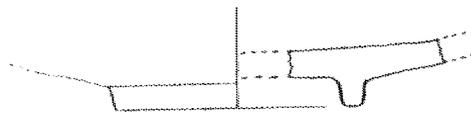
48. 粉青沙器粉粧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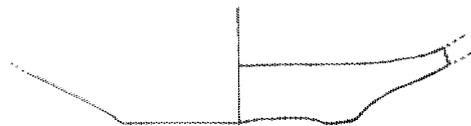
49. 朝鮮青磁底部片



50.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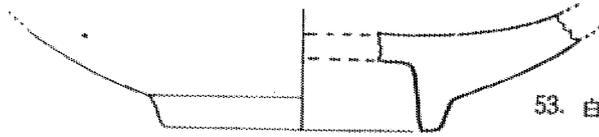


51.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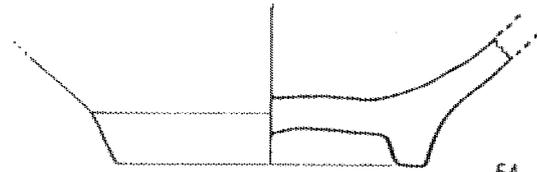


52.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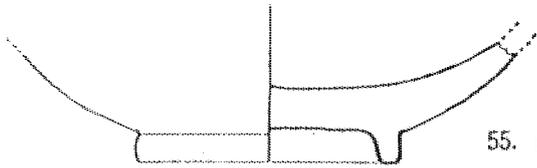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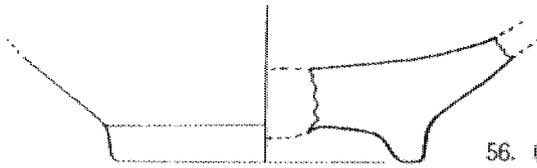
53. 白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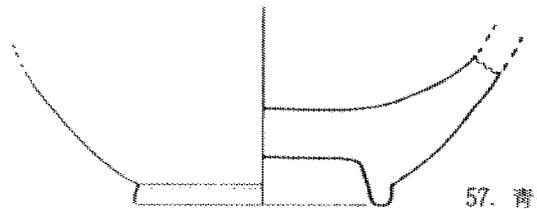
54. 朝鮮靑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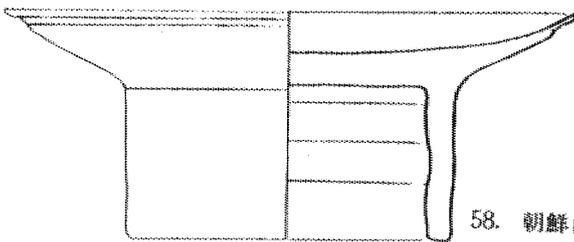
55. 白磁底部片



56. 朝鮮靑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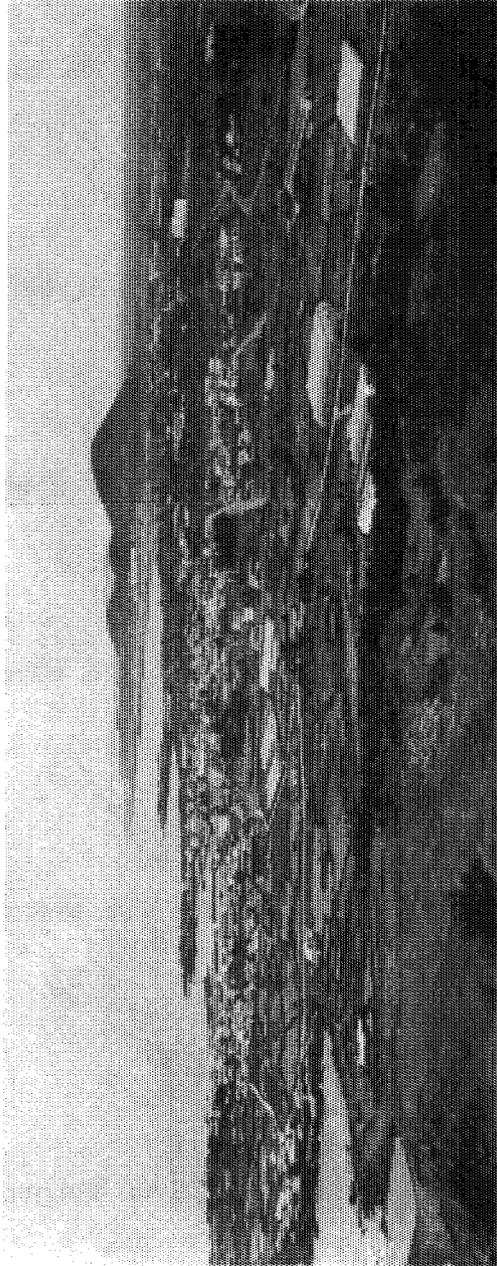


57. 靑畫白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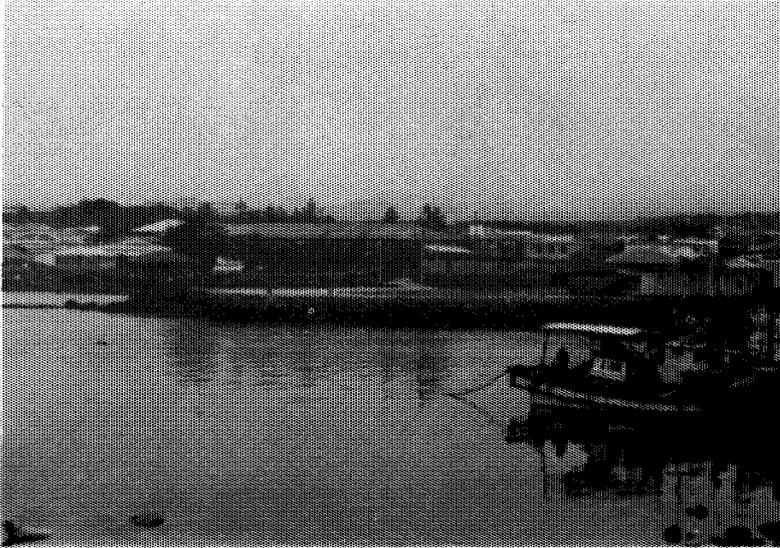


58. 朝鮮白磁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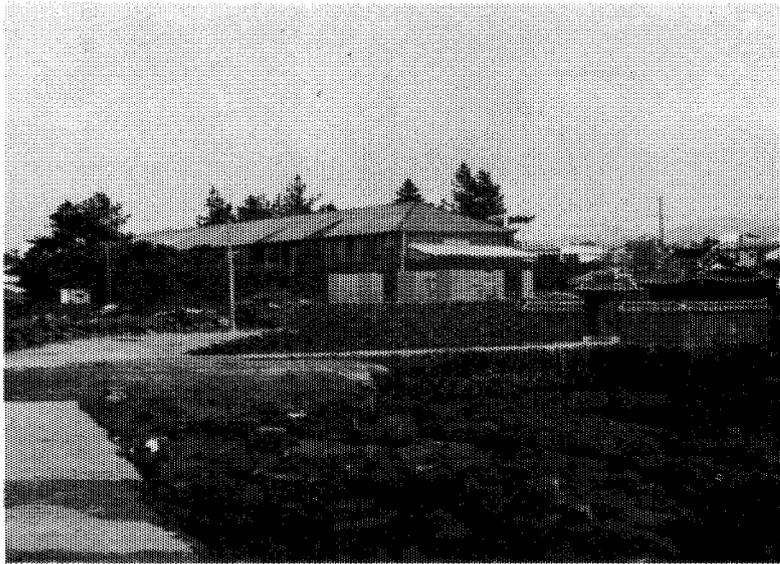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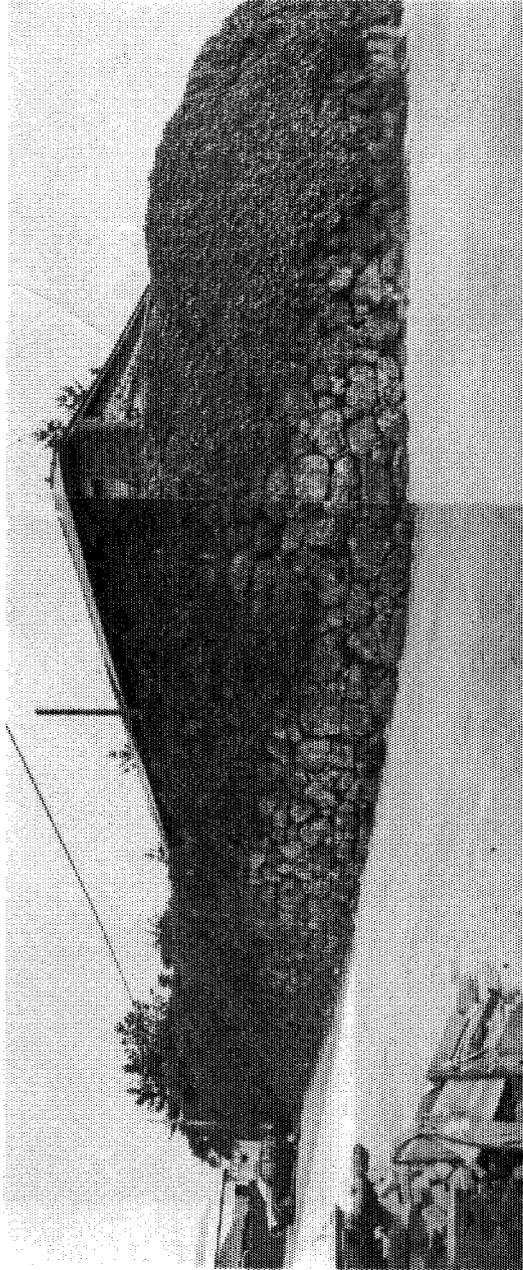
1. 東北浦口 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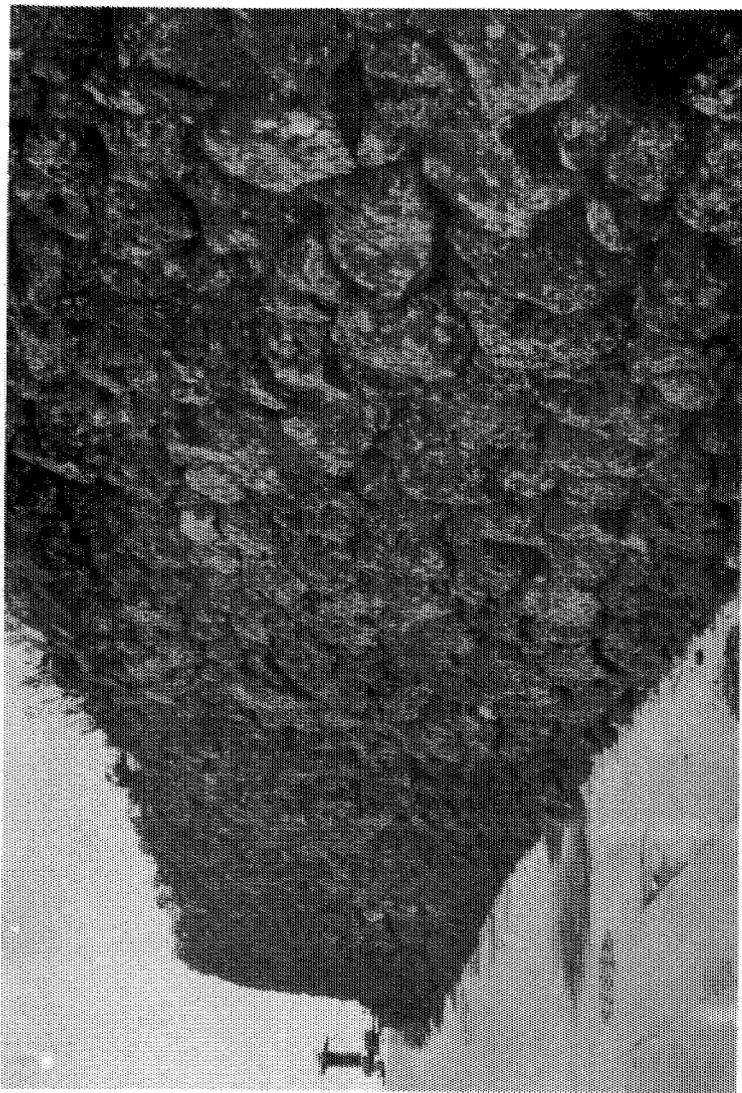
2. 禾北城址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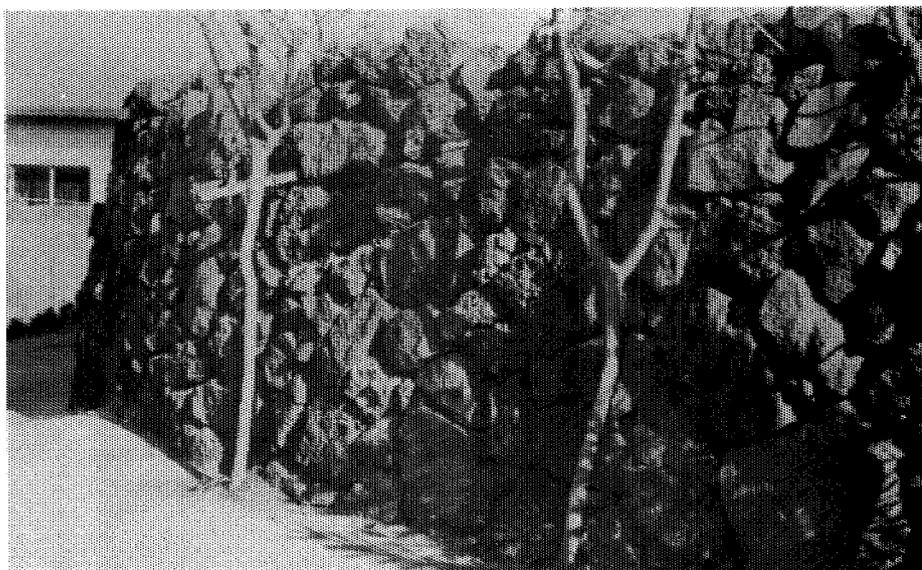
3. 禾北城址外 海神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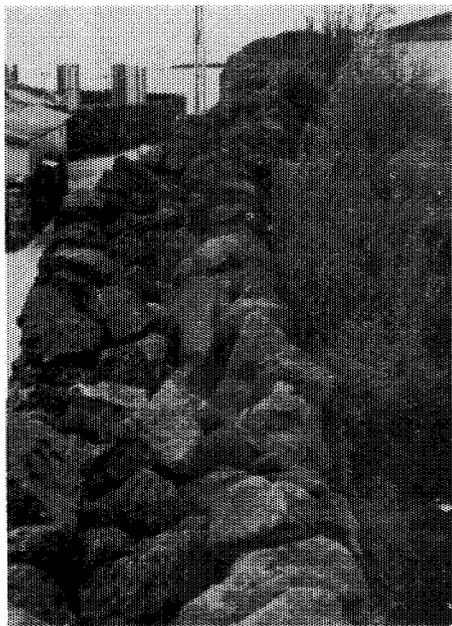
4. 本北城 石築 狀態(北尋에서)



5. 禾北城石築 狀態(西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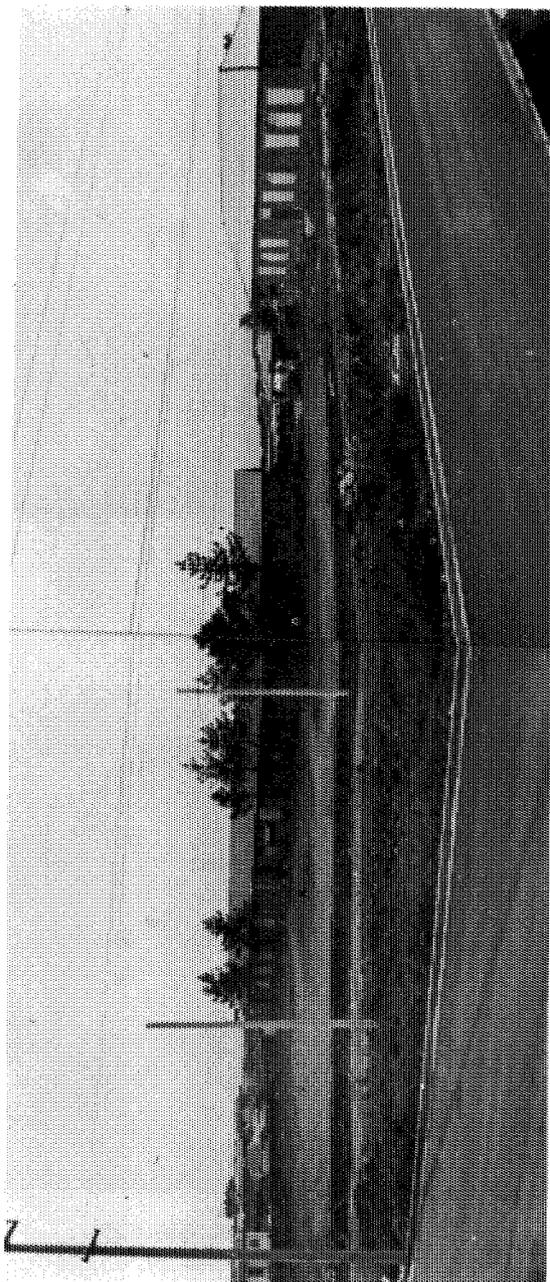
6. 禾北城 石築 狀態(南쪽에서)



7. 禾北城 石築(북쪽)



8. 禾北城 基壇石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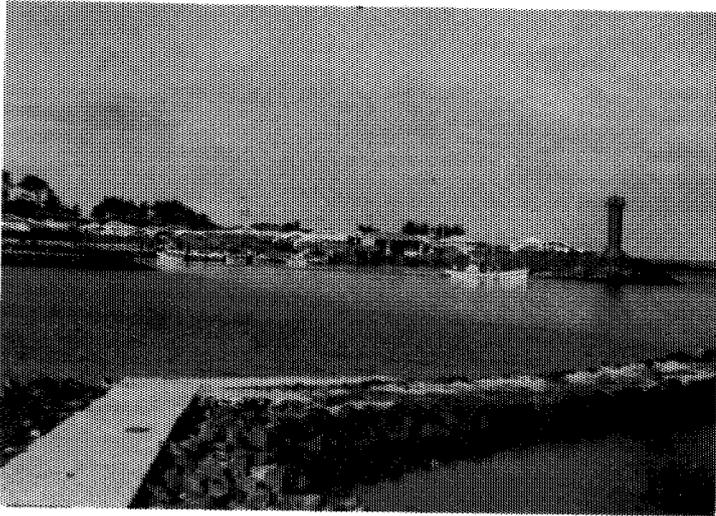
9. 禾北城址 全景(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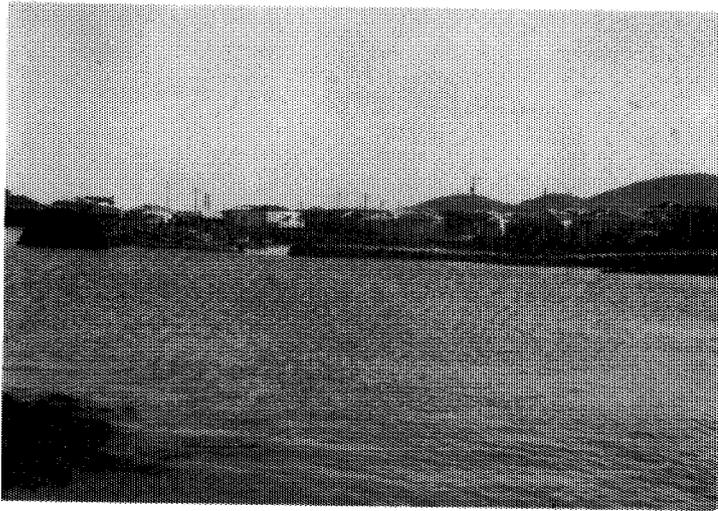
10. 環海長城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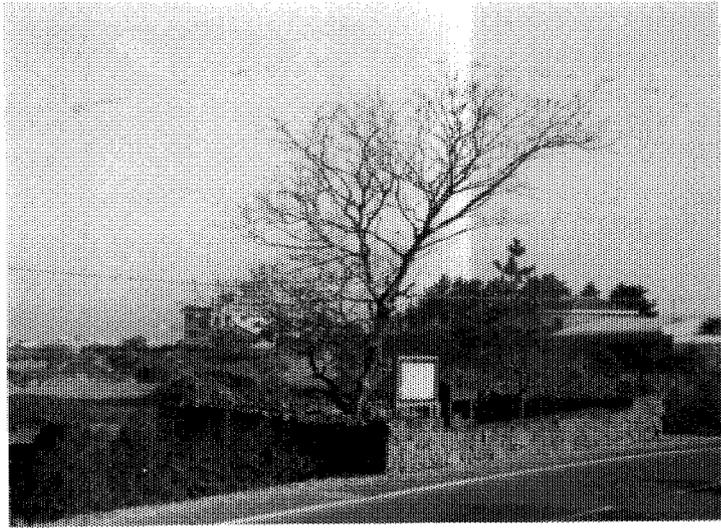
11. 環海長城 石築(外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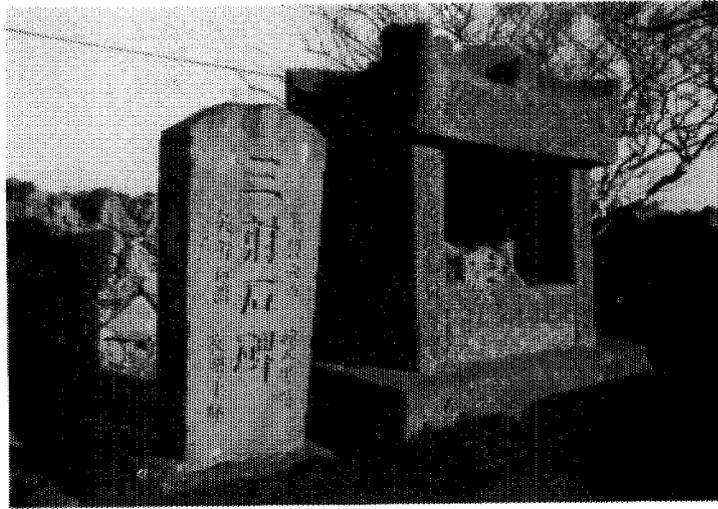
12. 禾北西等 浦口



13. 禾北東等 浦口



14. 三射石 全景(南西쪽에서)



15. 三射石과 三射石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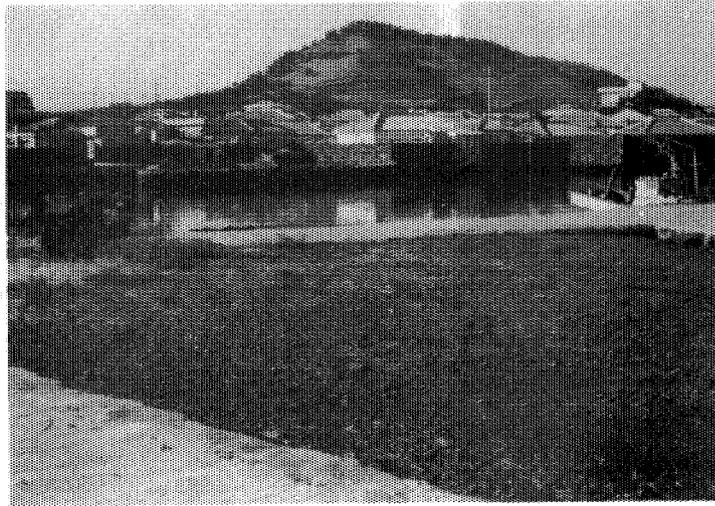
16. 海神祠 遠景(西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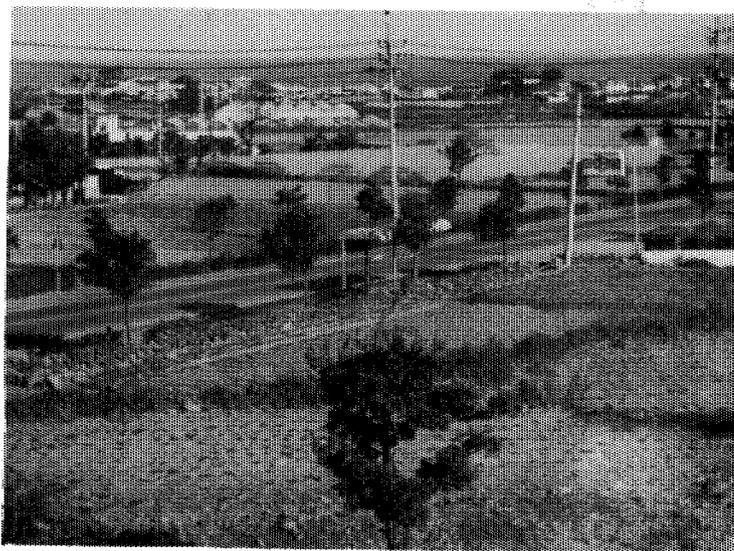
17. 海神祠 前景(北쪽에서)



18. 海神祠가 처음 있었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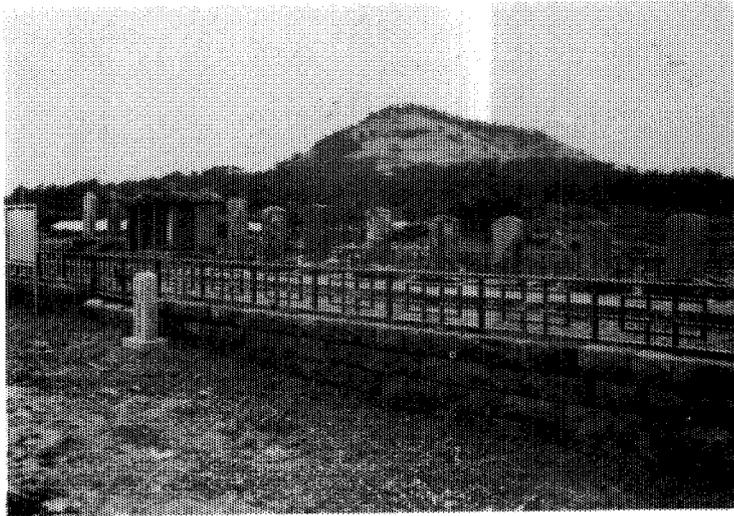
19. 海神祠가 두번째로 옮겨졌던 곳



20. 東濟院址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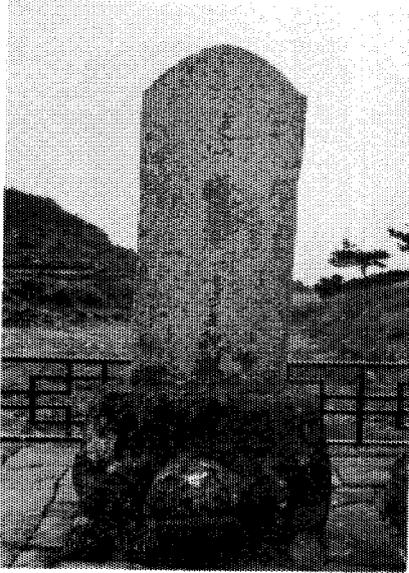
21. 燈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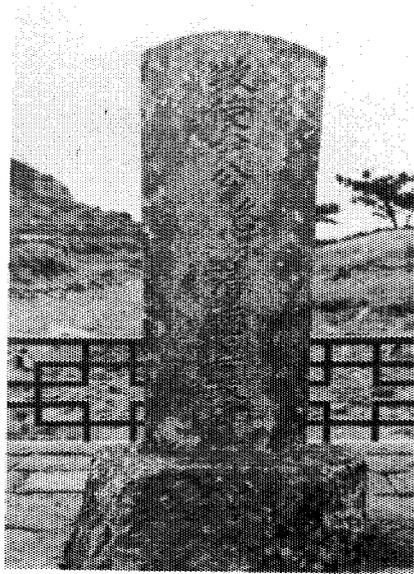
22. 禾北碑石거리 全景(東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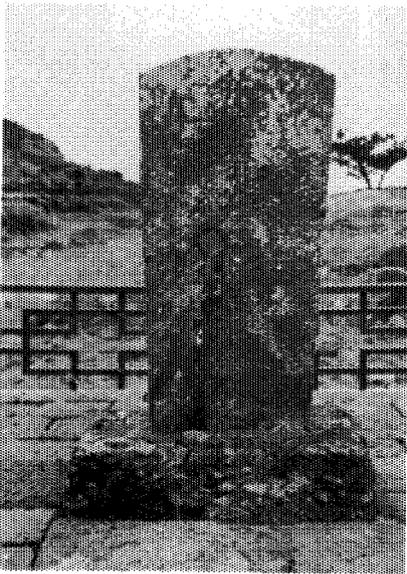
23. 禾北碑石거리 全景(東南쪽에서)



24. 牧使沈相演清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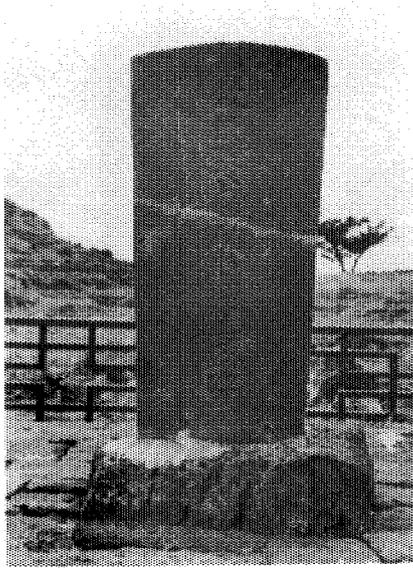
25. 牧使尹公久東清德善政碑



26. 牧使李公遠達補民善政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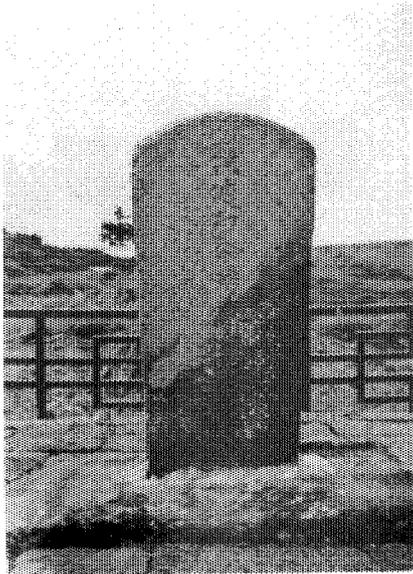
27. 牧使具公載達能去思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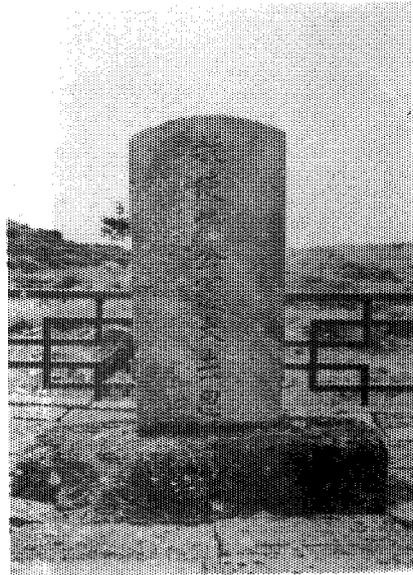
28. 牧使張公寅植植民善政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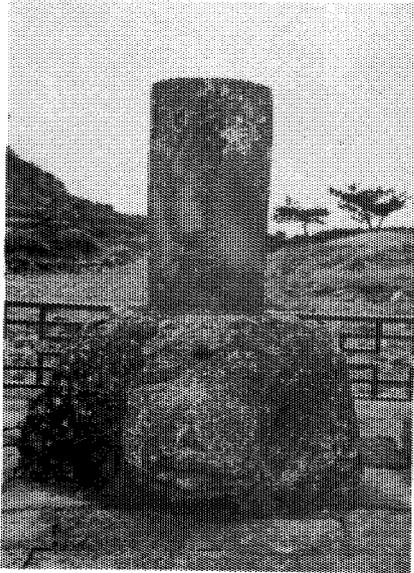
29. 牧使李公玄功植植民善政碑



30. 牧使白公希洙植植民善政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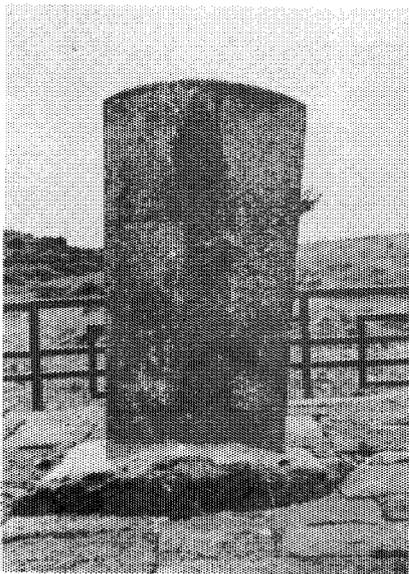
31. 牧使任公憲大去思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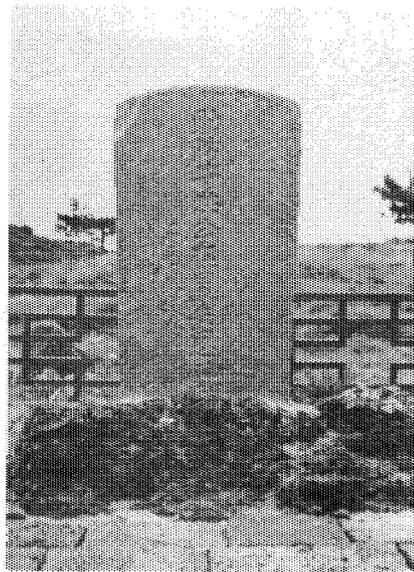
32. 牧使洪公圭去思碑



33. 察理李相公奎運清德碑



34. 判官高公景峻去思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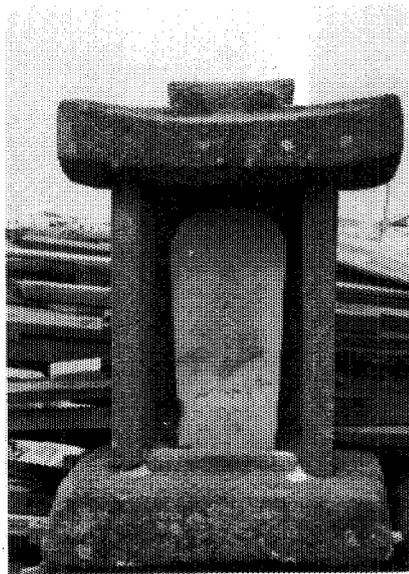


35. 助防將洪公在去思去思碑

耽羅文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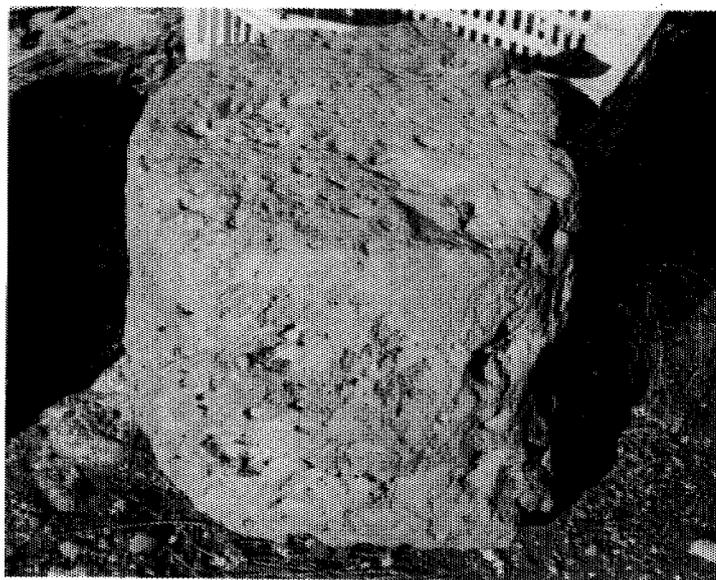
36. 助防將忠碑



37. 牧使金公政奉公碑



38. 禾北城 內 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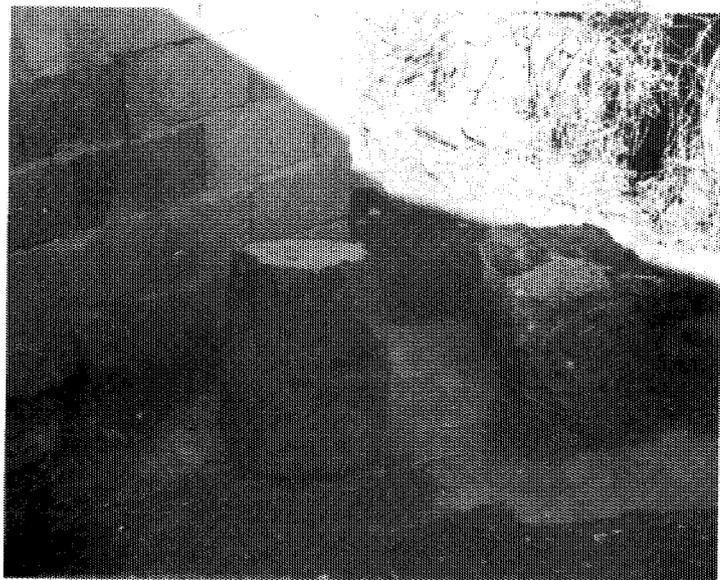
39. 禾北城 內 出土礎石



40. 禾北城 内 出土礎石



41. 禾北城 内 出土礎石



42. 禾北城 內 出土礎石



43. 禾北城 內 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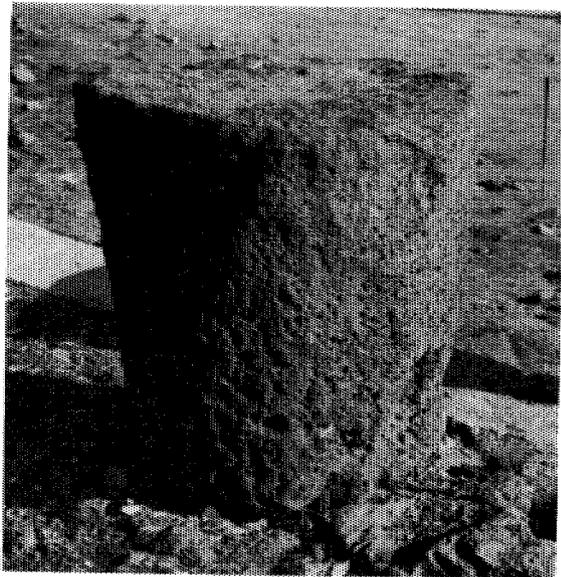
44. 禾北城 内 出土礎石



45. 禾北城 内 出土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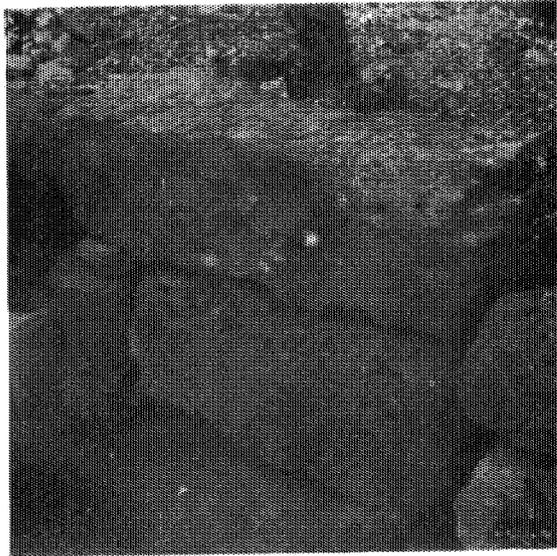
46. 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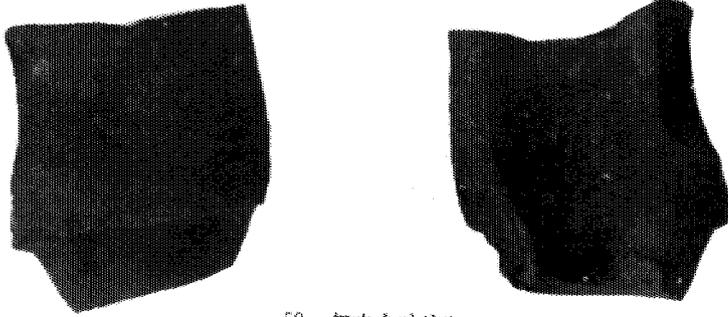
47. 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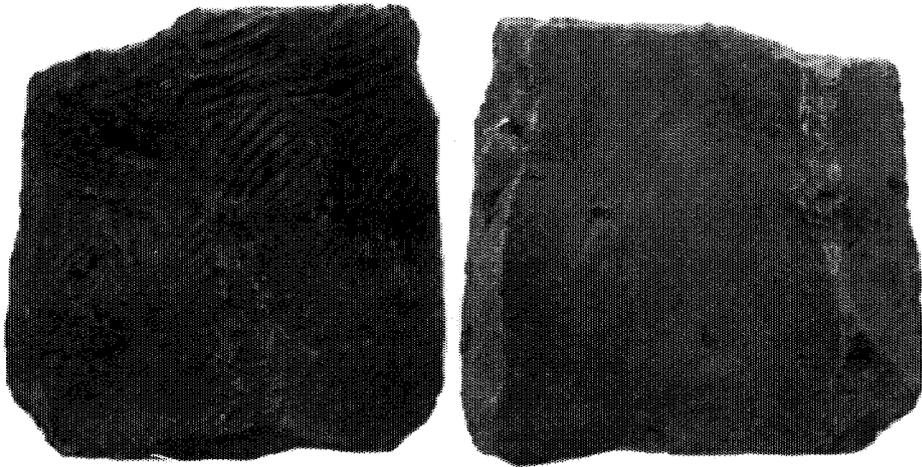
48. 禾北城 内 出土礎石



49. 禾北城 内 基壇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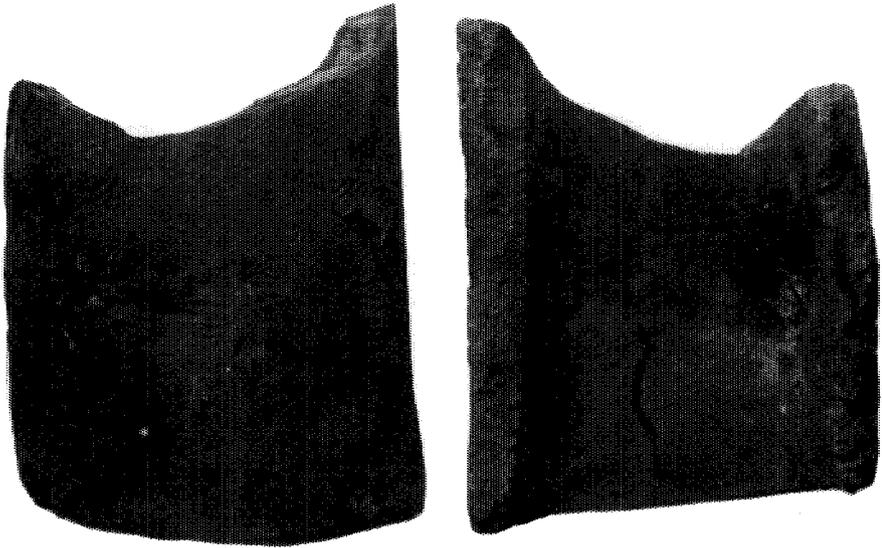


50. 無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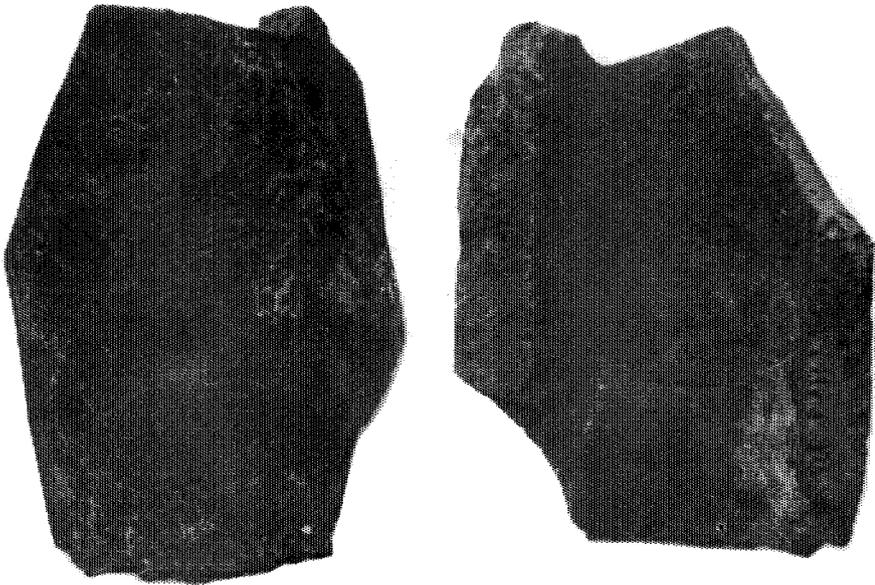


51.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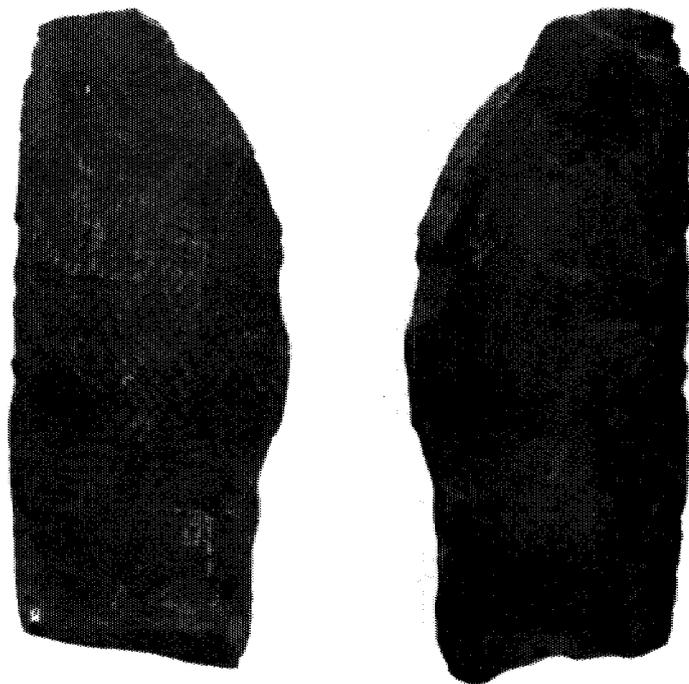
耽羅文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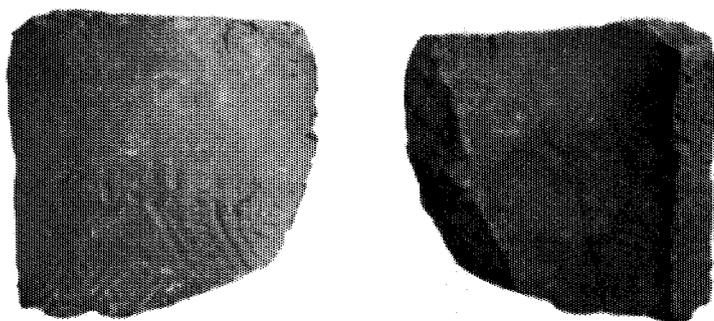
52. 樹枝文수키외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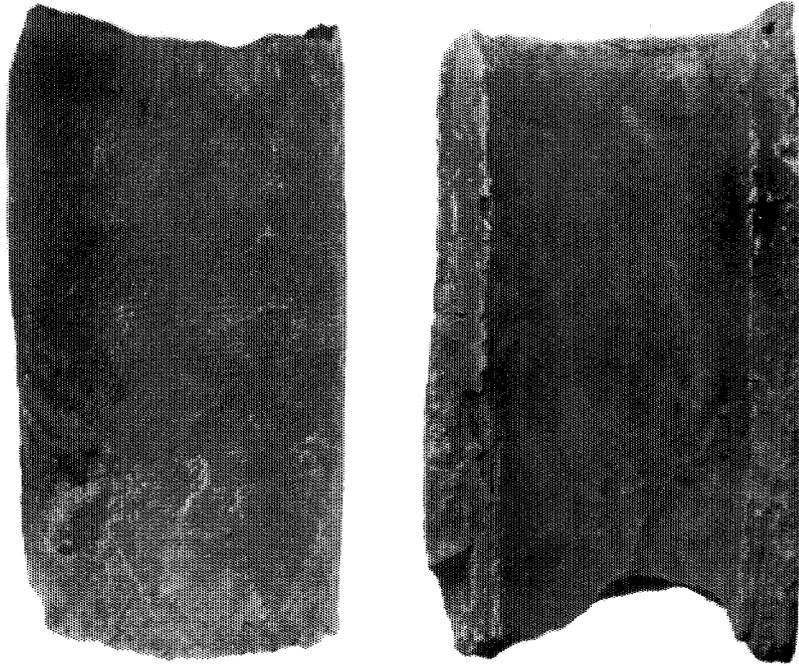
53. 無文수키외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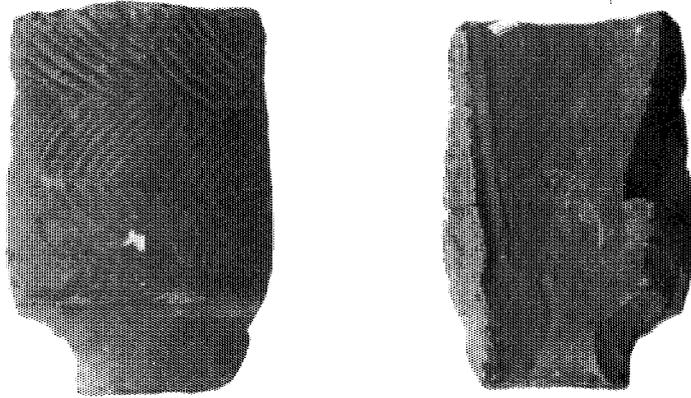
54.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와片



55. 樹枝文수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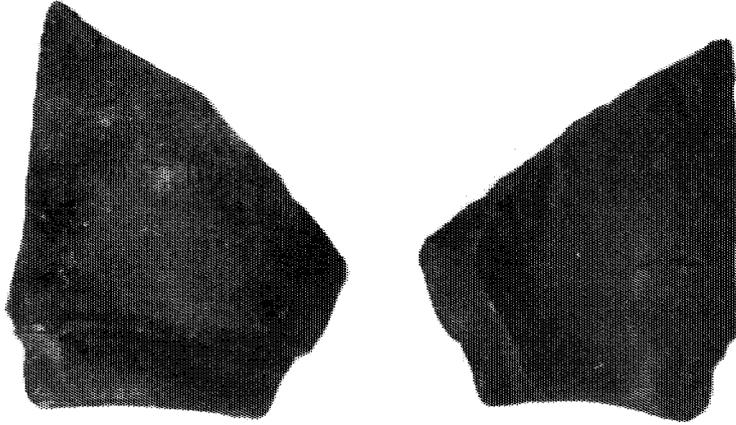
56. 樹枝長線複合文수키외片



57. 樹枝文수키외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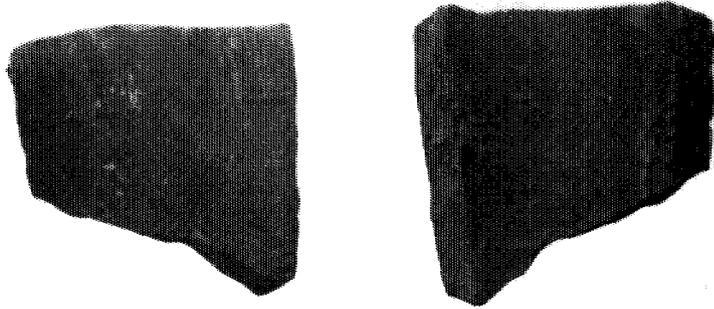


58. 長橢圓文字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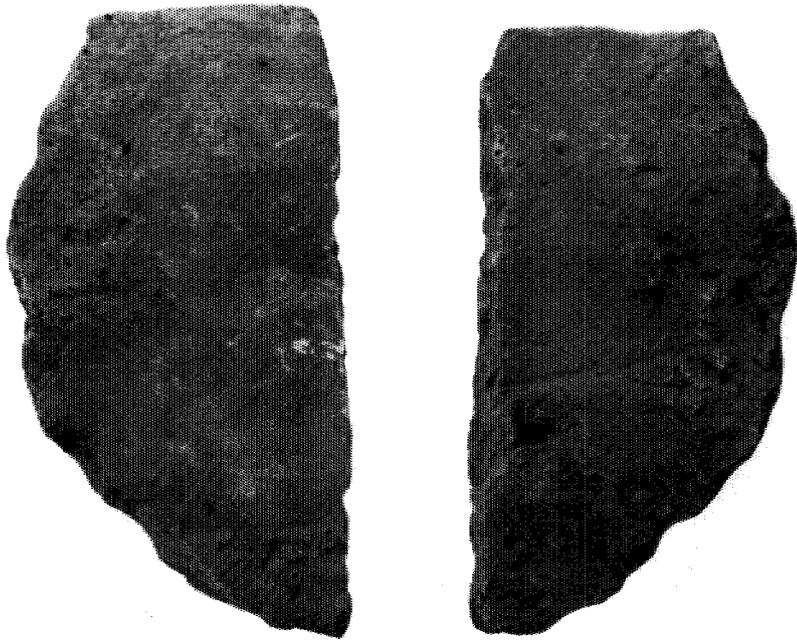


59. 長線文字키와片

耽羅文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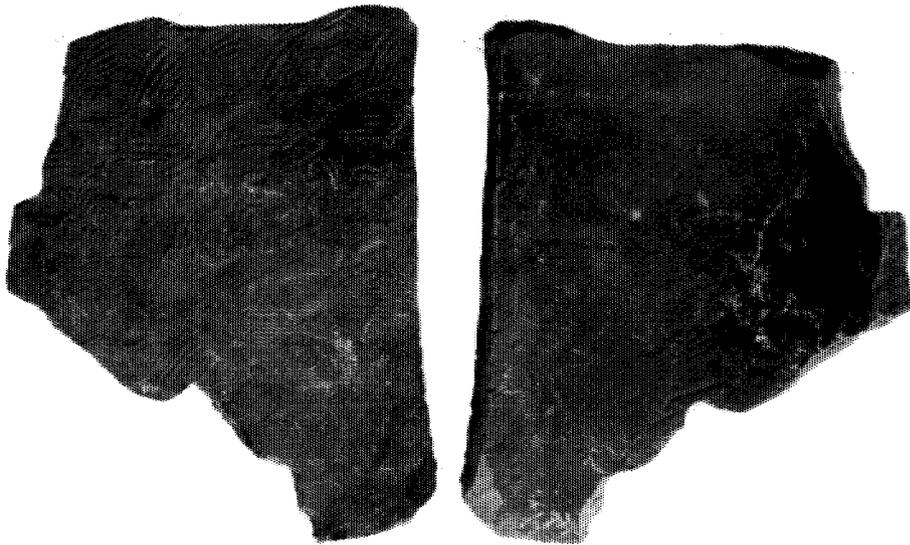
60. 複合文수키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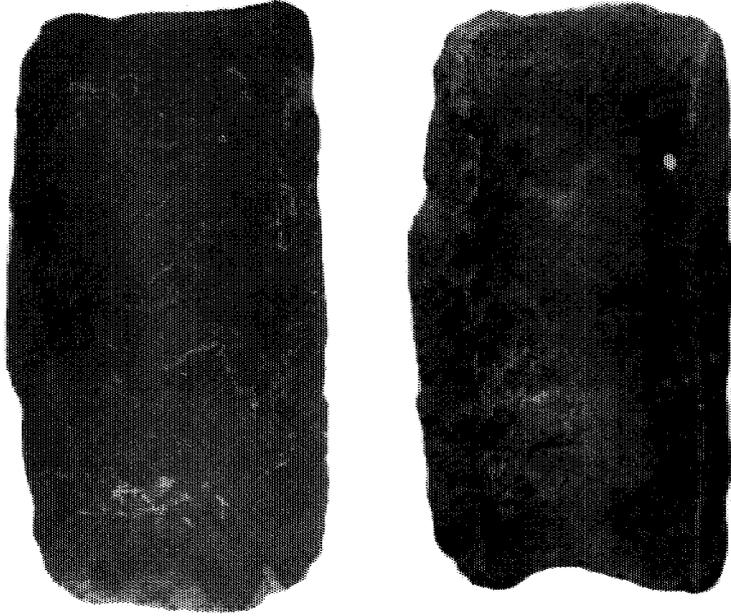
61. 無文양키외편



62 樹枝長線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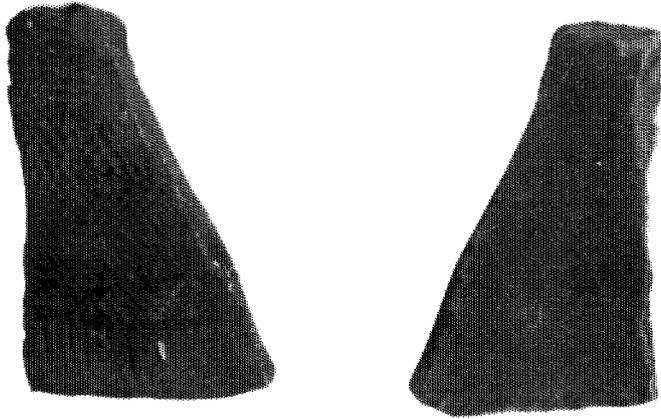
63. 樹枝圓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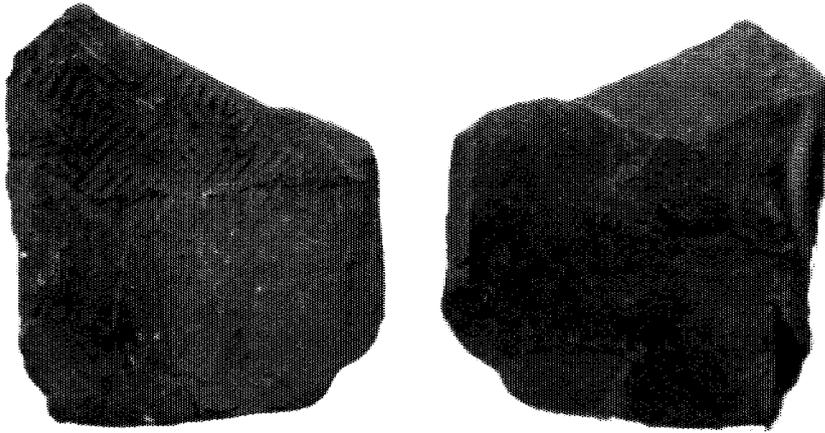
64. 無文암키와片



65.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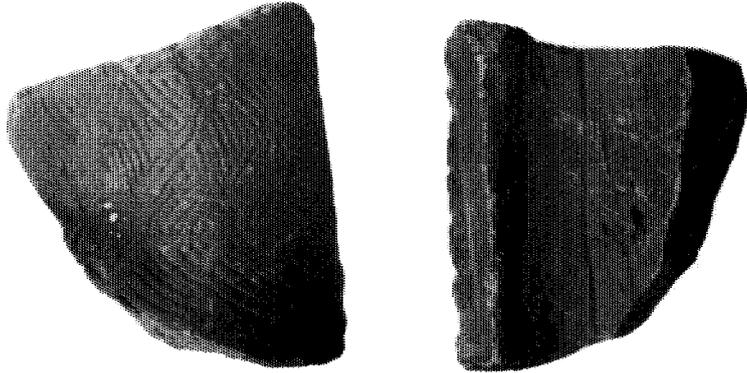


66.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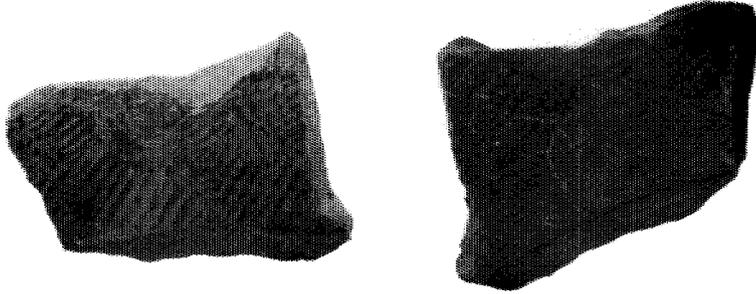


67.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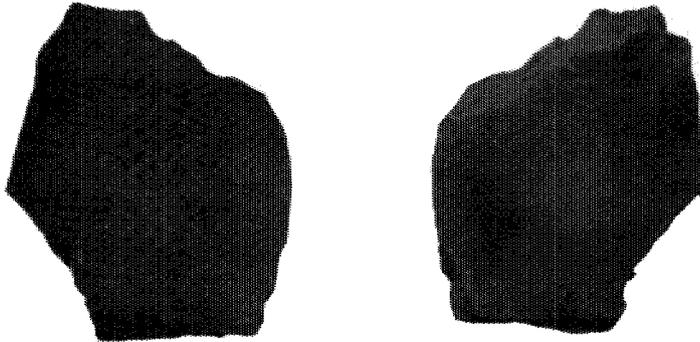
耽羅文化 8



68.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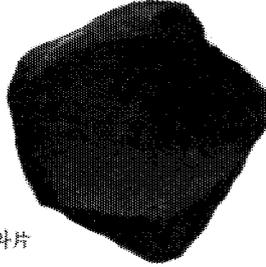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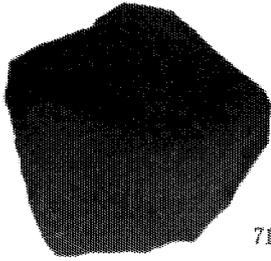
69.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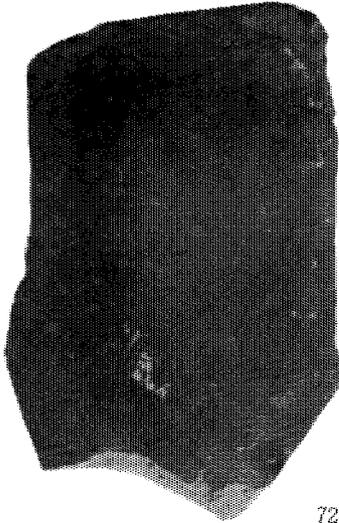
70.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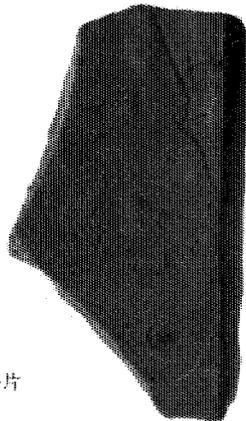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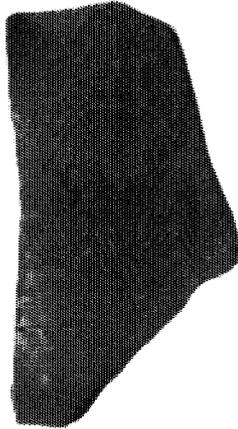
옛 濟州關門인 禾北浦口일대 學術調査



71.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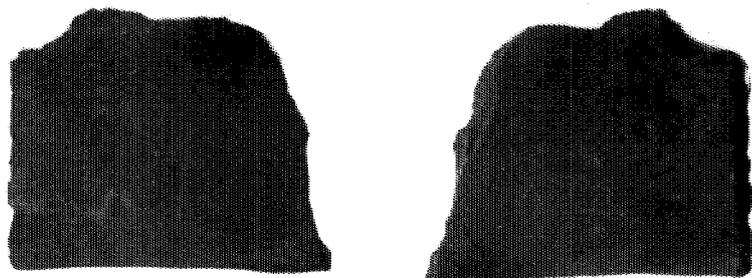


72. 斜方文암키와片



73. 長橢圓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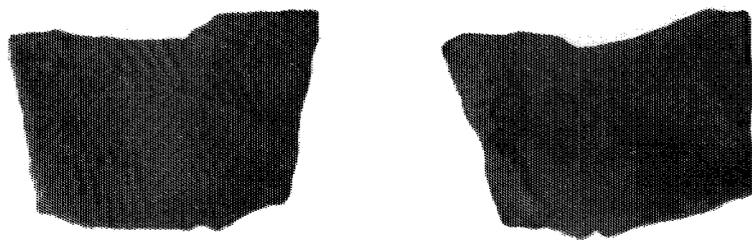
耽羅文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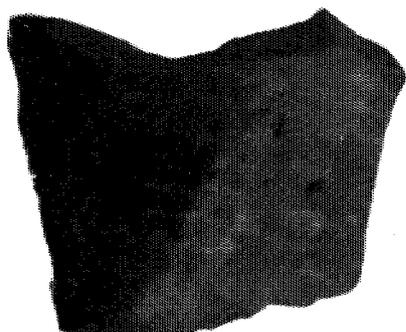
74. "○" 鏡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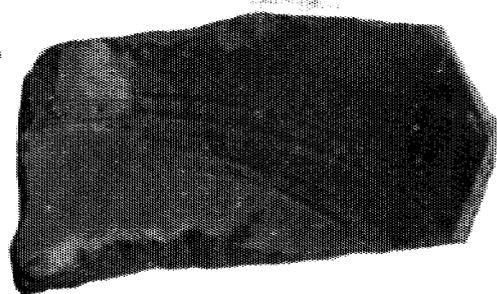
75. 複合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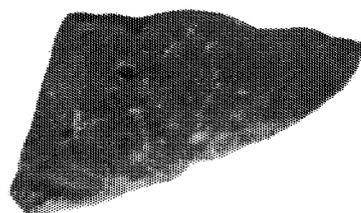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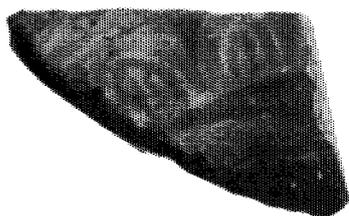
76. 斜方文암키와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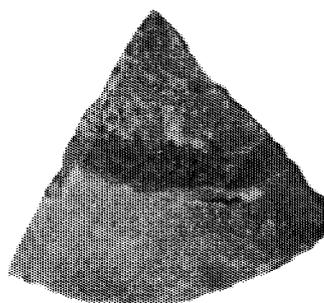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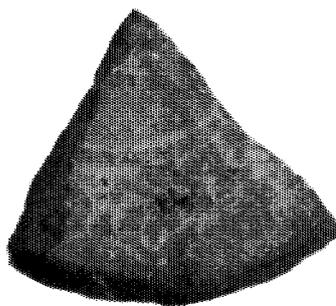
77. 青磁白象嵌梅瓶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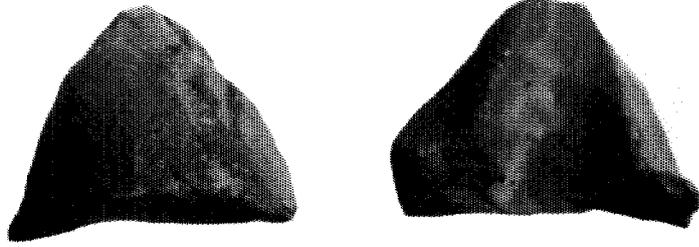
78. 青磁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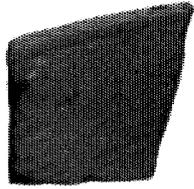
79. 青磁白象嵌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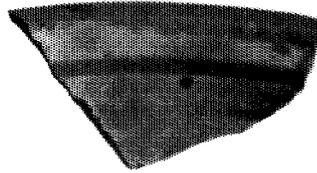
80. 青磁白象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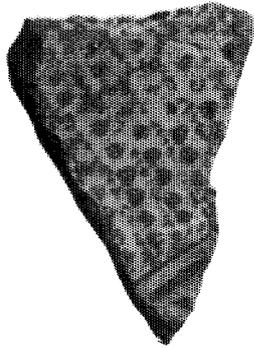
81. 青磁甌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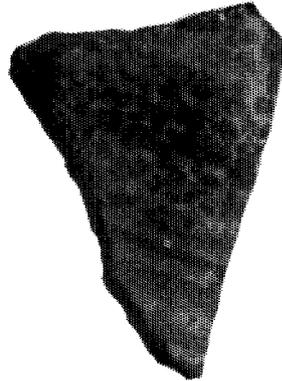
82. 粉青沙器귀얄文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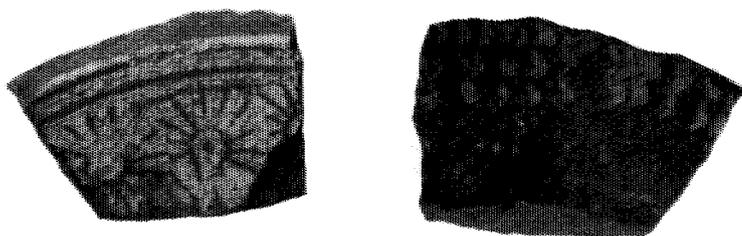
83. 粉青沙器귀얄文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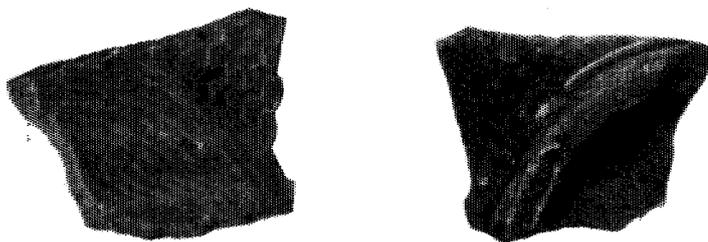
84. 粉青沙器印花文片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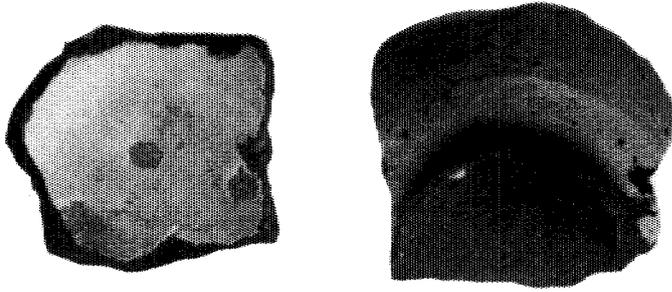
85. 粉青沙器印花文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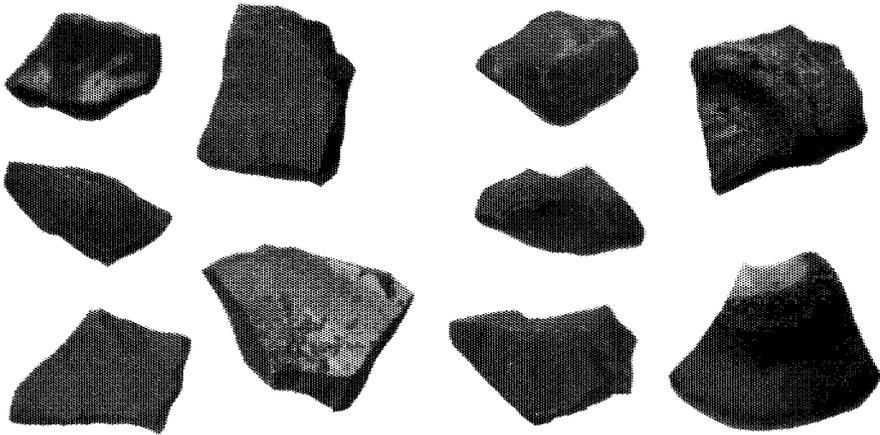
86. 粉青沙器印花文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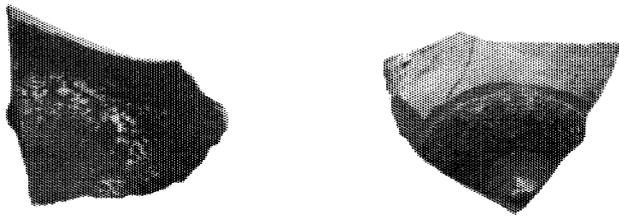
87. 粉青沙器印花文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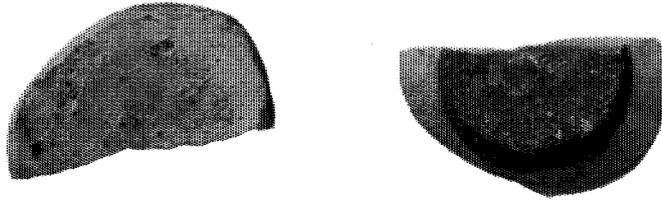
88. 粉青沙器粉粧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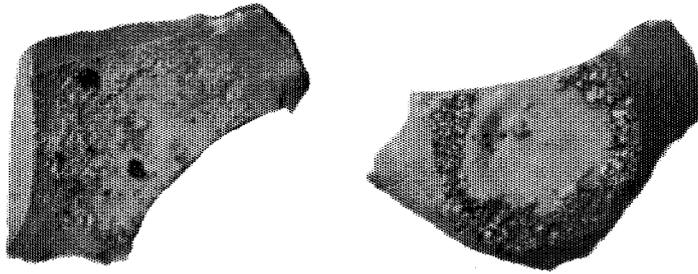
89. 朝鮮青磁底部片(5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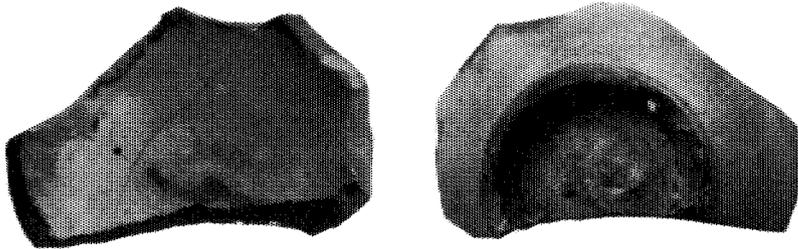
90.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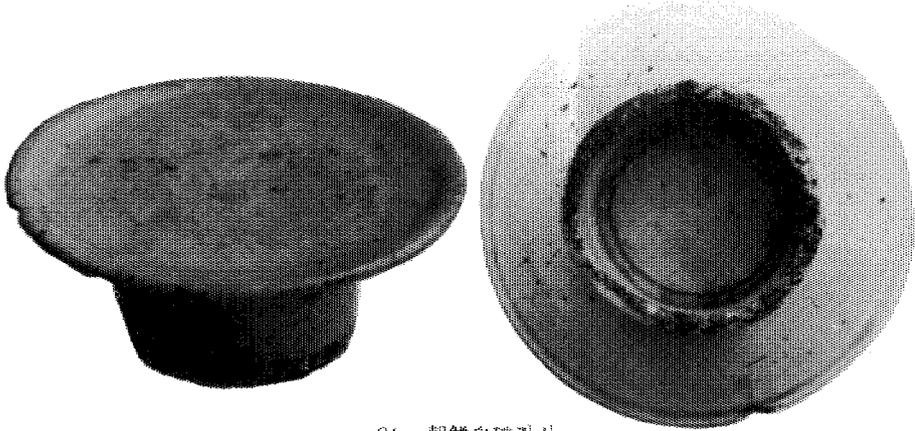
91. 朝鮮青磁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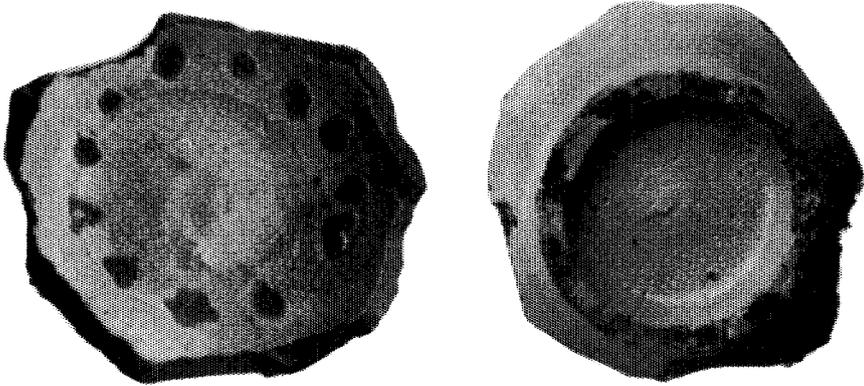
92. 朝鮮青磁底部片



93. 靑畫白磁底部片



94. 朝鮮白磁접시



95. 白磁底部片



96. 靑畫白磁底部片

97. 白磁底部片